



3

197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3호

(루게 365)



◆◆◆◆◆◆◆◆◆◆ 차 례 ◆◆◆◆◆◆◆◆◆◆

타막골기슭에.....	2
오가산 (외 1 편).....	3
포평나루터	4
봉화산기슭의 나지막한 집	5
《김일성주석의 문학예술론에 대하여》	6
떠나는 사람	11
지경길	19
한대오속에서	30
단편소설집 《태양을 따라》	37
한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 (외 1 편).....	38
수령님께 빛나는 한생을 바치리라	38
영원한 청춘으로 우리 살리라	38
《새별눈》을 따라서	39
권리	39
조국이여, 대진군 앞으로!.....	40
혁명전위, 그대의 모습으로	41
바다사람	42
다락발더기마다 물노래에 젖어	43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건설에서	44
일어난 새로운 전변에 대한 생동한	44
예술적형상	44
독자와 소설의 주인공	50
주체적건설력사에 바쳐진 빛나는 화폭.....	52
또 한번 《평양속도》의 주인이 되고싶다.....	54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지배인과 나.....	56
단편소설의 세부묘사와 형상의 질	58
사회주의농촌의 서정과 시인의	60
탐구적자세	60

타막골기슭에

서진명

여기로구나

인민의 소원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

항일유격대를 이끄시고

조국진출의 첫 발자국 찍으셨던

왕재산의 타막골기슭이...

여기로구나

땅은 있어도 제 땅이 없고

하늘은 있어도 제 하늘이 없던 그날

주체의 해불로 이 강산을 밝히시며

조국 삼천리를 안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어려있는곳이...

용용히 기슭에 굽이쳐흐르는

두만강물결아

그날의 감격을 너도 노래하는구나

류랑민들의 피눈물로 불어나던 너의 물결에도

그해 봄부터 해방의 노래 비껴 흘렀다고

하늘가에 날아 에돌며

지저귀는 못새들아

너희들도 노래를 안았구나

빛을 잃었던 이 강산에

밝은 미소로 태양의 빛을 뿌리시며

젊으신 장군님께서 하신 그 말씀

-동무들, 조국땅이요!

아, 조국!

나라를 빼앗겨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소리크게 불러본 이름

오랜만에 인민들 제 땅을 밟고

눈물에 겨워 제 하늘 우러러보게 해주시던

김일성장군님의 그 음성

이 기슭에 영원한 노래로 울리는구나

나라 잃은 인민의 설을 가셔주시며

우리 수령님

미래의 조국을 안겨주실 때

타막골기슭은 영광의 봉우리로

치욕의 깊은 눈을 털어버리고

제얼굴 세상에 드러냈거니

아, 위대한 수령님을

준엄한 그날에 모시여

빛나는 기슭

빛나는 조국이어

내가 태어나 처음 밟은 땅도

해마다 만풍년을 가꿔가는 농장벌도

이 기슭에서 넓어진것이구나!

오가산 외 1편

동기춘

연연 산줄기들을 도고히 굽어보며
밋밋한 룡선들을 어깨인양 서로 견고
하늘우에 머리쳐든 가산의 다섯봉우리
차거운 새벽이면
언제같이 안개폭포 내리쏟고
뜨거운 한낮이면
모자같은 구름갓을 피워쓰고
고요한 밤이 오면
별을 뿌린 산정에 달님을 품어잠재우는
장엄하여라, 가산의 다섯봉우리
그래서 예로부터 오가산이던가
수림의 푸른 파도 쏟아져내린 서늘한 골짜기들엔
태고연한 정적을 저어하는듯
산에 고유한 새소리도 간간하여라
세월의 이끼 두른 나무사이로
해빛도 오리로 비쳐드는 원시림이여
한줄기바람 내달아 수해를 이랑지으면
숨었던 바위들이 섬처럼 드러나는곳
아, 두메에도 오지에 있는 가산이라서
그래서 또한 오가산이라 불렀던가
이 천험의 산밭이 흑한에 얼어붙고
천고의 밀림이 강설에 묻히고
담벽같이 일어서서 내닫는 눈보라
바위를 묻히고 생나무를 얼궤터뜨리며
하늘땅에 아우성치던 그날
해도 빛을 잃어 어둡던 이 강산에
가산의 파몰아치는 눈을 헤가르시며
선혈이 흐르는 조국을 안으시려
여기에 배움의 천리길을 열으신 **김일성** 원수님
언 두루마기자락이 스쳐간
바위여 숲이여
삼가 옷깃 여미고서면
20년대의 음산한 하늘가에

황혼처럼 꺼져가던 이 나라의 운명을 안으시고
해방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이 령을 다시 넘으신 원수님
그 발자욱소리도 들리는듯
그때로부터 50여성상
은혜로운 해빛은 넘치여
얼어붙었던 강산에 락원이 꽃피고
생활의 기쁨속에 행복의 열매 주렁지며
세상은 천지개벽했어도
그날의 첫자욱을 이으시여
한평생 인민을 위해 쉽 없으신 우리 수령님
잊을수 없는 가산의 령길을
3대혁명에로 인민을 부르시며 또 넘으시었나니
배움의 천리길
해방의 천리길
현지지도의 천리길
천리 천리 또 천리
이 나라의 운명과 력사에 전환의 길 열으신
위대한 수령님 걸으신 그 모든 불멸의 자욱을
영광의 노래로 새겨안은 봉우리여
그 영광 지니고 솟아
너 메부리들은 궁지높은 머리들고
누리에 찬연히 번쩍이는가
밀림이여, 너는 언제나 진정 못하고
수해의 파도를 산밭에 일으키는가
이슬어린 푸른 잎새 해빛에 웃는
저 한그루 나무도
흰구름이 스쳐흐르는
저 하나의 바위도
만대에 그 위업 길이 빛내는
오, 가산이여
오가산이여

포평나루터

예가 내 나라 북변 끝인가
지도에서만 보아오던 기슭에
뜨거운 마음안고 찾아와
삼가 옷깃 여미고 서는 포평나루터

압록의 거센 물결 사품치는 소리
여기가 조국땅의 한끝이라는
천리길에 그리며 달려와
경건히 서는 혁명의 성지

어느것이나

20년대의 황혼 비낀 기슭에서
마지막 끼니를 눈물로 짓던 류랑민
불에 그슬은 돌들은 여기 있는가

떠나는 민족이 울고

보내는 압록이 울고...

불어오는 찬바람에 두루마기자락 날리시며
위대한 수령님 가슴아프시여
눈우에 깊이 찍으시던 그 발자욱

너무도 무거운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서계시였기에

여기에 남기신 눈자욱
그날의 깊었던 눈자욱은
오늘도 이 가슴속에서 지워지질 않는가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지신 맹세여
예서 조선을 안으시고 떠나셨기에
오가자의 눈보라우는 광야에
로야령의 얼어붙은 산발에
찍으신 눈자욱도 것처럼 깊었던가

포평의 맹세터에 해방의 봄이 푸르려 몇십년
류랑민이 넘던 저 고개는 꽃에 묻히고
강변의 돌들도 원한의 그슬음 가지고
락원의 강산엔 웃음꽃이 떨기저...

아, 세월이 갈수록 뜨거운 마음
저 압록강 흐름처럼 변함이 없이
위대한 수령님 천만년 우리러모시고
찾아주신 내 나라 길이 빛내리라
충성의 맹세 가슴 불타게 하는
아아, 포평나루터 !

봉화산기슭의 나지막한 집

김정호

뒤뜨락에 추향리
가지마다 봄이 실려 휘늘어지고
소붓한 추녀아래
부드러운 해빛이 흘러넘치는
나지막한 초가집

찾아뵈옵는 걸음
경건해지는 마음
뜨락에 들어서니
후더운 이 가슴에 송엄히 안겨오는
김형직선생님의 인자하신 그 영상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갈한 노전우에
키낮은 나무책상
언제 한번 꺼질줄 모르던 등불이
저 밝은 창가에 어려있고

걸어 천리 또 천리
산발을 넘어 원주의 총검을 뚫고
달려온 혁명동지들을
맞아들이시고 떠나보내시느라
언제나 활짝 열려져있던 문이여

동트는 아침이면
봉화산으로 오르시던
선생님의 발자욱소리 들려오는듯
어둡던 강산에서
제일 선참으로 새벽빛을 맞으셨어라

나라 잃은 원한을 안고
류량의 짚신발들이 흘러가는 길우에
리별이 없는

영원한 삶의 요람을 주기 위하여
밤마다 흐르던 그 불빛,

조선의 힘, 민족자주정신으로
나라를 찾기 위해
준엄한 시대의 광풍을 맞받아
구국의 세찬 화불이 타오른
혁명의 집이여!

선생님께서
여기 계신 날은 얼마 되지 않으셨어도
저 강가에 빛나는 불빛을
만대에 길이 빛날
지원의 뜻으로 밝히신
력사의 집이었구나

내리는 눈서리를 다 맞으시며
조선의 새벽을 불러오신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넉친
락원의 이 강산에 행복으로 피어났어라

아, 눈시울 뜨거이 바라보는
저 수수한 집 나무기둥이
부강조국을 떠받들었구나
저 낮은 추녀에 잇닿아
락원의 도시들은 하늘가에 나래 펼쳤구나

봉화산기슭의 초가집
세월과 더불어
빛나게 솟아오르는
력사의 집이여!

《김일성주석의 문학예술론에 대하여》

일본청년 《주체사상연구회연락협의회》성원

우에다 준코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곳이라면 어디서나 문학 예술은 창조된다. 일본의 문학에 한해서만 보아도 고대의 노래, 중세기의 일기, 이야기문학, 근세기의 단시, 가부끼 등 명작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생활의 기쁨과 슬픔, 리상의 표현이었으며 현실에 대한 항거의 노래였다.

다시말하여 문학예술은 끊임없이 보다 좋은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지향과 감정 그리고 매 시대를 관통하고있는 사람들의 사고를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그리었으며 시대의 진리를 묘사하였던 것이다.

수천년의 인류력사는 정치, 경제, 문화를 고도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20 세기는 인류력사에서 하나의 전환을 가져다준 의의깊은 세기로 되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역사를 움직이며 사회를 발전시켜온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등장한 사실이다. 이는 사회주의사회의 출현, 억압과 착취를 받던 빨리불가담나라 인민들의 대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계급의 투쟁의 양양으로써 나타나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적인 규모에서 압도적인 인민대중에 의하여 요구되고 고조된 그러한 시대는 없었다.

진정 현시대는 **김일성**주석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현대문학예술은 이러한 자주의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의 풍모와 현시대의 진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일본의 현대문학을 보아도 전쟁전의 맑스주의 문학을 계승하는 민주주의적인 문학은 발전하지 못하고 전후에 혁명운동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문학도 좌절감을 면치 못하고있으며 개인주의문학에 있어서는 사회성을 띠지 못한 사생활의 극히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그리고 그림과 영화를 놓고보아도 매우 추상화되고있으며 음악의 대부분은 안일과 퇴폐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일본자본주의의 복잡해진 사회구조속에서 진정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그것을 반영한 자체의 사상 이론을 가지지 못한탓으로 정

확히 옹호발전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정은 현시대를 옳게 반영하고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의 보람있는 삶》을 가르쳐주며 용기와 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창조까지도 어렵게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그러한 혁명적인 문학예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것은 아니다.

최근년간 새로운 시대의 혁명사상인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그에 의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로 질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투쟁과정에서 혁명적인 문학예술이 점차 형성되어가고있다.

그러므로 현시대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 요구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이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체사상에 따라 일본에서의 지금까지의 문학예술의 문제점을 밝히고 맹아로서 형성되어가고있는 새로운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예리론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생각한다.

주체사상에서 본 문학 예술의 본질

우선 주체의 문학예술을 고찰하는데서 《문학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문학예술의 본질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예로부터 문학예술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규정이 애매하였는바 100 명의 예술가가 있다면 100 명이 제각기 관점이 다르다. 마치 이러한 다양성에 문학예술의 본질이 있는듯이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문학예술의 본질은 더욱 명백하게 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인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명제가 도출되는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문학예술

의 본질을 규정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시말하여 문학예술은 인간의 이러한 자주성과 사상의식의 신물이며 작품 그자체에도 응당 그것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이란 인간의 자주성과 사상의식 및 그 총체로서의 시대정신을 논리적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생활과 감정을 통하여 형상화하고 표현한것이라고 규정할수 있다.

이와 같이 문학예술의 본질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다음과 같은것들을 새롭게 밝혀낼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문학예술평가의 가치기준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얼마나 자주성이 강력하게 표현되고있으며 시대를 추진하는 사상의식에 의하여 그것이 인도되고있는가, 또한 그것이 현실에 얼마만큼 깊이 파고들어갔으며 생동하게 묘사되고있는가 하는것이 예술작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예술작품들은 어째서 시대를 초월하여 길이 남아있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리해할수 있다.

지금까지 고전의 가치에 대해서 각이한 견해가 있었는데 《미》, 《보편적인간성》, 《이데올로기》 등의 추상적인 규정밖에 내릴수 없었다.

맑스도 《정치경제학비판》 서문에서 회랍예술에 언급하면서 《어린이들의 순진성은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는가?》고 하면서 인류의 역사적유년시대가 영원한 매력을 준다는데서 고전의 생명문제를 보는 정도로 그치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하신 **김일성**주석의 말씀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여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예술작품이 인간의 본질인 자주성과 사상의식을 반영하는것은 응당하다. 그리고 사상의식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매 시대마다 고정화되는것이 아니라 더 좋은것을 지향하게 된다. 그 지향성으로서의 자주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관통되고있으며 그것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의 자세는 현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줄수 있기때문일것이다.

실례로 유럽문예부흥기의 문학예술을 보기로 하자.

중세기적억압, 교회나 봉건군주, 귀족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부르조아계급을 중심으로 한 인민대중의 요구는 인간성회복을 기본으로 한 문예부흥에 의하여 정신적측면에서 실현되어간다. 그리고 부르조아적개인의 해방을 부르짖는 작품이 현재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힘은 주지 못하지만 일정한 감동을 주는것은 거기에 낡은 틀을 마스고 새것을 추구하는 당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강하게 표현되고있기때문이라고 본다.

문학예술의 역할과 현대적의의

그러면 다음으로 이러한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놀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역할이 현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또 그를 위하여서는 어떤 질적표징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문학예술의 역할은 첫째로 인간성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보장하는것이며, 둘째로 혁명투쟁에서의 힘있는 무기라는 점을 들수 있다.

첫째문제로 문학예술 그 자체가 인간성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보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문학예술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문학예술은 인간의 자주성과 사상의식 및 그 총체의 반영이므로 우리들이 그것을 창작하거나 감상, 향유하는 과정에 우리의 자주성은 옹호되고 사상의식이 제고된다는 사실이다. 좋은 시 한편을 창작한 사람이나 훌륭한 소설 한편을 읽는 사람은 응당 그 이전보다 인간성을 더 풍부하게 발전시킬수 있는것이다.

둘째로 문학예술은 혁명투쟁에서 힘있는 무기로 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군중을 교양개조하는데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안되며 선전선동만으로도 안됩니다.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들인 소설, 시, 연극, 영화, 음악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다 동원하여야만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와 같이 문학예술이 가지는 교양적가치의 크기로부터 그것을 혁명투쟁에서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규정하시였으며 항일혁명투쟁과 그 이후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 일관해서 문예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유격투쟁을 진행하시는 가운데서도 몸소 연극 《피바다》를 참작하시여 사람들을 투쟁으로 불러 일으키시였고 해방후의 문예활동에 대하여서도 친히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여 근로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도록 하시였다.

일본에서도 이전에 문학예술이 계급교양의 수단, 당의 문학으로서,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논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갓 선전선동을 위한 다시말하여 《선전선동문학》의 위험성을 가지고있었던것은

앞에서 언급한 《인간성의 개화발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었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러한 역할을 지닌 문학예술이 가지고있는 현대적의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그것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파악이 생기고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이 뚜렷이 밝혀진것과 관련된다.

특히 사상이운데서도 사람들의 계급적리해관계의 요구, 지향성과 정열 등의 세계관이 가장 중요하다는것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명백히 되었다. 그것들은 리론적개념으로서는 표현하기 곤란한것들이다.

그리나 문학예술은 사람에 대한 관점으로서 집약되는 세계관을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직접 전달할수 있다.

이러한것들은 주체사상에서 지적하고있는 생동한 사상을 전달하며 사상성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가 있다.

그것은 또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본질이 밝혀진것과 관련된다.

혁명투쟁은 다만 주권쟁취와 생산관계의 변혁에만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특히 인간성의 전면적개화발전을 그의 종국적목적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그에 복무하는 문학예술의 의의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크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면 이와같이 현대적의의를 가지며 진정으로 사람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사상의식을 높이며 혁명투쟁의 무기로 될수 있는 새로운 문학예술이 갖추어야 할 질적표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므로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옳게 반영하고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그들에게 철저히 복무하여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문학예술의 인민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예술의 진정한 평론가는 인민들입니다. 인민들보다 더 총명한 평론가는 없습니다. 인민들의 판정에 합격한 작품은 좋은 작품이고 인민들의 판정에 합격하지 못한 작품은 좋지 못한 작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소설, 시, 음악, 영화 그밖에 다른 모든 예술은 인민대중이 알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할데 대한 인민성의 원칙은 인

민대중의 피상적요구만을 반영하여 저속화하는것과는 구별되여야 한다.

또한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계급투쟁의 무기로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력사적위업에 복무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와같은 계급성의 원칙은 끊임없는 문화적침투로 로동계급의 혁명성을 마비시키며 그의 계급성을 거세하려는 현대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정책과 문화정책에 비추어 더욱 중요하다.

더우기 혁명투쟁이 구체적으로는 혁명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문학예술이 혁명투쟁의 무기로 되기 위해서는 혁명조직에 복무하여야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문학예술의 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한 혁명적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참다운 혁명조직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반영한것이므로 혁명조직의 부름을 받들고 헌신적으로 싸우는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야 당적이며 혁명적인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인민성, 계급성, 당성은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질적표징으로 되며 모든 좌우경기회주의를 식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할수 있다.

창작에서의 립장과 방법

이상과 같은 본질, 역할, 질적표징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는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점을 보기로 하자.

첫째로 문학예술 그자체가 전적으로 작가의 사상관점과 립장에 의하여 규정되므로 작가가 지녀야 할 사상과 립장에 대하여,

둘째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창작방법상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셋째로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대하여,

넷째로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문제, 작가, 창작가들이 어떤 사상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그 현실을 관통하고있는 진리를 파악할수 있는가.

앞에서도 쓴바와 같이 오늘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굴종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기자신이 결정하기 위하여 온갖 억압과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고있다.

김일성 주석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것은 사람에게 자주성이 있기때문이며 자주성을 유린하는 현상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혁명투쟁에 일떠선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볼 때에만 비로소 현시대의 이러한 본질적특징과 투쟁에 일떠선 사람들의 힘찬 모습과 그 필연성 그리고 투쟁과정에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되어가는가 하는 문제들을 똑바로 볼수 있다.

옳은 주체사상의 관점이란 작가들자신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살 때만이 인민대중의 진정한 요구를 알수 있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할수 있으므로 먼저 작가와 창작가 자신들이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한 주체의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것이 다.

둘째문제, 창작방법상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것은 진실을 현실이상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기때문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예술작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아무리 옳은것을 표현하였다 하여도 표현수법이 서툴면 작품자체가 빛을 잃고만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상성은 제 1 차적의의를 가지지만 그와 함께 높은 예술성이 요구된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창작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대상을 세부에 걸쳐 관찰하고 인식함으로써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질을 찾아내어 표현하는것이다. 가령 현대제국주의국가권력의 횡포성은 그 자체가 강하기때문인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약화된 반영이라는것 그리고 현시대의 인민들속의 모순은 그자체가 적대적이기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분열정책의 결과이며 원래는 동지적이며 혈연적인 따뜻한 관계로 결합되어있다는것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레하면 조선영화에는 이러한 사회주의적사실주

의가 철저히 관통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아름다움이 모든것의 바탕으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에 접근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전형적인 환경에 놓인 전형적인물을 충실히 다시 그려내는 문제도 포함하고있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일떠선 시대이다. 이러한 인간의 최고념원인 혁명투쟁에 모든것을 바치는데서 기쁨과 긍지를 느끼며 락천적이고도 굴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현시대의 전형으로 그려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전형문제는 주체사상에서 방도로 정식화된바와 같이 인간의 보다 좋은것을 추구하는 능동적지향성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는 문제에 해답을 준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은 인간해방문제가 종국적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현시대에 있어서 구체적인 새로운 인간상을 내세울수 있기때문에 그 역할이 자못 중요한것이다.

셋째문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문화유산을 어떻게 대할것인가 하는것을 고찰하려고 한다.

우리의 새로운 주체적인 문화가 지금까지의 계급문화전반을 부인하는것은 물론 아니다.

주석께서는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만을 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외국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끝으로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문제를 보기로 하자.

본래 인간생활의 표현으로 되고있는 문학예술이 계급사회에서는 주로 지배계급의 독점물로, 인민을 지배하는 도구로 되어온것만은 사실이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예술에서 대중화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문학예술의 창조와 발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 아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

주체사상에서 문학예술의 군중화란 군중로선의 구현을 말한다.

그 의미는 문학예술의 군중화에 의하여 문화를 대중자신의것으로 되찾게 하며 대중의 매 개인의 창작과정이 사상적으로, 예술적으로 세련되고 자신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데 있다.

맹아로서 형성되어온 새로운 문학예술

현재 일본에서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이 절실히 요구되고있지만 기성문학의 조류속에서 출현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문학예술은 시대의 현실속에서 투쟁하는 과정에 미숙하게나마 형성되어가고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을 배우는 청년들속에서도 맹아로서 형성되어가고있다는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주체사상을 배우는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인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복무하게 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예활동을 처음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여왔다.

그것은 집단적인 생활을 통한 문예활동, 일상적인 문예활동에 대한 방조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노래, 시, 연극 등이 창작되었는데 그에 대한 성과를 몇가지로 요약해 말할수 있다.

첫째로, 주체사상을 보급하며 일본의 혁명투쟁을 발전시키는데 복무하는 문학예술이 창조된 사실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현시대의 본질을 알려주고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는 인간의 기쁨과 긍지를 그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사회의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는 작품들이 창조되었다.

레하면 연극분야에서 모든것을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로동계급의 씩씩하고 아름다운 모습, 모순속에서 각성되어 일떠서는 모습을 그린 《인민의 싸움은 이제 시작된다》, 작은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일떠섰으며 단결하여나가는 모습을 그린 《꽃이야기》, 주체사상을

배워 각성하였으며 그를 따라 사는 청년들의 기쁨을 그린 《두 노래》 등을 비롯한 우수한 작품이 나왔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람들의 계급적자각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현시대에 있어서 주체사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배우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을 보여줄수 있게 되었다.

종래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예에 의하여 세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수는 있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불충분하였기때문에 계급으로서의 인간의 힘은 그려낼수는 있었으나 매개 사람의 힘과 아름다움을 잘 그려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인간의 지위와 역할 문제가 해명되었으며 매개 사람이 혁명적으로 각성만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가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표현할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날에는 《굶주린자》, 《가난한자》였기때문에 들고일어났던 근로대중이 오늘은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존재이기때문에 투쟁한다는것을 앞에서 서술한 연극의 주인공들과 시, 노래들에서 보여주었다.

셋째로, 문예활동의 조직화에 의하여 문학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한것이다.

이때까지 시, 노래, 연극 등을 창작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창작활동을 맡아나서게 되고 그 과정에 매 개인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문학예술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되찾게 된 사실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가장 큰 성과였다.

그리고 소박한 대중이 투쟁속에서 창작한것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고 그들의 감정에도 맞는 작품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문학예술의 대중화문제의 중요성은 입증했다고 볼수 있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최근 주체사상을 배우는 청년들의 활동에서 축적하여온 문학예술은 많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용기와 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안겨주는 혁명적문학예술의 맹아라고 할수 있다.

떠나는 사람

백현우

즐거운 작별의 저녁이었다.
창무는 이날의 즐거움이 피로움을 가져올줄 알지 못했다.

《자네 점찍어둔 체네 있나?》

8 선녀할머니는 구들에 잔뜩 벌려놓은 종이봉투들을 거두다 말고 도수높은 안경너머로 창무를 바라봤다.

《원 할머니두...》

지나는 길에 잠시 다리섬을 하려고 들렀던 창무는 퇴마루에 배낭을 벗어놓고 서서 씨물씨물 웃기만 했다. 배낭을 지고 리에서 여기까지 시오리나 걸어온 그의 몸에서는 아직 단내가 물씬 물씬 났다.

《괜찮은 체네가 있어... 그런 딸이라면 또 하나 낳으래두 싫지 않겠네. 아들 반쪽이라도 있으면 머느리 삼으련만...》

딸만 여덟을 주련이 낳아 8 선녀할머니라 불리우는 왓새촌 늙은이는 아들 없는 탄식을 했다.

창무는 총각다운 호기심이 없지 않았으나 할머니를 돌렸다.

《할머니, 그건 뭐예요?》

창무는 담배를 붙여물며 늙은이가 벌려놓고 앉은 세멘트포장지로 만든 큼직큼직한 봉투들을 톺아냈다.

《보약종자지, 이건 황기씨구, 이건 도라지, 저건 만삼...》

늙은이는 책만큼씩한 종이봉투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으며 한참이나 약초이름을 꼽았다. 아마 새해부턴 왓새촌에서 약초들을 가꾸려는 모양이다.

창무는 문득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 사실 이곳 왓새촌 뒤산을 약초동산으로 꾸리자고 처음 발기한 사람은 창무였다. 창무가 약초동산을 꾸리자고 했을 때 8 선녀할머니는 채머리를 저으며 손사래까지 쳤다.

《난 배꼽이 떨어져 머리가 희도록 아직 고별 한번 안왔았네.》

콜록거리는 외손자를 데리고 리병원에 왔던 8 선녀할머니는 창무가 기침약을 내어주며 오미자와 도라지로 만든 약이라고 하자 꾸념하듯 말했다.

《약초산을 꾸리면 좋은줄 누가 모르나. 그 술한 종자를 어디서 얻겠나.》

사실 그랬다. 약초종자를 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애써 종자들을 구해놓으니 누구한테도

약초를 가꿔본 경험은 없었다.

고생스럽게 뿌린 종자들은 반의 반도 싹트지 못했고 돌아난것마저 거두기 조련치 않았다. 리병원 준위인 창무에겐 약초농사보다도 급하게 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새라새로운 파업은 수없이 제기됐다.

《이젠 할수 없다. 숨이나 좀 돌리고 보자.》

그리하여 창무는 약초동산문제를 오늘까지 미루어오게 됐고 그러다 이번에 이곳 리병원을 떠나게 된것이다.

《들어오지 않고 왜 밖에 서만있나?》

8 선녀할머니는 약초종자봉투들을 치우고나서 창무를 독촉했다.

《할머니, 그만 쉬었으면 갈래요.》

《날이 어두웠는데 가긴 어딜 가? 우리 집에서 하루 자구 가지.》

《할머니, 난 저수지공사장에 가는 길이에요.》

《아니 우리 리를 떠나가나?》

《공사 끝나면 오게 되겠지요.》

《오래동안 오지 못할텐데 하루 묵어가게. 래일 아침 나한테 주사나 한대 놔주구...》

하루 묵어 밥 한끼 같이 먹자는 청은 거절하기 쉬우나 보건일군이 주사 놓아달라는 부탁을 모른다고 하긴 딱했다.

《어디 몸이 말썹해요?》

《다친 허리가 지근거려 요즘 주사를 맞기 시작했네. 이제 몇대만 맞으면 돼.》

리병원에 오지 않고 주사를 맞은걸 보면 강건너 돌격대작업장신세를 지는 모양이다. 왓새촌에서는 리병원까지 오기보다 강건너 돌격대작업장 진료소가 더 가깝다.

《할머니, 난 요 강건너 돌격대에서 일하게 됐다구요. 래일부터 나한테 와서 주사맞으시라요.》

창무는 하루 묵어 주사를 놓아주고 떠났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하는게 미안했다.

《아니, 그럼 진옥이랑 함께 일하나?》

8 선녀할머니는 방에서 나와 토방을 내리서며 반색한다.

창무는 늙은이가 아까 그렇게도 칭찬하던 처녀가 진옥이란 돌격대원이 아닐가 히는 생각이 번개쳤다.

《날 밝았을 때만 왔어두 진옥이랑 같이 가는건데...》

8 선녀할머니는 대문까지 따라나와 밤길을 가야

할 창무 일을 걱정했으나 창무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었다.

저녁때 진옥이란 처녀가 다녀갔으면 나루터에 사람이 있을것이었다. 아들네 집에 나들이갔던 사공아바이가 이제는 돌아온 모양이다.

《할머니, 편안히 계시라요.》

창무는 등에 진 배낭을 추슬러올리며 그리 길지는 않으니 따분하고 보람적었던 이곳에서의 지난 모든 생활과 작별하는 심정으로 급석 허리굽혀 인사를 했다.

× ×

어둠은 산밭을 서로 가깝게 접근시켜놓았다.

희끄무레한 하늘을 배경으로 수정천좌우에 줄느런히 뻗어간 산밭은 원근감이 무시되어 하나로 연결되어보이고 못별들이 건성드못한 하늘은 합지속같이 우묵한 골짜기우에 그 무슨 타원형의 천정처럼 었었다.

어둠때문에 더욱 비좁아진것 같은 골안에 물소리만 높아갔다. 어떻게 들으면 저 물소리는 어둡고 비좁은 골짜기를 벗어나 어서 넓은 바다로 가자고 강물이 서로 부추기는 소리 같기도 했다.

창무는 대자연개조의 벅찬 로동속에 꽃피날 자기의 미래를 앞당기는 심정으로 나루터를 향해 부지런히 걸었다. 창무는 준의라는 자기의 직업 자체에 불만을 느끼는것은 아니었다. 젊은 나이에 같은값이면 지금보다 좀 더 보람차고 값있는 일을 해보고싶었을뿐이었다. 애를 써도 별로 자리가 나지 않고 별로 빛도 없는 자질구레한 일들에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 창무는 거창한 일에 자기 청춘의 힘과 열정을 바치고싶었다. 그러던 차 창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산밑으로 강줄기를 돌리는 대자연개조사업이 자기네 고향에서 벌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년돌격대가 조직되고 각곳에서 청년들이 달려왔다. 작업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돌격대진료소들도 늘어나야 했다.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 취해질 때마다 온몸이 달아나던 창무는 이번이야 자기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숨이 턱에 닿아 나루터에 이르니 배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밤저녁의 강기슭엔 물소리만 소란했다.

창무는 무거운 배낭을 벗어놓을 생각도 못한채 어두운 강기슭에 서있었다.

맹랑한 일이었다. 오도가도 못하고 빈 나루터를 지키는 장승처럼 서있던 창무는 강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귀가 번쩍 트이었다. 큰 물고기가 뛰어오르는것 같기도 하고 널판자로 강물을 때리는것 같기도 한 철썹소리는 다시한번 들렸다.

창무는 급히 배낭을 벗어놓고 밤고기사냥을 나온 사람처럼 강기슭에 쭈그리고 앉았다. 두손바

닥에 소말거리는 모래알의 감촉을 느끼며 무릎까지 땅에 대고 강물을 바라보니 강복판에 떠있는 쪽배가 알리었다. 사공아바이가 오래간만에 밤고기사냥을 나온 모양이다. 창무는 두손을 오무려 나팔처럼 입에 대고 소리쳤다.

《아바이-》

목청을 다해 불렀으나 배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아바이- 나 창무예요, 창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강 좀 건네달라요.》

아무리 큰소리로 불려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공로인은 전혀 응대가 없다. 가는귀가 좀 먹은 로인이긴 하지만 이상했다.

창무는 엉치를 하늘로 들고 땅에 얼굴을 대다 싶이한채 강물을 다시 바라봤다. 분명 배는 기슭쪽으로 천천히 움직여오고있었다.

배는 무척 오래도 왔다. 한참만에야 배는 나루터에서 몇미터도 넘는 강아래쪽에 와서 닿았다.

《아바이, 오늘밤엔 약주 한잔 하신 모양이군요.》

갑자기 서툴어진 노젓는 솜씨를 빗대두고 희떠운 소리를 하며 배로 다가서던 창무는 놀랐다.

배에는 사공로인이 아니라 낯선 처녀가 노를 잡고 서있었다. 무척 탄력있어보이는 처녀의 몸가짐과 별빛어린 그의 눈에서는 경계하는 빛이 느껴졌다.

《이거 안됐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전 여기 리병원 준의입니다.》

창무는 처녀를 아바이라 고래고래 고향쳐 부르고 희떠운 소리까지 한결 사죄하듯 가볍게 머리를 숙여보이었다.

처녀는 배를 쥐고 선채 배에 오르라는 뜻으로 약간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철썹-철썹-

배는 물결을 헤가르며 어두운 강물우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처녀의 노젓는 솜씨는 서툴었다. 처녀는 안간힘을 썼으나 그 무엇에 비끄러매운것처럼 배는 앞으로 잘 나가지 못했다.

힘꼴 센 젊은 사람이 처녀의 섬약한 두팔신세를 지며 우두커니 앉아있다는것은 멧적은 노릇이었다. 배머리에 앉았던 창무는 일어나 처녀를 향해섰다.

《내가 좀 노를 저을가요?》

《미안해요.》

처녀는 공손히 창무에게 노를 넘겨주고나서 배머리를 등지고 앉았다.

창무가 노를 잡자 배는 비로소 제궤에 들어선듯 강물을 헤가르며 쭉쭉 앞으로 나갔다.

동산마루에 쪼각달이 떠올랐다.

달빛을 안고 배머리에 조용히 앉은 처녀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약간 창백해보이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가름한 얼굴에 안성맞춤하게 자리잡은 오희한 코, 썩 지력있어보이는 생기 도는 눈이며 이악한 성미를 말해주듯 꼭 다물린 입... 달빛의 조화 때문에 처녀의 생김생김은 아름답게 부각됐고 한창나이 젊음이 주는 싱그러움과 온몸의 탄력이 그 무슨 훈향처럼 풍기는 것이었다.

처녀의 몸가짐과 표정은 세련되고 의젓했다. 그한테서는 산골사람다운 푸수함보다 섬세하게 다듬어진 도시사람다운 체취가 느껴졌다.

노가 빠걱거리는 소리며 이따금씩 강물이 배전을 치는 철썹소리가 배우에 실린 침묵을 깨뜨렸다.

침묵은 오히려 웅색함을 더해줬다. 창무는 노를 저으며 처녀에게 물었다.

《강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답대신 처녀는 하얀 이를 내보이며 소리없이 웃었다.

《밤고기사냥을 했나요?》

물결위에 뛰어노는 달빛때문이랄지 처녀의 매력있는 웃음때문이랄지 저도모르게 마음이 들떠 창무는 통하듯 다시 물었다.

《이교장 처녀들은 밤고기사냥을 즐기는 모양이지요?》

재치있게 받아넘기는 처녀의 되물음에 창무는 대답이 궁해졌다.

《어데서나 밤고기사냥은 늙은이들이 즐기지요.》

《호호... 방금전에 절 아바이라 불렀으니 밤고기사냥을 했어야 어울릴번했구만요. 하지만 전 밤고기사냥대신 노젓는 연습을 좀 했어요.》

창무는 처녀가 뭇을 하는지, 사실을 말하는지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을수밖에 없었다.

《어두운 강에서 혼자 노젓는 연습을 했던말입니까.》

《시간이 생겼길래 혼자 배를 좀 타보았지요.》

처녀는 돌격대원 같지 않았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대원들치고 이런 때 노젓는 연습을 할 한가한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배타기를 즐기는 모양인데 여기 산골물은 보기와 다릅니다. 허리밖에 안치는 것 같아두 물살이 빠르구 강바닥이 미끄러워 빠지면 나오지 못하지요. 그리구 여기는 잔잔해두 조금만 내려가면 소용돌이치는 깊은 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차 잘못해 생겨날수 있는 불행을 위구하여 창무가 귀뜸하듯 해주는 말에 처녀는 웃었다.

《호호... 그러지 않아두 정말 죽을번했었어요. 한 열흘전에 노를 젓다 맥이 빠져 앉아 쉬는데 글썽 저쪽 기슭에서 시커먼게 헤엄쳐오는게 아니겠나요. 처음엔 무섭기만 하더니 막다른 지경에 이르니까 돌연 대답성이 생겨나더군요. 그래 전

지불을 켜지요. 불을 마주 비치면 앞을 못보고 방향을 잃게 되리라는 생각에말이에요. 그런데 전지불을 비치고 보니까 글썽 송아지같은 노루가 물위에 가슴까지 내어놓고 헤엄치는게 아니겠어요. 아마 어둠을 리용해 강을 건너가던 모양이에요. 노루가 달아나고 무서움이 가셔진뒤 보니까 노가 있어야지요. 배는 자꾸 통소쪽으로 떠내려가는데...》

처녀는 이곳에서 얼마 내려가있는 소의 이름까지 알고있었다. 통소는 명주실 한꾸리를 다 풀어도 끝이 닿지 않는다는 무서운 전설을 수없이 남긴 소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창무는 호기심에 노젓는것마저 잊었다.

《한참 손으로 노를 젓다보니 글썽 노가 배전에 붙어 있더군요.》

처녀는 박속 같은 이를 내보이며 웃었으나 창무는 그때 이 처녀가 몹시 혼났으리라는것을 알고도 남았다.

배는 어느덧 기슭에 닿았다.

처녀는 날쌔 동작으로 탄력있게 배에서 뛰어내리더니 자기의 자그마한 가방을 둘러챘다.

창무도 강기슭에 배를 매고나서 자기의 배낭을 걸머졌다.

처녀는 물흐르는 노를 들어 어깨에 둘러메더니 작별인사를 했다.

《바쁜 일로 가신다는데 안됐어요. 신세는 오히려 제가 졌군요.》

《정말 이거 안됐습니다. 난 아까 사공아바인줄 알구...》

창무는 처녀를 아바이라 부른게 못내 미안했다. 처녀는 새물새물 웃더니 가볍게 머리를 숙여보이고나서 사공로인네 집쪽으로 총총히 걸어갔다. (누구일가?)

꽤 친근한 인상이었지만 처음 보는 처녀였다. 이교장 처녀는 아닌것 같았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어두운 강에서 혼자 노젓는 연습을 하겠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물론 그 처녀가 심심풀이로 그러지 않았으리라는것만은 확실했다.

문득 8선녀할머니에게 주사를 놓아준다는 진옥이란 처녀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자 창무는 공연히 얼굴을 붉히었다. 자기를 빗대두고 처녀의 이야기를 하던 할머니의 그 은근스런 미소가 떠올랐기때문에 ...

창무는 발자국소리가 나는쪽으로 슬그머니 머리를 돌렸다. 자갈을 밟는 처녀의 발자국소리는 점점 멀어져갔다.

어둠속에 멀어가는 처녀를 바라보던 창무는 부질없는 호기심을 물리치듯 머리를 흔들고나서 돌격대작업장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 ×

《지금 있는 우리 대대 준의동무가 무척 기뻐할 겁니다. 범산저수지건설지구 건설자병원으로 소환했는데 선생님이 오시지 않아 아직 떠나지 못했지요. 오늘밤은 꼭 쉬구 래일 사업인계를 받으십시오.》

물굴건설돌격대 대장은 자기와 동갑인 창무를 짝듯이 선생님이라 대접하며 몇번씩 만류했지만 창무는 인사를 마치기 바쁘게 그를 따라 작업장으로 향했다.

얼마나 오고싶던 일터였던가. 물굴과 저수지, 수로들이 완성되면 쓸데없이 바다로 흘러가던 강물들이 산을 넘어 비탈진 산기슭 다락밭들까지 적시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의 모든 논과 밭은 억년 가물에도 끄떡 않고 해마다 만풍년의 난가리를 쌓아올리게 될것이다.

창무는 굴을 뚫어 산밑으로 물줄기를 돌리는 여기 들끓는 물굴공사장에서 어서 더운 땀을 흘리고싶었다. 이제부터는 자기도 더 크고 보람있는 일을 많이 할것 같았다.

물굴속을 걷는 창무는 두눈이 등그래졌다. 굴안은 홀륭했다. 이미 뚫어놓은 물굴은 높이가 길반이나 뚫고 암벽에 주련이 걸어놓은 전등들이 지하경도를 환히 밝히는데 도시의 밤거리를 걷는 것같은 기분이었다.

지심을 울리며 광차들이 막장에서 굴밖으로 뺄절나게 드나들었다. 창무는 불빛을 다양하게 반사하는 습기어린 천반과 벽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성큼성큼 걸었다.

막장이 가가와오자 착암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스레 고막을 두드려댔다. 끌리듯이 막장으로 다가간 창무는 기계들이 일하는 모습을 호기심있게 바라보았다. 막장에서는 버력신기가 한창이었다. 두대의 버력적재기가 경쟁이라도 하듯 번갈아 버력을 광차에 퍼담고있었다. 여기서는 자기가 땀흘려야 할 일이 별로 없는것 같았다. 창무는 돌격대원들과 인사를 하고나서 곧 자기가 할 일을 찾아냈다.

창무는 버력 담은 광차를 밀어내는 운반공들 틈에 끼어들었다.

창무가 한참 성수나서 버력광차를 미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붙렸다.

《동무!》

다급히 찾는 처녀의 목소리에 창무는 뒤로 돌아섰다. 인민군대군관들처럼 한쪽어깨에 가방을 메고 둥그런 안전모를 쓴 한 처녀가 서있었다.

《동무, 왜 안전모를 안썼나요?》

처녀의 말에는 첫마디부터 당돌하게 뺏고끓는 데가 있었다.

창무는 이때에야 자기 머리위에 안전모가 없다는걸 깨닫고 얼굴을 붉혔다. 조금전 막장에서 휴식하던 때 땀을 들이느라 모자를 벗었다가 습관

이 되지 않아 동발우에 올려놓은채 있었다.

《천반에서 돌이 떨어진다는가 넘어져 머리를 상하면 어쩔라나요?》

창무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처녀를 쳐다보며 멍적게 뒤통수를 긁적거렸다.

자기앞에 서있는 처녀는 아까 강에서 만났던 그 처녀였다.

지나가던 착암소대장이 다가와서야 창무는 웅색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내가 잘못했소. 오늘밤에 처음 일 나온 동문데 잘 보살피지 못해서...》

허우대 큰 착암소대장은 선생님의 학생처럼 공손하게 말했다.

《술가지를 한광차나 꺾어다줬는데 동무네 소대에선 아직 막장에 꽂지 않았어요.》

처녀의 말은 마디마디가 고추처럼 매웠다.

창무는 처녀의 손에 들려있는 술가지를 알아보았으나 왜 막장에 그것들을 꽂아야 하며 처녀는 무슨 권리로 착암소대장을 이렇게 닦아세우는지 알수 없었다.

《이거 오늘 단단히 풀 먹는데 이번 휴식시간에 모두 꽃겠소... 그러구 참, 동물 보니 할 말이 있소. 육은 먹었지만.》

《무슨 구실이겠지요.》

처녀의 목소리는 랭정했지만 어딘가 다정한 맛이 있었다. 착암소대장은 빙글거리며 또 말했다.

《글쎄 구실이라면 구실일수 있지요. 이 말을 하면 동무한테 용서받을 구실이 생길테니까 허허... 이번 쉬는 날에 우리 소대에서 육먹은 값을 단단히 한턱 내겠소. 어떻게? 도라지 150 키로면 되겠지요?》

《아니 도라지를요?! 종자를 구했어요?》

언제 새침하고 쌀쌀했더니싶게 처녀는 반색을 했다.

《구하지 않구, 100 그람을 얻었으니까 15,000 포기가 넘는단말이요. 한알에 10 그람씩 난다쳐두 150 키로가 아니요.》

창무는 그저 얼퍼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다.

착암소대장의 말에 처녀는 만족해 물러가면서도 휴식시간에 막장으로 다시 와보겠노라고 단단히 못박는것을 잊지 않았다.

착암소대장은 침묵우로 강동강동 걸어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창무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먼도같이지요?》

《뭘하는 동무입니까?》

창무는 꼭 알고싶어서라기보다 멍적음을 덜려고 이렇게 되물었다.

《우리 대대 진료소 준의인데 지금 이 시각은 원제 없는 로동안전원이지요.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털끝만한 양보도 없답니다.》

착암소대장의 말에서는 비난이 아니라 은근한

자랑이 울리었다.

점점 멀어져가는 처녀의 꿈무니에서는 흰 동그라미속에 빨간 적십자표식이 박힌 가방이 달쭙궁거리었다. 강에서는 부드럽고 유한 인상만을 주더니 동그런 안전모에 장화를 신고 작업장에 나타나 황소같은 착암소대장을 닦아세우고 돌아가는 지금의 그한테서는 웅골차고 맵짠 맛이 느껴졌다.

× ×

그가 바로 진옥이었다. 8 선녀할머니가 것처럼 칭찬하던 처녀였고 창무가 사업인계를 받아야 할 이곳 돌격대진료소 준의였다....

진옥은 무척 책임성 높고 깐깐한 처녀였다. 한두시간이면 되기도 남을 사업인계가 온 하루 걸리고 모자랐다. 진옥은 진료소의 약품과 의리기구들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관여해온 모든 것을 인계하려 들었다.

굴진소대 아무개는 기관지가 나쁜데 일할 때 마스크를 잘 끼지 않으며 공무소대 아무개는 관절염이 심하나 치료에 게으르다는 등 사람들의 건강상태는 물론 예방치료사업에서 참작해야 할 그들의 성격과 습성, 기질에 대해서까지 꼬치꼬치 말해주었고 그런가 하면 굴안공기를 더 맑게 하기 위해 솔가지를 꺾어다 꽂는 문제, 솔잎시럽과 영양제 공급문제 등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로동안전원의 사업범위권 후방일군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건 가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부족해 약초발 꾸리는 문제 등 몇가지는 래일 현지에서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낮에야 인계할수 있는것만 남아 진옥이가 숙소로 돌아가고 진료소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창무는 손님이 집주인을 내쫓고 들어앉은것 같아 송구스러웠다.

물굴건설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매 사람별로 되어있는 건강관리부, 이곳에 영원히 살기라도 할것처럼 알뜰히 꾸려진 진료소... 남다른 수고와 정성이 깃든 그의 지난 일차취를 더듬을수록 창무는 진옥의 왕성한 사업의욕과 불같은 열정, 그리고 말은바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었다.

진옥이가 범산건설지구병원에 소환된지는 보름이 지났다. 사업인계가 끝나면 즉시 떠나야 하면서도 작업장의 공기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는 그의 높은 책임성과 불같은 열정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창무는 진옥에게 마음 끝릴수록 그와 자기가 대비되면서 별로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이었다. 창무는 기쁘게 찾아온 새 일터에서 자기가 일도 시작하기전에 자신에 대한 불안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위구를 느끼게 될줄 정말 몰랐다.

다음날 이른아침 창무는 진옥을 따라 산으로 갔다. 진옥은 산기슭에 이미 조성한 약초밭들과

앞으로 꾸려야 할 약초동산의 전망계획을 현지에서 알려주려 점심까지 싸가지고 창무를 안내했다.

창무는 진옥을 따라 건설장 주변의 크고작은 골짜기와 산릉선을 모두 한바퀴 빙 돌아야 했다.

《여긴 만삼과 도라지를 심을 계획이었어요. 지금도 적지 않지만 조금만 더 심으면 훌륭한 만삼밭, 도라지밭이 될거예요. 이번 일요일에 착암소대동무들이 여기다 도라지종자를 뿌리기로 되어있어요. 백그람 종자를 구했으니까 천알무계를 여섯그람치면 만오천뿌리가 넘어요.》

진옥은 손수 그린 지도를 바위우에 퍼놓고 지도에 붉은 빛갈로 표시된 구역을 가리켜보이였다.

보위색의 돌격대복차림에 배낭을 지고 복잡한 등고선과 식물분포상태, 토양조건 등이 표시된 지도를 펼쳐든채 서있는 진옥은 돌격대진료소 준의라기보다 무슨 식물학자나 탐사대원을 연상시켰다.

창무는 자기가 건설장에 처음 도착하던 날 밤 작업장에서 착암소대장이 진옥에게 도라지 150키로로 한턱 내겠다고 하던 말이 지금에야 리해했다.

진옥은 자기의 약초동산 전망계획에 착암소대를 비롯한 많은 돌격대원들을 확고히 인입하고있었다. 그가 갖고있는 지도에는 소대별로 배정된 약초동산조성작업분담구역이 각가지 빛갈로 또렷이 표시되어있었다.

진옥은 건설장주변지형도에 여러가지 색갈과 각이한 모형으로 그려진 앞날의 약초밭들을 창무에게 알려주는 한편 룡선과 골짜기마다에서 눈에 띄우는 족족 약초뿌리며 그 종자들을 채집했다. 점심과만 들어있어 훌쩍하던 배낭은 오미자며 황기, 당귀를 비롯한 각가지 약초의 잎과 줄기, 뿌리, 열매들로 차갔고 그걸수록 그의 온몸에선 약초향기가 진하게 풍기였다.

창무는 오늘아침 자기가 빈몸으로 진옥을 따라나선게 후회됐다. 이렇게 약초까지 채집할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곳을 떠나야 할 진옥은 사업인계를 하면서 약초채집할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곳에서 일해야 할 자기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이제는 어찌는수없이 빈 몸으로 진옥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를 돕는 재간밖에 없었다.

《아이, 산천궁이에요.》

골짜기를 따라 앞에서 걸어가던 진옥이가 나무그늘속에서 미나리 비슷한 풀포기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진옥은 서둘러 배낭을 벗더니 봉투를 꺼냈다. 산천궁씨를 받으려고 진옥이가 퍼놓은 세멘트 포장지로 만든 커다란 봉투를 보자 자기가 와새촌을 떠나던 날 8 선녀할머니가 구들에 잔뜩 퍼놓았던 약초씨 봉투와 어찌면 그렇게도 똑같은 봉투일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창무는 와새촌

8 선녀할머니네 집에 있던 그 약초씨들도 진옥이가 가져다준것일거라는 생각이 번개쳤다.

두사람은 산천궁씨를 받아 더러는 그 자리에 뿌리고 더러는 채집했다. 약초들을 다루는 진옥의 솜씨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살진 산천궁뿌리를 열댓개나 캐고나서 진옥은 새로 발견했고 씨뿌린 산천궁 분포정형을 자기 지도에 기입했다.

그런후 두사람은 개울가에서 잠시 휴식했다.

《진옥동문 완전한 식물학자군요.》

창무는 개울가의 너덜바위에 걸터앉은채 약초들에 대한 진옥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을 표시했다.

진옥은 맑은 개울물에 손수건을 헤우며 대답대신 그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창무는 진옥에 대한 호기심을 금할수 없었다.

《고향이 어딥니까?》

《송림이예요.》

《철의 도시에서 살았는데 산에 나는 약초들을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호호... 뭐 아는데 있어요. 직업이 의사니까 약초에 대한 책들을 좀 보았을뿐이지요.》

《부모들이 의료부문에 계십니까?》

부모들이 동약제조부문에서 일하면 어려서 약초들을 배웠으리라는 생각에 창무는 이렇게 물었다.

《저의 아버지 주력보수사업소에서 일하구 저의 어머니는 양복점에서 일해요.》

부모들의 직업은 상상외였다.

어디선가 구성지게 장끼가 울었다. 꿩의 노래를 반주하듯 맑은 개울물소리가 산을 울린다. 단풍든 나무잎들이 한잎 두잎 개울물에 떨어져 빠른 물결을 타고 미끄러진다.

창무는 진옥을 사귄수록 그에 대해 알고싶은게 많아졌다.

《진옥동무는 단정정기에도 취미가 있나요?》

창무는 자기가 돌격대로 찾아오던 날 어두운 강기슭에서 그와 만나던 때를 생각하고 느닷없이 물었다.

촉기빠른 진옥은 창무의 말뜻을 인차 알아챘다.

《취미는요, 그저 배를 좀 타보았지요.》

《노트는 연습은 해서 뭘하게요?》

어두운 밤에 단순한 심심풀이로 혼자 배를 타며 노트는 연습을 하였을 진옥이가 아니었다.

《호호... 강을 건너다녀야겠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는 탈줄 모르지, 사공로인은 어디 갔지...사공로인이 아들네 집으로 나들이간 첫날은 할수없이 동무들 신세를 졌어요. 밤낮 남한테 신세만 질수는 없구...》

창무는 더 듣지 않아도 모든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진옥은 8 선녀할머니한테 왕진을 가고 와새촌에 약초동산을 꾸리려고 오가면서 노트는 연습을 했

으리라.

진옥을 도우려고 수정천에 따라가 그를 배로 건네주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돌격대원의 모습도 창무의 눈앞에 방불히 떠올랐다. 돌격대원들은 자기들에게 차례진 휴식의 많은 시간을 진옥을 위해 얼마나 바쳤을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잠시라도 더 많은 휴식이 차례지게 하려고 진옥이가 어두운 강에서 혼자 배를 탔으며 그러다 강에서 노루까지 만났었다는것을 알거나 하는지...

정말 진옥은 8 선녀할머니가 아들 반쪽이라도 있으면 머느리 삼겠다고 탐낼만한 처녀였다. 알고 사귀지 이틀밖에 안되는 자기 역시 마음이 끌릴진대 그와 함께 산밑으로 물길을 돌리려고 물굴건설의 첫삽을 떴고 한가마밥을 먹으며 오늘까지 일해온 사람들, 친누이같은 살뜰한 정을 항시 몸가짜이에 느끼며 치료를 받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말할나위 없을것이였다.

바람에 락엽이 날리였다. 땀이 식고보니 숲속랭기에 온몸이 오싹했다.

《가자요.》

진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배낭을 저한테 주십시오.》

창무는 진옥의 배낭을 자기가 돌려뒀다. 진옥은 사양치 않았다. 창무는 진옥의 안내를 받아오던 때와는 달리 불룩한 약초배낭을 멘채 앞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건설장으로 빨리 가려는 생각에 창무는 참나무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길을 잡았다.

아름드리 참나무밑을 지나는데 우수수 락엽이 날렸다. 바람에 락엽이 지는줄 알고 무심히 나무우를 올려다보던 창무는 머리칼이 곤두섰다. 높다란 참나무중턱에는 시커먼 곰이 올라앉아있었다.

곰은 가는귀가 먹은 짐승이여서 불시에 맞다들리기 쉽다더니 정말이였다.

온몸이 뻗뻗해져 진옥이쪽으로 고개를 돌린 창무는 그 역시 낮빛이 창백하게 질린것을 보았다. 그도 이미 곰을 발견한것이였다.

창무는 무작정 진옥의 손목을 잡아 나구채며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소리없이 달아난다는게 창무는 발을 잘못 짚어 와당탕 돌을 굴리며 앞으로 넘어졌다. 아픔을 느끼기에 앞서 창무는 본능적인 공포로 곰이 있는쪽을 바라봤다. 나무우에 올라앉아 겨울나이준비로 도토리를 따먹던 곰은 우직우직 나무껍을 소리를 내더니 쿵하고 땅으로 떨어져버렸다. 아마 그놈도 인기척에 놀란 모양이다. 우둔한 곰을 놀래우면 야단이다.

창무는 벌떡 땅우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쓰러질듯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진옥은 벌써 저만큼 앞에서 뛰어가고있었다. 허리치는 잡관목과 덤불을 헤치며 창무는 산아래쪽으로 정신없이 내달렸다. 한참 뛰다보니 진옥이기 보이지 않았다.

앞선줄 알았던 그는 뒤에 까마득히 떨어져있었다.

진옥이가 있는곳과 멀지 않은 숲에서 와삭와삭 소리가 나며 나무가지들이 흔들렸다. 꿈이었다. 진옥이와 꿈과의 거리는 선메러도 못했다.

《진옥동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오!》

창무는 소리치다 못해 배낭을 벗어놓은채 그한테로 달려갔다.

한참만에야 두사람은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건설장이 뻥히 바라보이는 골짜기어귀에서야 창무는 자기 등에 배낭이 없다는걸 깨달았다. 뒤떨어진 진옥을 도우려 배낭을 벗어놓았다가 잊어버린것이다. 어디가 터졌는지 손바닥엔 피가 말라붙고 바지가랑이는 한뼘이나 찢어져있었다.

《아이, 어쩌나...》

창백한 낮빛을 가시지 못한채 울상이 되어 중얼거리는 진옥을 보자 창무는 피로왔다. 흠어진 머리칼을 쓸어올리는 진옥의 손에는 꿈을 만나기 바로전에 캐서 들었던 천궁 한뿌리가 아직 들려있었다. 어디에 굶혔는지 험상스럽게 찢진 그의 손등에는 두툼게 피멍지가 남아있었다. 그러고보니 자기 손의 피는 진옥의 손에서 묻어난것이였다.

《그 꿈이 가져갔으면 어떻게 해요, 약초지도를...》

어처구니없는 말이었으나 창무는 도저히 웃을수 없었다. 진옥은 배낭이니 배낭속의 약초보다도 그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약초지도를 걱정하는 것이였다. 이미 조성해놓은 약초밭들과 앞으로 꾸려야 할 약초동산이 표시된 지도, 그 지도에 그려진 선 하나, 점 하나에는 얼마나 많은 사색과 수고가 깃들었을것인가. 창무는 진옥이라면 그 배낭을 자기처럼 잃어버리지 않았으리라는것을 알았다.

《진옥동무! 먼저 내려가보십시오! 내 배낭을 찾아가지고 갈게...》

창무는 어망결에 배낭을 벗어던진 자신의 잘못을 용서빌듯 말했다.

《아이 혼자 어떻게...》

진옥의 두눈에는 꿈을 만나던 그 순간에 어렸던 공포의 빛이 여전히 자리잡고있었다.

《꿈도 이제 놀라 달아났겠지요.》

《아이, 고마와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하얗게 질린 진옥의 얼굴에 한가닥 붉은 기운이 살아오는가싶었다. 땀에 젖어 흠어진 머리칼과 구겨진 옷자락... 차림차림은 초라하고 두눈에서는 공포의 빛이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으나 창무는 진옥이처럼 아름답고 용감한 처녀가 이 세상에 흔치 않을것 같이 생각되였다.

늦가을의 짧은 해는 어느덧 서산릉선을 타기 시작했다. 얼마후면 땅거미가 질것이였다. 어두워지기전에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창무는 진옥이와 함께라면 캄캄한 밤에도 밝은 길을 걸을수 있을것 같았다.

두사람은 꿈을 만났던곳을 향해 다시 골짜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 ×

진옥은 그에 떠나갔다. 잃었다 찾은 배낭속에서 꺼낸 소중한 자기의 약초지도까지 창무에게 넘겨주고 그는 자기의 새 일터로 갔다. 자기가 대신 가고 진옥이가 이곳 돌격대진료소에 남아있도록 하는게 어떠냐는 창무의 간곡한 설복과 쉬는 날 하루 휴식을 하고 천천히 떠나라는 착암소대원들의 권유를 마다하고 그는 자기의 돌격대배낭을 둘러멘채 바람결처럼 소리없이 사라졌다.

알못게도 비가 왔다. 가시애비 턱수염밑에서 그어간다는 가을비가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은 진종일 그칠줄 모른다.

진옥이가 한당대 살기라도 할것처럼 꾸려놓은 진료소처마끝에서는 비물 떨어지는 소리가 소란하게 울렸다. 수정천기슭에서 왕자갈을 주어다가 정성껏 돌레를 친 진료소주변의 꽃밭과 약초밭에서는 떨기떨기 피어난 마가울 국화가 비발속에서 웃었다.

진료소창가에 덩굴진 구기자줄기우에 떨어지는 비방울을 보자 창무는 불현듯 진옥이가 생각났다. 가는길에 비나 맞지 않았는지. 새 건설지구에서 처음으로 맞게 되는 늦가을 찬비내리는 이 저녁에 진옥은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것인가. 지금이 시각도 자기 발길이 닿는 모든곳에 약초동산을 꾸릴 꿈을 키우고있는것이 아닌지 ...

내리는 비와 함께 어둠이 소리없이 깃을 퍼기 시작했다.

새 초소에서 하루일을 끝내고 창가에 서있던 창무는 누군가 다급히 문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급한 환자라도 생기지 않았나 하는 불길한 생각에 다급히 문을 여니 찾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진옥이였다. 룝색비웃을 걸친채 진옥은 찬비를 맞으며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서있었다.

《아니, 진옥동무!》

창무는 오래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맞는 심정으로 반갑게 소리쳤다.

《글쎄 제 정신 봐요. 떠나기를 서두르다 글쎄 중요한걸 잊어버렸군요.》

진옥은 비웃 모자를 뒤로 젖힌채 어쭙게 웃었다. 슬잡고 까만 그의 머리는 이미 함초롬히 젖었다. 군데군데 흙탕물이 묻은 그의 비웃자락에선 구슬같은 비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벌써 범산지구까지 갔다오니까?》

《가다가 생각나서 돌아섰어요.》

진옥은 소리없이 서글피 웃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달라붙은 볼에 채인 보조개며 추위때문에 퍼래진 입술사이로 바라보이는 흰 이가 웬일인지 측은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자, 진옥동무! 어서 들어오십시오.》

창무는 이곳 진료소의 당당한 주인인 진옥을 밖에 그냥 세워두었다는 자책에 서둘러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아니 일없어요.》

진옥은 밖에 그냥 선채 가벼운 미소를 짓고 말

했다.

《저- 그만 부탁하려던것을 잊어버리고...》

《어서 말하십시오.》

《전번에 우리가 건는 나루가 있지 않아요. 거기서 강을 건너 상류로 얼마 가느라하면 왓새촌이 란데가 있어요.》

창무는 진옥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곳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아이 참, 그곳 리병원에서 일했지요. 저- 8선녀할머니라고...》

《예, 알고있습니다.》

창무는 뭔가 짊어는데가 있어 진옥의 얼굴을 찬찬히 마주보았다.

《제가 할머니한테 주사를 놓아주었어요. 이제 석대를 더 놔주어야 끝나요. 호오- 그만 덤비는 통에 잊었더랬어요.》

《예?! 그것때문에 가던 길을 되돌아섰단말지요?전화로 알려줘도 될걸 가지구.》

진옥은 그냥 미소를 지은채 말했다.

《그 할머니 참 좋은분이에요. 우리 돌격대원들에게 주라구 집에서 받은 닭알을 벌써 몇번이나 가져온지 몰라요. 그리구 왓새산을 약초동산으로 꾸리겠다고 얼마나 열성인지 몰라요. 우리야 건설이 끝나면 떠나겠지만 계속 이곳에 남아 우리가 꾸려놓은 약초동산을 가꾸고 거기서 약초들을 캐내야 할 사람들도 그분들이 아니나요.》

《진옥동무!》

창무는 무슨 말을 해야 알지 알수 없었다. 8선녀할머니가 허리때문에 주사를 맞는중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자신도 알고있었고 왓새촌 약초동산문제로 말하면 진옥이보다 먼저 자기가 받기했다 포기해버린것이 아닌가.

《정말 안됐어요. 떠나면서 부탁만 남겨...》

진옥은 자기가 못다하고 가는 일을 두고 오히려 미안해했다.

창무는 온몸의 피가 일시에 얼굴로 피어오르는 듯싶었다.

《진옥동무! 잘 알았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무는 더 말하고싶었으나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창무는 이 순간에야 자기가 지난날 왓새촌에 약초동산을 꾸릴수 없었던것이 무엇때문이었는가를 알수 있었다.

책임성있고 성실한 처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일이라하면 남이 수고를 알아주든말든 네일 내일 가림없이 뛰

어들어 자기의 열정을 고스란히 쏟아붓는 뜨거운 충성심, 창무는 자기에게 이것이 부족했음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8선녀할머니에게 놓아주어야 할 몇대의 주사를 두고 창무가 뉘우치는바는 실로 컸다.

《진옥동무, 어서 들어오십시오. 찬비 맞지 말구...》

창무는 앞에 서있는 진옥을 바라보면서 미안해하는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없어 그래요. 자동차가 강기슭에서 기다리고있어요.》

《아니, 그럼 이제 되돌아가겠단말입니까?》

창무는 떠나려는 진옥을 만류하려고 현관에서 나섰다.

《여기로 오다가 모래 심는 자동차를 만났어요. 우리 범산저수지건설장에 가는 차예요.》

모래채취장까지 가자고 해도 한참은 걸어야 한다. 갓 닭아놓은 공사용도로에 비까지 내리는 이 밤, 먼 범산건설지구에 가자면 차를 타도 쉬운 일은 아니다.

《웬만하면 하루 더 묵어 가지지요.》

《아니예요, 차에 배낭까지 맡기고 왔는걸요.》

더는 만류하지 말아야 했다.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다. 진옥이같이 자기가 무엇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무슨 설복이 필요하랴. 진옥에게는 진심으로 되는 축원과 열렬한 축복을 해주어야 했다.

내리는 비속에 진옥의 전지불은 점점 멀어져갔다. 어둠속에 비맞으며 소문없이 떠나가도 그가 남겨두고 가는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어진 자각, 그리고 자기 주위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무정신은 얼마나 값있고 빛나는 것인가.

귀중한 그 무엇을 잃는것 같은 허전함과 그를 마음껏 위해줄수 없는 아쉬운 마음으로 어둠속에서 진옥을 바래주며 서있던 창무는 왕진가방을 돌려메고 왓새촌으로 향했다.

기쁘게 떠났다가 자책속에 찾아가는 길, 창무는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진옥이가 가는 길과 방향이 다르지만 제각기 홀려내린 모든 강물이 바다의 한품속에 모이듯 변함없는 충성의 한길에서 그와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쉽없이 비가 왔다. 그는 어둠속에 비맞으며 주저없이 길을 걸었다. 전지불빛에 길에 고인 비물이 번쩍거리었다.

지경길

박사영

1

도랑에서는 시누런 황토물이 팔팔 넘쳐흐르는 데 길은 죽탕처럼 화락화락했다. 최덕준의 장화 굽에는 벌써 흙탕물이 어지럽게 튀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오히려 즐겁기라도 한듯 조금도 삼가는 빛이 없이 건정건정 걸음을 옮겨놓았다.

후리후리한 키에 딱 벌어진 가슴이며 둥그스름한 얼굴이며 어디라없이 너그럽고도 소탈해보이는 40 대의 중년사나이였다. 한달전에 7 반 반장으로 온 그는 지금 곧장 5 분조 토지정리현장인 해우지틀로 나가는 참이었다. 원래 7 반과 린접인 6 반에서 오래동안 반장으로 일하면서 농장적으로는 물론 군적으로도 한다하는 반장으로 소문을 낸 그는 7 반에 오자부터 벌써 일판을 크게 벌여놓았다.

우선 해우지틀 토지정리가 그랬다. 논들이 층하가 심하고 계다가 돌각담까지 많아서 지금까지는 누구도 토지정리를 하고 다른 논들처럼 번듯한 규격포전으로 만들 엄두를 못내던 포전이었다. 높은데서 낮은데로 수많은 토량을 운반해다 끌고 루 퍼는것도 문제지만 그 많은 돌각담들은 어떻게 한단말인가? 사실 통이 크고 결괐가 있다고 하던 최덕준이도 처음엔 난감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만약 그때 석준이가 적극 지지해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도 좀 더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을지 모른다.

석준이란 도소제지에 있는 큰 프락포르수리공장에서 오래동안 수리공으로 일하던 최덕준의 사촌동생이다. 그는 아직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농촌에 나가서 농촌의 기계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지원하여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는 최덕준이 반장으로 일하는 7 반 프락포르에서 책임운전수로 일하고있었다.

석준이는 농장에 온지 며칠 되지 않아서 곧 사람들속에서 《최박사》로 불리우게 되었다. 기계란 기계는 모르는것이 없고 그가 좀 주무르기만 하면 못쓰겠다고 파철더미에로 가져가려던것도 생뿔 돌아갔다.

그런 석준이가 적극 지지해나서자 대번에 최덕

준의 배포가 든든해지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과연 석준이는 그 이튿날부터 그의 믿음과 기대에 어그리지지 않게 일을 해제켰다. 몇밤을 자지 않고 농장수리반에 가서 푹푹딱 두들기고 용접을 하고하더니 자갈을 동시에 출수 있는 《만능개답정지기》를 창안해내었다. 그 기계가 어찌나 신통했던지 그때 시운전구경을 왔던 해원리 김오철반장까지 무릎을 철썩철썩 치면서 과연 바람개비같이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이라고 감탄해마지 않았었다...

따뜻한 봄별이 재글재글 내리쪼이였다.

거름더미에서는 김이 문문 피어올랐다. 봄비를 흠씬 먹은 토양은 땀가루처럼 차분차분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장화바닥에 들어붙어 커다란 《덧신》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는 길설 잔디밭에다 대고 《덧신》을 문대기고서 다시 걸었다.

탈곡장앞을 지나던 그는 저만치 앞에 프락포르 대가 서있는것을 보고 걸음을 채우쳤다.

적재함우에 비료가마니를 잔뜩 처실은 프락포르의 비물이 고인 움푹한 길웅덩이에 한쪽바퀴가 빠져있었는데 5 분조장 안복만이와 운전수가 바퀴 밑에다 절두목들과 쥔북데기를 밀어넣느라고 씨근덕거리고있었다.

《허허 사람두, 또 욕심을 부렸군.》

《반장동무니까? 비가 와와서, 제길 이거야 어디, 프락포르가 도무지 맥을 못쓴다니까...》

《그러기 욕심을 좀 작작 부리우.》

최덕준은 절두목을 섬겨주면서 가볍게 나무랐다. 복만은 바퀴밑에 절두목을 고이느라고 실한 몸을 잔뜩 꼬부리고 궁싯거리면서 대꾸를 안했다. 이윽고 프락포르의 절두목들과 쥔북데기를 물어 뜯으며 웅덩이속에서 간싯히 빠져나왔다. 복만이는 소매로 이마우에 묻은 진창물을 쓱쓱 씻어버리더니 운전칸으로 훌쩍 올라가버렸다. 그리고는 프락포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문으로 두리두리한 얼굴을 쓱 내밀고 벌쭉 웃으며 《수고했습니다.》하고 도로 쓱 들어가버린다.

(사람이 좀 덤비거든...)

최덕준이 병긋이 웃으며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고있는 프락포르를 바라보고있는데 키가 큰 3 분조장이 어데서인가 헐레벌떡거리며 달려나왔다.

그는 마치 계잡이라도 하던 모양으로 온몸에 진창투성이가 되어 서있는 최덕준이와 흙탕에 짓이겨져서 불품없이 된 절두목들을 바라보다가 《정말 엉터리라니까.》하고 투덜거렸다.

두사람은 절두목들을 꺼내고 웅덩이까지 메우고서야 허리를 폈다. 갑자기 3 분조장이 불부은 소리를 터뜨렸다.

《그렇지 않아두 내 좀 이야기를 하자던 참입니다. 복만동무는 옳지 않습니다. 제 분조만 알았지 남의 분조는 통 모르거던요. 아니 절두목도 가져다 썼으면 제 자리에 가져다놔야지...》

《됐소 됐소. 동무한텐 본위주의가 없나? 누구든지 자기한테 리기주의와 본위주의사상이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해야 돼.》

3 분조장은 무슨 말인가 대꾸를 할듯싶더니 꼭 참는듯 허리를 굽혀 절두목들을 한아름 걸어안고 꺼져부정해서 탈곡장쪽으로 걸어갔다.

(본위주의, 묵과할수 없는 문제지...)

최덕준은 깊은 생각의 나락속에 빠져들어갔다...

2

얼마후에 최덕준은 해원강다리위에 올라섰다. 여기에 올라서면 해우지틀과 해원벌이 한눈에 안겨온다. 해원벌은 얼마나 넓고넓은지 벌끝이 아스름하게 휘어들어 뽕안 운무속에 사라졌다. 곳곳에서 작업하는 트랙토르의 동음이 봄하늘에 가득 찼다. 벌가운데로는 이 다리와 련결된 그리 넓지 않은 신작로가 곧게 뻗어나갔다. 길 저쪽은 해원농장 포전이고 이쪽은 최덕준이가 반장으로 일하는 옥야농장 포전이다. 이 다리와 저 길을 지경으로 해서 두 농장이 갈라져있는것이다. 농장과 농장이 다를뿐아니라 군과 군도 달랐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 다리와 저 길을 걸어 별로 나가고 마을로 돌아오군한다. 이 다리와 저 길은 그들모두에게 있어서 다같이 정답고 귀중한 우리의것이었다.

이 다리와 이 길!

최덕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다양한 봄벌이 머리위에서 자글자글 내리쬐이고 멀리 가까이에서 트랙토르의 발동소리가 요란해서인지 이 길위에 올라서니 느닷없이 저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봄날과도 같은 추억, 유년시절의 온갖 애뜻하고도 뽕뽕한 추억이 소리없는 물결이 되어 가슴속으로 흘러든다. 여기 해원강기슭 7작업반은 최덕준의 태를 묻은 고장이고 어린 시절의 대부분이 흘러간 고향이었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의 어린시절이 그러한것처럼 최덕준의 어린시절도 현란한 칠

색무지개로 채색되어있었다. 저 건너편(해원리)마을은 상촌이라 부르고 이편(옥야리)마을은 하촌이라 불렀는데 두 마을 아이들의 승벽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돌싸움, 전투놀이, 씨름...겨울이면 두 동네아이들이 논두렁을 살살 기어넘어가선 이 길우에서 맞붙어 가지고 치열한 《육박전》을 벌리기도 했고 여름이면 해원강에서 미역을 감으며 물싸움을 벌리기가 일쑤였다.

그 어느 해 겨울, 이 길우에서 두 동네아이들의 씨름이 붙었는데 공교롭게도 최덕준이는 꼬맹이와 붙게 되었다. 그 애는 자기보다 목 한기장이나 작았고 몸집도 호리호리하고 약골로 생겼다. 처음엔 우습게 생각했었으나 막상 접어들고보니 보통 악돌이가 아니었다. 배지기를 떠서 땀다치려고 하면 허리를 새우처럼 착 꼬부리고 안걸이를 거는데...나중엔 바짝 약이 오른 최덕준이는 젓먹은 힘까지 다 써서 꼬맹이를 모두걸이로 땀다쳐버리고말았다. 얼마나 세차게 땀다쳤던지 이마가 터졌다. 그때 최덕준은 왜 그런지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었다.

그 이튿날은 동무들과 함께 고약과 먹을것들을 구해가지고 상촌에 건너가서 사과하고 꼬맹이를 위로해주었다. 그후 최덕준은 그것이 인연으로 되어서 그 꼬맹이와 송아지동무로 친해졌다. 바로 그 꼬맹이가 저 건너 해원농장 지금의 김오철 반장이다. 어린시절은 물살처럼 빨리도 흘러가버렸다. 그후 최덕준은 성장하여 군대에 나갔고 제대되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농장이 다르니 김오철이와도 자주 만나게 되지가 않았다. 더구나 그것은 린접이긴 하지만 다른 군이었기때문에 그야말로 《지척이 천리》였던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7작업반 반장으로 와서 이 길우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했었다. 그리하여 두사람사이에는 어린 시절의 옛우정이 되살아난듯싶었다.

문득 최덕준은 앞에서 《안녕하세요.》하는 너자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깊은 추억에서 깨어났다. 연회색작업복바지위에 새빨간 나이론세타를 몸에 꼭 맞게 반쳐입은 처녀가 얇은 연두빛 머리수건을 뒤머수기로 살며시 내리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예예, 안녕하십니까.》

최덕준은 얼굴에 답례를 하고 일간간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서서 모자를 뒤통수에 삐딱하니 붙여쓴 새파란 친구와 함께 사뽀사뽀 걸어가고있는 처녀의 날씬한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전 날아갈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던 그 모습이 향기로운 향수내와도 같이 아직도 눈앞에 남아있는듯했다.

최덕준은 부지중 탄성을 질렀다. 더구나 한번 밖에 본 일이 없는, 그것도 달리는 트랙토르우에서 얼핏 본 일밖에 없는 그가 이처럼 상냥하고 부드럽게 알은체를 한다는것이 자못 신기스럽게

생각되었다.

그것은 석준이와 함께 읍에 가서 새 트랙포트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던 날에 있는 일이었다.

군소채지를 벗어나 한참 달리던 그들은 문득 한 20 여미터앞에서 하늘색트랙포트 한대가 기세 좋게 달려가고있는것을 발견했다. 순간 최덕준은 어린애와도 같은 승벽심이 동해서 석준의 옆구리를 슬쩍 건드리며 수군거렸다.

《해원농장 차구나! 팔귀라!》

석준이도 노상 흥미가 없지 않은듯 비죽이 한 번 웃더니 천천히 속도를 높였다. 앞차와의 거리는 잠간사이에 대여섯메터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속도를 높였다. 뒤차가 자기를 따라앞서려고 한다는것을 알아차린 모양이다.

석준은 다시한번 비죽이 웃고는 변속기를 넣었다. 드디어 앞차와 나란히 달리게 되었다. 그때 최덕준은 창문으로 운전수의 모습을 얼핏 들여다보았다. 연두빛머리수건을 땀시있게 쓴 아릿다운 처녀였다. 처녀는 하얀 장갑을 낀 자그마한 두손으로 조향륜을 꼭 틀어쥐었다. 연두빛수건의 질은 그늘이 어린 도도룩한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돌았다.

《처녀운전수구만요.》

갑자기 석준이가 모욕이라도 당한듯 얼굴이 벌개져서 중얼거렸다.

《왜 속도를 죽이냐? 엉? 고장이냐?》

한껏 긴장해있던 최덕준은 어느덧 자기들의 차를 뒤떨구고 저만치 앞서 달려나간 처녀의 차를 바라보며 어정쩡해서 물었다.

《안되겠습니까. 부속들에 무리가 가거든요.》

《부속들에 무리가 간다? 허허 그렇지. 처녀한테나 이겨서야 뭘하겠나. 사내대장부가...》

...이 순간 그 모든것들을 그려본 최덕준은 그 연두빛머리수건을 쓴 운전수야말로 얼마나 알뜰하고 이악한 처녀일까 하는 생각과 사내대장부로서의 긍지감과 자존심이 높은 석준의 그 처사가 참으로 훌륭하게 생각되는것이였다. 동시에 그는 관리위원회에서 왜 자기를 이곳 반장으로 보냈는지도 알려지는듯했다. 이곳은 다른 농장, 다른 군과 이마를 맞대고있는 접경지대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농장, 자기네 군의 망신을 시키지 말아야 할것이 아닌가? ...

부지중 두어깨가 무거워지는것을 느낀 최덕준은 천천히 해우지틀로 걸음을 옮겼다.

해우지틀은 벽작 뚫어번지고있었다.

봄바람에 펄펄 날리는 오색기발들, 《모두다 속도전 앞으로!》, 《알곡 880 만톤 고지점령으로!》 등의 힘찬 구호들, 트랙포트의 발동소리, 사람들의 웨침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

이쪽에서는 농장원들이 한줄로 늘어서서 논두렁을 짓고있었고 저쪽에서는 《만능개담정지기》를 단 트랙포트와 《풍년》호들이 논판을 가로세

로 달리며 돌각담을 허물기도 하고 산더미같은 시누런 흙무지를 끌고 낮은데다 메꾸기도 한다. 그렇게 몇번만 하고나면 돌각담도 맥을 못쓰고 어느새 머리가 잘리워나가고 중동이 문질러져서 논판에 주저앉아버리고마는것이다.

최덕준은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온몸이 등-떠오르는것 같았다.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을것만 같았다. 그는 가래질을 번개치듯 해대고있는 한 청년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며 《자, 내 좀 해보자구.》 하고 가래장부를 거머쥐자 가래날을 땅속에 깊숙이 들이박았다. 줄잡이군들이 끄들끄들 힘을 쓴다. 《자 이거 힘이 약하다. 좀 더, 더! ... 영차!...》 가래밥이 파도머리처럼 곤두서며 뒤번져진다...

한바탕 땀을 흘린 최덕준이 청년에게 다시 가래장부를 넘겨주고 잠시 숨을 틔우는데 키가 작달막하고 몸이 가는 웬 사람이 길을 건너 이쪽으로 걸어오고있는것이 보였다. 해원농장 김오철반장이다.

(저 친구 또 뭘하러 오누? ...)

김오철은 쩡쩡한 목소리로 떠들썩 고아대며 다가왔다.

《하, 수고들 하누만.》

《수곤 무슨 수고, 그런데 어떻게 왔나?》

《지나가다 들렸지. 하 성수들이 났구만. 막 다 그쳐대는데.》

김오철은 오금을 꺾고 논두렁우에 쭈크리고앉더니 주머니에서 담배팩을 꺼내 한대를 최덕준에게 권하고 저도 붙여물었다. 눈을 치뜰 때면 오른쪽 이마우에 난 손톱만한 흠집이 가는 주름살들이 생기면서 더 두드러지군한다.

《그래 용문 뭘가?》

김오철이 내댄 성냥불에 담배를 붙여문 최덕준이 옆에 쭈크리고앉으며 웃었다.

《용문 또 무슨 용무야, 그저 왔지.》

김오철은 담배를 한모금 깊숙이 들이빨더니 후- 하고 연기를 내보내며 가늘게 쪼프린 눈으로 저 앞에서 드세게 달리고있는 석준의 트랙포트를 바라보았다.

《자넨 행운아야.》

이윽고 김오철이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데서 저런 복동이가 굴러들었는가말야. 저것보지, 일숨씨를. 정말 <박사>라니까...》

《왜 자넨 불운인가?》

《나!...》

《자네네 운전수두 우리 석준이 찢쳐먹겠던데, 알뜰하구 아마 이악하긴 우리 석준이 열배는 더 할거야.》

《왜 우리 농장하구 사둔 땃고싶으냐?》

김오철은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듯 뻘뻘 쳐다보며 웃지도 않고 물었다.

《사둔? 흥 물매미같은 우리 농장 체네들두 뜨

르르한데 귀신이 물어갔다구 남의 농장 체네까지 모셔오겠나.》

《헐, 우리 농장 체네들 이젠 다 체네루 늙겠다.》

김오철이 등을 돌려대고 앉으며 통탄할 일이라는 듯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기죽거리자 최덕준은 《김오철이네 농장체네들과 혼인했겠다는데가 있어봐라 점심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지 않나.》하고 심청 비뚤어진 소릴 했다.

《예끼, 교약한 사람...》 -

그러자 두사람은 와하하 하고 벌이 떠나가게 웃어댔다. 등뒤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웃었다. 웃느라고 눈물까지 찔끔 나온 김오철은 손등으로 그것을 닦으며 《안야, 자넌 정말 행운아야.》하고 정색해서 말하더니 불시에

《그럼 난 가보겠네.》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 ...)

너무나 급작스런 그의 행동에 최덕준은 사뭇 의아해서 서있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의례 그 유난히 짹짹한 목소리로 온 벌이 짜하니 떠들어대다가 갔을텐데 오늘은 별스레 정색해서 석준이를 취율리기도 하고 《행운아》니 뭐니 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얼마후였다.

최덕준이 농장원들과 함께 논둑을 짓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해원농장의 그 몸매 날씬한 처녀가 가벼운 걸음걸이로 사뽀사뽀 작업장으로 다가오고있었다.

(자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긴 있다...)

최덕준은 걸싸게 삽질을 하면서 자기에게로 곧바로 다가오고있는 처녀를 못본척했다.

《안녕하세요? 반장동지.》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 맑고 부드러운, 그 특색있는 목소리로 처녀는 인사말을 건네며 것처럼 얇은 머리수건을 뒤더듬기로 살며시 내리면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체네동무.》

최덕준은 그때에야 허리를 펴면서 서글서글 웃으며 답례를 했다.

처녀는 마치 그 무슨 소중한 청원이라도 들이려는 사람처럼 모두어썩 두주먹을 가슴우에 가져다대고 까만눈에 간절한 빛을 띠고 최덕준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반장동지...아이, 석준동무를 좀 만날수 없어요?》

《있지요. 체네가 총각을 만나는건데...》

《아이 반장동지두...》

처녀는 대번에 얼굴이 빨개져 물들어서 곱게 눈을 치떴다가 아래로 내리깔았다.

《허허, 어서 가보우.》

처녀는 종종걸음쳐 저쪽으로 갔다.

농장원들은 괜히 성수들이 나서 《어여차, 어

여차.》하고 가래줄을 당기기도 하고 《자-또 한 삽 넘어간다-》하고 삽자루가 부러지게 흙을 퍼 담아선 두렁에다 칠썩칠썩 불이기도 한다.

최덕준은 공연히 넘적한 틱을 술술 어루만졌다. 이거 정말 행운이 저절로 문턱을 술술 넘어 굴러들어오는게 아닌가?

저쪽 논두렁에 가닿은 처녀는 걸음을 멈추고 입에다 손나팔을 해대더니 개답정지기를 끌고 달리고있는 트랙토르에다 대고 《석준동무-》하고 쟁쟁한 목소리로 소리쳐 불렀다. 그리고는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든다. 처녀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의 흔드는 손을 보았는지 트랙토르가 천천히 머리를 돌려 처녀의 앞으로 움직여온다. 이윽고 논두렁옆으로 다가온 트랙토르는 발동소리를 죽이더니 운전칸에서 석준이가 훌쩍 뛰어내린다. 두사람은 다정히 악수를 한다. 처녀는 무엇인가 속삭이고있고 석준이는 그옆에 머리를 수굿하고 서서 듣고있다.

(아니, 벌써 저렇게 됐었는가? 그녀석이 나긴났다. 대낮에 저렇게 처녀가 남의 농장 지경을 넘어오지 않고는 못견디게 해놓은것을 보니...)

최덕준은 흐뭇해서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다시 삽질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때문인가 두 젊은이가 이쪽으로 걸어온다. 석준이가 앞장서고 그 처녀가 다소곳하고 뒤따라섰다.

최덕준의 가슴은 공연히 두근거렸다. 자, 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건가?

이윽고 두 젊은이는 그의 앞에 와 나란히 걸음을 멈추었다.

《저 형님... 아니 금옥동무가 이야길 하지? ...》

《아이참, 석준동무가 말씀올려요.》

(금옥이라- 저 얼굴 좀 붉어지는걸 보지. 노상 빨개지는군... 저 이름두 좋다...)

《원 동무두, 뭐 어려워할게 있소. 형님, 이 동무네 작업반에서 트랙토르 한대가 갑자기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 동무가 가서 여태까지 뜯어놓구 고치려구 애를 쓰다가 할수없이 저한테 왔답니다.》

《트랙토르가?》

《그래요.》

처녀의 두눈엔 간절한 그 무엇이 어려있었다.

최덕준은 담배연기를 푸- 하고 내뿜었다. 푸르스름한 연기는 서로 엉키고 흩어지고 부딪치면서 그의 눈앞에서 어지럽게 맴돌았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처녀의 앞이라 그는 《해라》로부터 좀 높이 존대했다.

《뭐 어떻게 있습니까. 도와주어야지요. 말을 들어보니 기관부분에 고장이 난것 같은데 그런걸 수리하자면 대체로 이동수리찰 불러야겠는데 그

차가 지금 다른 농장에 가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좀 고쳐주자구요.》

최덕준은 또 담배연기를 푸- 하고 내뿜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생각다못해...》

처녀가 또 주를 달았다.

《갔다오두룩 하계.》

최덕준은 담배불을 발로 비벼끄며 말했다.

《그럼 그동안 프락또르는 형님이 좀...》

《아이 정말...》

처녀는 갑자기 제가슴이라도 쥐여잡듯이 모두 어쩔 두주먹을 꼭 감싸안더니

《정말 미안해요.》 하는 것이었다.

《허허 괜찮소, 괜찮아.》

《그럼 반장동지 수고하시겠어요.》

《허허, 괜찮다니까.》

이번에는 처녀가 앞장서고 석준이가 뒤따랐다. 그들은 거의 반달음으로 달리고있었다. 처녀의 발걸음은 마치 무용수의 그것처럼 경쾌하고도 탄력이 있었다. 석준이는 뒤에 서서 처녀를 따라 성큼성큼 걷는다.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는 신작로우에 올라섰다. 처음엔 두개의 뚜렷한 물체로, 뒤이어 까만 점으로 작아지더니 몇초후엔 그것마저 푸르스름한 공간속으로 잦아들고말았다.

《아니 그쪽 농장에선 도대체 뭐야? 그렇게 두 기술자가 없나?》

《그러기말야. 렴치가 없지. 남은 이렇게 바빠죽겠다는데, 그러구 자기네 농장하구 우리 농장이 무슨 상관야.》

《여어 말두 말라구. 그 처녀한테 안되겠더라이.》

《동무들 무슨 소리들을 그렇게 하우? 도와줄수만 있다면 도와주어야지.》

최덕준이 듣다못해 점잖게 한마디 타일렀다.

《그렇구말구요. 그런데 우리 석준동무가 그 처녀한테 홀려서 넘어간것 같아 그러문다. 예. 하하.》

아까 우스개소리를 하던 그 청년이 이번엔 더 우습강스럼게 두눈을 깜쩍깜쩍하며 히물거린다.

프락또르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최덕준은 왜 그런지 머리가 무거웠다. 방금전 농장원들이 떠들어대던 소리가 어느것 하나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이 방대한 공사를 모내기전으로 끝내자면 한초가 새롭고 반공수의 로력이 새롭다. 오죽하면 고양이손이라도 빌리고싶다고 하겠는가?

최덕준은 운전칸으로 올라가려고 한발을 발디디개여 올려놓다가 부지중 굳어져버렸다. 이제야 모든것이 험등해지는것 같았다. 글썽 그 친구가 어쩐지 수상타했지...

(아무래도 내 앞에서 앓는 소리를 하기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던 모양이지... 엉큼한 친구라니까. 아릿다운 처녀를 슬쩍 <외교특사>로 파견해놓고...)

일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코 웃을 일만이 아닌것 같았다. 그 《우스개청년》이 《홀려서》넘어간것 같다고 한 소리가 머리속에 어두운 음영을 던진다. 사실 잘되자면 그 반대로 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

최덕준은 운전칸으로 올라가 앉자 발동을 걸었다.

프락또르는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도 지나가고 오후가 되었다.

틀령! 기나긴 하루해도 어느덧 해원산너머로 떨어져버리고 하늘에는 저녁노을이 곱게 어리گی 시작했다.

어두워졌다.

석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흠, 문젠 문제군...)

3

최덕준은 작업반선전실 마당가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다. 풀벌레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래 마을앞을 흘러내린 해원강이 흰띠처럼 길게 누워있었다. 그리고 그 옷권 어둠속에서도 하늘의 별들이 그대로 내려앉은듯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거린다. 해원농장 김오철이 네가 살고있는 상촌이다. 그것은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던지 팔을 뻗치면 손에 닿을것 같고 소리치면 화답이라도 해울것 같았다.

(이너석이 정말 거기 빠진게 아닌가? 기관을 뜯어놓고 대수리를 하지 않은 다음에야 벌써 끝나고도 남았겠는데 ...)

최덕준은 벌써 그들의 관계가 보통은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가지고서야 어떻게 생판 남의 농장 처녀가 남의 농장 총각을 그렇게 스스럼없이 작업도중에 불러낼수 있으며 또 석준이는 처녀의 몇마디 말에 제가 하던 일도 집어치우고 훌쩍 가버릴수 있단말인가?

최덕준은 자기가 수수방관하고 앉아만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란 언제든지 한번은 꼭 시집장가를 가기마련이고 또 때가 있는 법이다. 괜히 어물어물해서 좋을것이란 하나도 없다. 젊은이들이란 사랑에 빠지면 분별을 잃을수도 있지 않은가? ...

아래전에서 인기척이 났다. 뒤이어 희끄무레한 어둠속에서 거뭇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더니 이쪽으로 올라왔다.

《석준이나?》

《예.》

《시장하겠구나. 어서 들어가자.》

최덕준은 불시에 반가움이 앞서서 석준의 팔을

끌고 선전실안으로 들어갔다.

둘이는 앞은뱅이책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앉았다. 이렇게 앉고보니 룡척장신이라고 하는 최덕준이보다도 석준이의 앉은 키가 더 크다. 사촌간이라고는 하지만 신통히도 비슷하게 생겨서 꼭 친형제가 마주앉은것 같았다.

최덕준은 흐뭇한 미소를 띠우며 사내답게 시원하게 생긴 두눈이며 젊은 이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나?》

《사실 프락포르수리는 저물기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미소모타를 또 봐달라는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지요.》

《정미소모타를? ...》

《예.》

《흠, 그랬었구나.》

최덕준은 좀 씩씩해진 어조로 중얼거렸다. 쓸개빠진너석, 제 프락포르는 바빠서 눈고뜰새없는 형한테 맡겨놓고 남의 농장에 가서 처녀의 장단에 춤을 춰? 예끼, 하는 소리가 목구멍에까지 올라왔으나 꼭 눌러참았다. 괜히 굶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좌우간 수고 많았다.》

잠시 침묵.

《석준아.》

《예?》

《저 허, 거 해원농장 그 체네 있지 않니? 그 왜 금옥동무말이다.》

《예.》

《체네가 참 알뜰하더구나. 굶구, 네 생각엔 어떠냐?》

《어떻긴 뭐가 어때요. 형님은 별걸 다 묻습니다.》

석준의 얼굴은 대번에 수수떡처럼 빨개졌다.

《맘에 있는 모양이구나.》

《참 형님두...》

(흠, 그러니 벌써 그러구 그렇게 됐어요 하는 소린가? 너석, 아무렴 내 눈을 속일수야 없지...)

이때 손기척소리도 없이 살며시 문이 열리더니 축산반 상고머리청년이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잠시 주뿔거리다가 《저 석준동무를 좀 만날려구...》 하고 어쭈게 중얼거렸다.

《왜 무슨 일이 있었소?》

얼굴이 불그레해서 앉아있던 석준은 좋은 기회나 만난듯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렇게 물었다.

《아무래두 그 자동이송장치가 딸생입니다.》

《중소. 함께 가보지요.》

최덕준은 방바닥에 벗어놓았던 모자를 집어들

며 급히 걸어나가는 석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무지 피곤이라는것을 모르는 녀석이군. 자동이송장치라- 그러니 축산반에두 어느틈에 손을 뻗쳤단말인가?)

땡! 하고 벽시계가 12 시를 가리켰다.

최덕준은 천천히 방안을 거닐었다. 왜 그런지 마음이 가볍질 못하고 무겁다. 방안도 별로 어수선하고 헹헹그레해진것 같았다...

머칠이 지나갔다. 밤이었다. 최덕준은 옆구리에 큼직한 종이꾸레미를 끼고 생각에 잠겨 지경길을 걷고있었다. 해우지틀로 나가는 길이다. 그는 요즘 이 길을 걸을 때면 이상한 환영에 시달리곤했다. 그것은 이 지경길을 경계선으로 해서 한쪽은 록색주단을 편듯 파란 벼포기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데 다른 한쪽에선 거무레테한 흙무지들우로 음산한 바람만이 불어대는듯한 그것이다. 아무리 그 환영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으나 쓸데 없었다. 파란 벼포기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 해우지틀에서 이제야 겨우 한켠 귀퉁이가 파르스름해가는 저 건너편 전야를 바라보기전에는 그 환영에서 벗어나날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논같이에 프락포르 한대를 더 들이밀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최덕준의 제의를 들은 관리위원장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농장에서선 더 줄것이 없으니 작업반에서 조절해보도록 하라는것이 아닌가? 최덕준은 갑자기 앞이 확 막히는것 같았다. 지금 모든 일이 치차처럼 맞물고 돌아가는판에 어느 분조장이 순순히 잠간이나마 프락포르 한대를 내놓겠다고 하겠는가? 도무지 궁리가 나지 않는 그는 석준이와 상론해보고싶어 이렇게 나선것이다.

해우지틀 토지정리현장에 당도한 최덕준은 별로 사위가 귀족은듯 교묘한데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헤판데를 오지 않았나? 아니 분명 자기는 자기네 포전 논두렁우에 서있었다. 바로 저 앞 희끄무레한 어둠속에는 거묵한 물체(프락포르)가 묵묵히 서있다. 혹시 이 사람이 잠든게 아닌가? 최덕준은 살금살금 다가갔다. 《석준아.》 나직이 불렀다. 정적. 이번엔 좀 더 크게 불렀다. 역시 정적...

(허, 잠이 들었어두 아주 뽕아떨어졌군...)

최덕준은 발디디개를 딛고 운전칸으로 머리를 쏙 디밀었다. 텅 비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리에 랭기가 산듯하게 앉은것으로 보아 내린지 퍼그나 오래된 모양이었다. 최덕준은 아직도 따끈따끈한 온기가 느껴지는 고무꾸레미를 한쪽 옆자리에 올려놓고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어떻게 된 일인가? 두리를 휘둘러보던 그의 눈길은 문득 한곳에 가서 못박혔다.

깜깜한 밤 산중의 외로운 등불마냥 저기 길 건너편 포전에서 한점의 불꽃이 깜박거리고있다. 최덕준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불꽃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것을 암시해주는것 같았다. 어서 오라 손저어부르는듯 그 불꽃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가, 못견디게 못견디게 심장을 불태우는 불꽃!...

그 어떤 충동에 최덕준은 저도 모르게 격렬한 걸음걸이로 두령길을 거쳐 신작로우에 올라갔다. 자국자국을 옮길 때마다 그는 어둠속에서 프락토르를 멈춰세우고 저 불꽃의 유혹을 못이겨 이 두령길로 해서 신작로를 넘어간 석준이의 발자취를 생생히 들여다보는듯했다. 그러나 그는 신작로를 넘어가지는 않고 잠시동안 멍하니 서있다가 해원농장쪽 길설에 오금을 꺾고 쭉크리고있었다. 사위는 끝없이 고요한데 불시에 애수와도 같은 서글픔이 온몸을 휩싼다.

(그 처녀가 우리 석준이를 홀려갔어...)

무쇠처럼 든든하고 바위처럼 믿음직해보이던 그녀석의 심장도 저 연두빛나이론수건을 쓴 처녀 앞에서는 어쩔수 없었지, 없었어!...

최덕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아까울 때와 같은 그 격렬한 걸음걸이로 프락토르 곁으로 돌아왔다. 운전칸에 올라 조향륜을 두손으로 꼭 틀어잡고 앉은 그는 고개를 들어 잠시 눈앞에 펼쳐진 막막한 어둠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젠 그 깜박거리는 불꽃이 절벽우에서 바라보았을 때처럼 눈아래 있었다. 마치 그를 비웃듯 은근히 미소하며 굴러주기라도 하는듯싶다. 최덕준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시동을 걸었다. 프락토르는 성난 말이 쟁충 뛰여 오르며 오호 흥! 하고 표효성을 지르듯 몸을 떨며 드세게 탕탕거렸다.

(저녀석도 이 발동소리를 듣겠지...)

최덕준은 입을 꼭 다물며 변속기아를 넣었다.

프락토르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5분, 10분, 15분!...

드디어 비질하며 나가는 전조등 불광앞에 키가 후리후리한 한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몹시 숨가빠 달려온듯 걸음을 멈추고 어깨숨을 몰아쉬는듯했다.

최덕준은 그것을 못본척하고 그의 옆을 지나쳤다. 순간 대지에는 프락토르의 동음만이 가득차지는것 같으면서 귀가 멍멍해왔고 침묵의 나락속으로 끝없이 날아떨어지는듯 그렇게 고요해진듯

도 했다.

언뜻! ...

한바퀴 돌아왔을 때, 환하게 내비치는 전조등 앞에 그 키가 후리후리한 사람이 한손을 높이 쳐드는것이 보였다. 동시에 《형님-》 하는 웨침소리가 그 요란한 프락토르의 동음을 뚫고 날카로운 비수마냥 고막에 날아와 박혔다.

최덕준은 입과 배와 두팔에 지그시 힘을 주자 또다시 그 앞을 지나쳤다. 순간 불빛속에 드러났던 그림자는 캄캄한 어둠속에 묻혀버리고 프락토르는 파도가 심한 바다우를 달리는듯 숨가쁘게 드물었다. 최덕준은 갑자기 목안이 들이마르고 입술이 바작바작 타들어가는것 같았다. 그럴수록 그는 바싹 마른 혀끝으로 입술을 추기고 온몸에 힘을 주었다.

다시 한바퀴!...

마치 한세기나 걸려서인듯 또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뺨결게 비치는 전조등 불광속에 두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떨군 석준이가 모든것을 운명에 맡겨버리고만듯한 자세로 온몸이 휘줄근해서 서있었다.

최덕준은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그의 옆으로 프락토르를 몰아오자 발동을 끄고 운전칸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이무 말없이 묵묵히 머리를 쳐들고 논두렁을 향해서 걸어나갔다. 침묵은 수백마디의 항변, 질책, 추궁을 대신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형님!...》

최덕준은 보이지 않는 우악스러운 손한테 덤미를 잡히우기라도 한듯 흠칫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돌아설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버릴것인가...그러나 왜 그런지 선뜻 가버릴수가 없었다. 돌아섰다.

석준은 프락토르 앞머리에 가슴과 배허벅을 대고 서서 다가오는 최덕준을 똑바로 바라보고있었다. 두사람의 시선이 어둠속에서 번개를 일으켰다. 일순 최덕준은 그 시선을 피하며 차체에 한쪽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고 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의 숨소리가 들리리만큼 가까이 서있게 되었다.

석준은 몸을 돌려 어딘가 먼 어둠속공간을 점도록 응시하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형님.》

왜 그런지 그의 목소리는 갈린듯하고 쓸쓸하게 울렸다.

《형님은 뭔가 오해하고있는것 같습니다.》

《... ...》

《저는 저 건너편 프락포르가 고장난것을 알고는 도와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 … …》

《또 그건 제 량심이, 당원의 량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 … …》

《저한테 기술이 없다면 몰라두, 그래두 저한테 많으나적으나 오래동안 로동계급속에서 배운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술을 두었다가 무엇에 쓰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 기술이 필요한것이겠습니까!》

침묵, 침묵…

《오해를 하고있었는지도 모르지…지금까진 너를 잘 몰랐는지도 모르고…》

《… … …》

《물론 좋지. 남을 도와준다는것은! 그러나 우린 아직 자기가 할 일을 못했지. 이제 토지정리를 제때에 못하여 모내기가 늦어지고 가을에 가서 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지겠니?…》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가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념, 빠듯하게라든가, 겨우라든가 하는 따위 관념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기일을 앞당긴다는, 초과완수한다는 신념에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만하자…》

최덕준은 차체에 기대었던 몸을 일으켜 어둠속으로 걸어갔다. 몸을 돌린 석준은 굳어져버린듯 까딱안하고 서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조용히 헤어졌다. 몇마디 말을 나누는 때조차 어성을 높이지도 않았으며 또 연극배우들이 마치 독백이라도 하듯이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어둠만을 응시하고 속삭이듯했기때문에 너무나 평범한 일상사를 교환하기라도 한듯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말들과 침묵속에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감정과 사상들이 부딪치고 교차된다는것을 알았다…

걸음을 옮기는 최덕준은 랭정하고 침착하려 애썼다. 고혈압이 올랐는지 덜미가 뻗뻗해오고 뒤틱이 뻗었다. 집에 돌아왔으나 온밤 잠들지 못했다…

4

《복만동무, 아무래두 5분조의 프락포르를 당분간 2분조에 돌려야 하겠소.》

최덕준은 석양녘의 락조에 온통 불그레하게 물든 들판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강쪽에는 무늬를 놓은듯 노랑고 빨강고 한 갖가지 꽃들이 다문다문 피었다. 봄의 그윽한 정취를 한껏 돋구며 장단맞게 울려퍼지던 빨래방망이질소리가 몇자 주위에는 이상하리만큼 정적이 깃들었다.

복만이는 최덕준의 말이 불만인듯이 시뻘두두해서 걸음을 옮기며 투정질하듯 대꾸했다.

《글쎄 저두 자꾸 그러면 립장이 딱하지 않습니까. 왜 반장동문 2분조에 대해서만 관심이 높구 우리 분조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단말입니다.》

《아니 동무한테는 얼마나 이야길 해야 알아듣겠소?》

최덕준의 목소리는 저도모르게 높아졌다.

《그리구 그 우리 분조 우리 분조하는 소리 좀 그만두오. 바로 그게 분조본위주의란말이요.》

《좋수다. 정 그렇다면 하라는데로 하지요. 그렇지만 그 후과에 대해선 나두 책임지지 못하겠수다.》

복만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쩍 가버렸다.

《음.》 머리끝까지 울기가 치민 최덕준은 아래 입술을 짹 앓다물며 밀밭 저쪽으로 멀어져가고있는 복만이를 쏘아보고있다가 머리를 떨구고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가슴이 막막해왔다. 사람들이 왜 모두 그 모양으로 왜가는지 알수 없었다. 몇몇 분조장들은 작업반의 전반적인 리익의 견지에 서는것이 아니라 목전의 제 분조의 리익을 위해서만 신경을 쓰고 조급해하는것이다. 제 분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업살을 부리고 죽는 소리를 하는것은 물론 심한 경우엔 거짓말까지 하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언젠가 비료가마니를 싣고가다가 웅덩이에 빠진 프락포르를 꺼내기 위하여 바퀴밀에 절두목과 짚북대기를 가져다 밀어넣고도 천연스럽게 달아나버리던 복만이를 두고 분개하던 3분조장의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마쳐왔다. 과연 그것이 자기 분조의것이라면 그런 태도를 취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목과하지 말았어야 했을 엄중한것이였었다. 그런데 왜 자기는 그때 그것을 신히로 분조장들의 머리속에 자리잡은 그 본위주의의 울타리를 쳐엎애지 못했던가? 이제 와선 자기 자신이 그 울타리속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최덕준은 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아득히 펼쳐진 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신작로 저쪽에 펼쳐진 해원농장포전은 벌써 논갈이를 말끔히 끝내고 한쪽에서는 물을 대기 시작했다. 물은 마치 뿔뿔을 야금야금 먹어들어가는 누에처럼 포전을 먹어들어간다. 조만간 첫 모내기를 시작하려는가보다. 그쪽에선 풍물을 울리며 흥겨이 모내기를 할 때

자기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논밭이를 하고있는
광경이 보이는것만 같다. 그때 저 길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 과연 그들은 뭐라고 할까?...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고 울적해진 그는 다시
휘적휘적 걸음을 옮겼다. 맑은 물이 소리없이 흐
르는 강가 빨래터에선 연두빛머리수건을 쓴 그
처녀가 빨래를 물에 담그고 수심어린 얼굴로 앉
아있었다. 얼핏 지나치려고 하던 최덕준은 처녀
의 손에서 빨래가 빠져나오는것을 보고 아래로
내려갔다.

《체네동무, 수골 합니다.》

《아이 깜짝이야 !...전 누군가 했어요...》

처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티없이 웃었다.

《무슨 공상을 그렇게 하오? 그러다가 빨래가
다 떠내려가도 모르겠소.》

최덕준은 빨래를 건져주고 그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처녀는 그저 쓸쓸하게 웃더니 쭈르륵 소리가
나는 빨래를 두손으로 주무르며 시름겹게 앉아있
었다.

(이 체네가 정말 석준이한테 반한게 아닐까?
나더러 오해를 한것 같다고 했지 ? 혹시 서로 좋
아하다가 실연을 당한것이나 아닐까? 자존심이
강한 녀석이니 나의 오해 같은것을 더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랬는지 모르지 ...)

그러자 최덕준은 어쩐지 처녀가 측은하게 생각
되었다. 그래서 그는 기분을 돌려세울 양으로

《핑계핑계 도라지핑계라고 하더니 빨래핑계를
대고 혹시 누구를 기다리는게 아니요?》하고 꺾
꺾 웃었다.

《아이참 반장동지두...》

순간 처녀는 고개를 들며 눈을 치며 바라보았
는데 그 눈엔 황혼빛이 어려 불타고있었다.

《안아요. 그건, 반장동진 정말...》

처녀는 억울한듯 중얼거렸다.

《허허, 내가 룡담을 했소.》

처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나직이,
혼자소리처럼 떠들떠들 중얼거렸다.

《반장동지, 전 사실... 왜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게 갈라놓구 생각할가요? ...정말 전 그게 안타까
와요. 글썄 우린...》

《허허, 그런 사람들두 더러 있지요. 내 잘못이
많소.》

《글썄 반장동지의 잘못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두 서로서로... 우린 왜 모든것을 크구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할가요?...》

처녀의 두눈엔 부지중 눈물이 피어올랐다.

최덕준은 괜히 속이 좋지 않아서 고개를 돌렸
다...

최덕준은 그날밤도 잠들수가 없었다. 어지러운
상념들이 눈앞에서 가을잠자리때처럼 뱅돌았다.

(그들은 사랑하고있다. 그건 분명하다! 처녀의

눈에 맺혔던 눈물을 보라! ...)

누군가 이렇게 속삭인다.

(아니다. 석준이는 사랑하고있지 않다.)

다른 목소리가 또 이렇게 부정한다.

(그러나 반장동무, 그들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해주어야 한다. 얼마나 알뜰한 처녀인가! 그 처
녀가 당신네 농장의 머느리로 오게 된다는것을
생각해보라!)

최덕준은 그 목소리에 오래동안 귀를 기울이었
다. 모든 열쇠가 거기에 있는것만 같이 생각되었
다. 그러자 불현듯 석준이가 그리워지고 자기가
그에게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말
일망정 왜 기분 좋게 못해준단말인가?

최덕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밖에는 푸르스름한 새벽하늘이 장엄하
게 비껴있었다.

그는 해우지틀로 걸음을 옮겼다. 밤새 수고했
을 석준이를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부터 쫘해진
다.

얼마나 왔을까? 최덕준의 눈앞에는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있었다. 그는 꿈을 꾸
고나 있지 않는가 하여 두눈을 깜빡깜빡하며 앞
을 바라보았다. 저 앞 해우지틀 토지정리현장에
서는 두대의 트랙토르가 달리고있었다. 때로는
마주치기도 하고 때로는 엇바뀌기도 하면서 기운
차게 달리고있었다. 어느새 봉긋봉긋 솟아있던
돌각담들도 여러 무지가 없어지고 하루밤새 해우
지틀은 번듯하게 변해버렸다.

최덕준은 한동안 머리가 뻥해서 서있었다. 그
의 발치에는 지경길을 넘어온 트랙토르의 바퀴자
국이 생생하게 찍혀있었다. 최덕준은 대번에 모
든것을 알아차렸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도, 놀랍지도 않았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리해
해야 될것인가? 그때 그의 서너발자국앞 길옆에
서 자그마한 사람이 슬며시 일어나 뒤돌아보았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

최덕준은 저도모르게 낮게 부르짖었다. 김오철
은 그답지 않게 자못 심각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
덕해보였을뿐이다. 그리하여 두사람은 나란히 서
서 그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다.

《저건 품앗이가 아닐세.》

김오철은 여느때없이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입
을 꼭 다물어버렸다.

통통거리는 발동소리는 그 무슨 줄기찬 음악처
럼 들려오는데 그물거리며 밀려오는 안개우를 달
리는 두 트랙토르는 마치 바다우를 달리는 기선
과도 흡사했다.

김오철은 푹 갈앉은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
다.

《우린 이제 논밭이두 다 끝냈구 물을 잡구있으
니 썩레만 치면 모내기를 할수 있게 되였네. 머

칠동안 저 트랙포트를 그냥 쓰라구.》

《트랙포트를 그냥 쓰다니?!...》

《쓰라구! 만약 얼마전만 같아서두 우리 체네운 전수가 자네네 농장에 저렇게 넘어가서 일을 해 주는것을 봤더라면 나는 기필코 우리 체네가 자네네 사촌동생한테 반하다보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슬프게 생각했을것이네. 그리곤 노발대발했을테지...》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나란히 지경길을 걷고있었다.

《석준이, 생각나나? 며칠전 자네네 사촌동생 석준이를 데리러 갔던 우리 운전수체네를...》

그날아침 잘 달리던 우리 작업반 트랙포트 한대가 갑자기 벗어버렸네. 아직 그 운전수 헛대기여서 금옥이를 데려왔지. 그런데 고장부위를 찾아놓구서는 금옥이도 몹시 난감해하는게 아니겠나. 뭐 엔진 어데가 잘못됐나.

<아이 어찌면 좋아요?> 금옥이는 그저 안타까와하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를 쳐다보더군.

<반장동지, 저 아무래두 저 건너편 석준동무 신세를 져야 할것 같애요.>

<글쎄, 그렇지만 거기야 어떻게 가겠니? 남의 농장, 남의 군이 아니냐?>

<일있어요. 아마 석준동무는 꼭 올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교특사>로 파견되었지. 그런데 막상 자네하구 마주앉고보니 자존심이 허락해야지. 그래서 되돌아서구 말았네.

<어떻게 됐어요?> 금옥이가 물었네.

<허 뭐 자존심이 허락칠 않두나. 남의 신셀 지자구 하니. 이동찰 불러오두록 하자.>

<반장동진 정말...>

금옥은 뭔가 원망스러운듯 울먹울먹해서 나를 쳐다보았네 ...》

김오철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때 금옥이가 왜 그렇게 울먹울먹해서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는지 다는 알수 없었네. 만약 자네네 석준이가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몰랐을지도 모르지.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구 . 석준이가 와서 트랙포트를 고쳐놓으니 정미소모라까지 수릴 하고픈 생각이 드는게 아니겠나. 그래서 슬그머니 비쳐보았지.

<아이참 반장동진...>

이번엔 내 욕심이 턱없이 보였던지 금옥이가 더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를 흘겨보았네. 그러고는 상냥하게, 그러면서도 떨리는듯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요, 석준동무, 그건 우리가 할수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걸레에다 기름투박이손을 닦고있던 석준은 잠시 뭔가 생각하는듯싶더니 <갑시다. 왔던김에 제격 수릴 합시다.> 하고 앞장서는게 아니겠나.

<허, 이거 정말 미안하네. 남의 농장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후에 값을 톡톡히 치릅세...>

갑자기 석준이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네. 얼굴엔 얼마나 심각하고 근엄한 빛이 어렸던지 나는 흠칫해지기조차 했네.

<반장동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값을 톡톡히 치른다는게? ...>

<허허, 그야 뭐...>

석준은 잠시 나를 묵묵히 바라보더니 섭섭한듯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네.

<반장동지, 물론 군과 군, 농장과 농장, 작업반과 작업반을 가르는 지리적지경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야 어떻게 그런 지경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석준이 듣나? 바로 석준이는 이런 사람이었던 말일세. 순간 나는 부저가락으로 심장을 들이지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었네. 아, 과연 내가 언제 그런 사상, 그런 정신적높이에서 살아온적이 있었던가? ... 그리구 금옥이가 트랙포트를 몰구 여기로 온것두 내 생각이 아니었네. 어제저녁 금옥이가 제기해서 이렇게 된걸세...》

그들은 어느덧 해원강기슭에까지 올라왔다. 봄시위물과 여러차례 내린 봄비에 불어난 강물은 대안에 가득차서 도도히 흘러내렸다. 기슭에는 신선하

고 비릿한 물비린내가 진하게 떠돌았다. 최덕준은 그 가슴에 숙연한 낮빛으로 서있었다. 저 소리없는 강물의 흐름마냥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서 무엇인가 뒤끓어번지고 소용돌이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김오철의 한마디한마디는 무자비한 회오의 칼이 되어 자기의 가슴속 깊은곳에 숨겨져있는 상처를 하나하나 들춰내며 사정없이 도려내는것만 같았다. 자기는 얼마나 저 지경길을 넘나드는 석준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가. 그러면서도 본조장들의 머리속에 틀고있어있는 본위주의의 울타리가 성벽처럼 견고해져가고있는데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았던가? 결국 그 울타리를 치기전에 자기의 머리속에 있는 그 울타리, 마음속에 생긴 그 지경길을 쳐없애야 했었다.

더구나 자기는 그들의 사랑(만약 사랑한다면)마저도 어떻게 생각했던가? 그들의 행복한 래일을 위해서이기보다 자기네 농장에 훌륭한 일꾼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것이 기분좋은 일이였기때문에 더 바랐던것이 아니었던가? 아아, 그것은 그들, 티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심장을 지닌 두 청춘에 대한 얼마나 참을수 없는 모독이였는가? ...

《글쎄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일에 자존심이 다 무언가? 응? 자존심은 뭐구 체면은 뭐가말이야? 이 세상에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일보다 더 크구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는가말이야? ...》

바람이 불었다. 강물은 철딱철딱 가슴에 와 부딪치고 교각을 두드렸다. 철떡철떡... 그 소리는 제 가슴을 마구 두드려대고있는 김오철의 그 몸부림소리와 함께 최덕준의 가슴도 마구 두들겨대고있었다.

그러나 최덕준은 그것이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았으며 그저 가슴이 후련하기만 했다. 방금 수술해낸 그 부위를 신선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듯한 심정이다.

《오철이! ...》

《덕준이! ...》

두사람은 오래동안 마주 서있었다.

문득 최덕준은 김오철의 오른쪽 이마우에 있는 그 잇을수 없는 흠집을 보았다.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가? 그러자 이상하게 가슴이 찢르르해지고 코허리가 시큰해지면서 눈곱이 뜨거워졌다.

《오철이, 우리 다시 별로 나가자구!》

《응, 그러자구!》

김오철이도 왜 그런지 눈물이 글썽해져서 고개를 끄떡거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릴 때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경길을 걸어나갔다. 순간 최덕준의 눈앞으로는 이상하게도 새까만 양복을 단정히 입고 의젓하게 서있는 석준이옆에 황홀하게 성장을 하고 다소곳이 서있는 처녀의 모습이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싶었다. 그렇다. 그들은 그렇게 걸어갈것이다. 일생을, 영원히, 이 세상끝까지...

동녘하늘에 붉은 노을이 곱게 어렸다.

멀리서 울던 뻐꾸기가 점점 가까스로 날아오며 구성지게 잦은가락으로 숨가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신선하고도 그윽한 아침이다. 저기 해우지틀에서 나란히 달리는 두대의 프락트르가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온다.

한대오속에서

강복례

11 월의 춥고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다. 비갈기도 하고 눈갈기도 한것이 바람에 흩날리며 쏟아져내렸다. 날은 흰히 밝았으나 산이며 골짜기가 온통 축축한 눈밑에 깔려있어서 온 공간이 뿌연 재빛연막에 휩싸인듯했다.

군소재지로 넘어가는 신작로를 옆에 끼고 대대는 은밀히 산쪽으로 꺾어들었다.

밤새 전사들의 걸음을 재촉하던 포소리도 이제는 어디선가 지척에서 울리며 대기를 흔들었다. 그 포소리가 전사들의 걸음에 더 힘을 준듯싶다. 배낭과 총을 멘 군복어깨는 땀과 진눈까비에 젖고 발밑에서는 길이 죽탕처럼 질작거렸으나 전사들은 더 걸음을 다그쳤다. 그들의 앞길에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힌 고향마을들과 강점자들의 발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부모형제들이 기다리고있었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 이제야 인민군대에 입대하였고 처음으로 전선에 나가는 전사 오금희는 거의 종종걸음으로 대렬을 따라가고있었다. 아직도 소녀티를 벗지 못한 상큼한 목이며 이마가 반듯하고 눈이 새까맣고 살빛이 흰 처녀의 얼굴은 온통 땀에 젖고 붉게 상기되어있었다. 배낭의 무게에 눌려온듯이 어깨를 구부정하고 알릴듯말듯 절룩거리면서도 대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그쳐 걷는 이 처녀가 지금 얼마만한 인내성을 가지고 이 강행군의 시련을 극복하고있는가를 헤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듯했다. 하긴 누구나 자기의 어깨우에 자기 힘의 몇갑절의 시련을 걸머져야 하는 준엄한 전쟁이었다.

포탄에 파헤쳐진 웅덩이가 나타났다. 파편에 맞아 부러진 나무가지며 흙덩이, 돌덩이들이 웅덩이 주변에 널려있었다. 이 고르지 않는 진창길을 걸으면서 금희는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하마트면 신음소리를 지를뻔했다. 입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신음소리를 참느라고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쉬지 않으려나, 좀 쉬었으면...)

이 질작한 눈우에라도 털썩 드러눕기만 하면 세상없이 좋을것 같았다. (이담에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행군했다는걸 이야기해도 잘 모를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금희는 집을 떠나던 그날 아침의 일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어머니는 금희가 군사동원부에 간다고 떠날 차비를 하자 이렇게 말리었다.

《금희야, 오늘이 네 생일이다. 저녁에 좀 일찍 오너라.》

미제원썹놈들이 쫓겨가고 마을이 해방된후 매일 같이 군사동원부에 간다고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군하는 딸을 어머니는 그날도 그렇게 돌아오려니만 생각했을것이다. 어머니의 말을 듣자 금희는 눈물이 쏟아질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자기가 오늘 입대하여 전선으로 떠난다는것을 차마 어머니에게 말 못하고 밤새 이불속에서 말머리를 찾던 금희였다.

음학교의 교장이던 아버지가 폭격에 상한 몸이 되어 후퇴를 못했다가 마을에 달려든 미제침략자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그 무서운 참상이 있은후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세고 얼굴에서 웃음이 없어졌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금희의 마음, 어머님앞에 차마 말 못하는 그 심정을 어머니도 알아차리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어머니두 참, 지금 무슨 생일까지 다 생각하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노여운듯이 표정이 굳어졌다.

《간 사람들 생각을 해서라도 꾀꿀이 살아야 한다. 한탄만 하고있겠니?》

금희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맥을 놓고 있을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마음에 그런 굳센 의지가 깃들어있단말인가.

어머니는 좀 부드러워지면서 말했다.

《록두 좀 있던걸 담갔다. 록두지침이나 해줄라.》

《록두가 어디 있었나요?》

금희는 좀 의아해서 물었으나 더 캐어묻지 않았다. 미제침략자들에게 집까지 불태우고 쫓겨났던 그의 집에 록두가 어디 있었겠는가. 어머니는 그 록두를 구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을것이다. 록두지침은 금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였다.

어머니는 해방전의 그 어려운 살림에서도 여느날은 늘 죽을 쑈면서도 아이들의 생일날만은 꼭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곤했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금희는 끝내 어머니에게 말을 못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인편에 소식만 전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록두지침을 해놓고 얼마나 기다렸을가.)

옆에 누구인가 다가섰다. 금희는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었다.

키가 크고 엄해보이는 대대장이 지나가다 멈춰서서 금희를 보며 물었다.

《힘들지? 따라가서 해내겠나?》

금희는 고개를 숙이며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다.

금희는 대대장이 자기를 데려온것을 후회하는것이나 아닌가, 이제라도 런대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하는것이 아닌가 하고 가슴을 조이며 더 빨리 걸었다.

우뚝 대렬이 멈춰섰다. 은밀성을 보장하라는 전달이 뒤로 왔다.

(전선에 다 왔나?)

금희는 이 순간 발의 아픔도 어깨를 내려누르는 배낭의 무게도 감감 잊어버렸다.

× ×

위생소대가 자리잡은 반나마 허물어진 농가로 부상병들이 왔다. 문짝이 떨어지고 미국놈 철갑모며 통줄임통들이 덩굴고있는 농가를 미처 정리할새도 없었다.

집 뒤산너머에선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리고 간간이 긴 폭발음이 메아리쳤다.

위생소대장과 위생병들은 중대로 나가고 농가에는 금희만 남았다. 그래서 부상병들이 왔을 때 금희는 몹시 당황했다. 포연에 그슬려 검실검실하고 눈에는 이글이글하는 분노가 서린 전사들이 금희앞에 피투성이상처를 내뒀다. 금희는 처음 손이 떨려서 무엇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한 부상병의 골절된 팔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으려고 팔을 드는데 그 부상병이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금희는 그만 어쩔 줄 모르고 팔을 놓았다. 가슴이 마구 떨렸다. 그 부상병이 당장 무엇이라고 욕설을 할것 같아 가슴을 죄었다. 이때 뒤에서 누구인가 금희앞으로 나왔다.

《동무, 도와달라고 하지 골절된 상처를 붕대할 때는 누가 받쳐주어야 아프지 않소.》

그리고 그자신이 부상병의 팔을 두손으로 조심히 받쳐들었다. 그때 금희는 그 사람의 왼팔에도 붕대가 감겨있는것을 보았다. 그러나 얼굴은 쳐다보지 못했다.

《동무, 이제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소.》 금희는 붕대를 감으며 이런 리치는 위생소대장한테 여러번 들어서 알고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하니 공연히 당황해서 찢찢맨것이 화가 났다. 아무튼 당황했던 그 순간에 자기를 일깨워주고 도와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인사라도 해야했기에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금희

는 그만 《에게》 하는 말이 입밖으로 튀어나오다가 입천장에서 굳어지고말았다. 얼굴이 더 화끈거렸다. 자기를 일깨워주고 도와준 이 사람은 분명 어제저녁 행군대오가 강을 건널 때 통나무다리에서 자기의 어깨를 잡아준 그 분대장이었다.

...그때는 행군을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진눈까비가 섞인 늦가을 찬비가 내리면서 날은 추웠다. 대낮에도 행군할수 있는 날씨여서 그런지 아니면 갈길이 멀어서인지 부대는 어둡기전에 길을 떠났다. 행군속도는 처음부터 빨랐다. 행군대오앞에 어데선가 여울물소리가 들려왔다. 물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대렬이 산굽이를 돌아서자 범람하는 산골강의 세찬 흐름이 눈앞에 나타났다. 물밑에 깔린 굵은 돌들에 부딪쳐 좌좌 소리치며 흐르는 물살 빠른 강우에는 겨우 두대의 가는 통나무를 맞붙여 놓은 다리가 있을뿐이었다. 좁 우에 있는 큰 세멘트 다리는 끊어져있었다. 물에 잠길듯말듯 놓여있는 통나무다리는 살얼음이 앉아 번들거리면서 여간 미끄럽지 않았다.

휘청거리고 미끄러운 그 통나무다리로 전사들은 나는듯이 건너갔다. 겨우 발을 더듬거려서 다리한복판에 들어선 금희는 그만 눈을 딱 감고 서고말았다.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물살 빠른 강물이 현기증을 일으키는데다 발은 미끄러워 더 옮겨놓을수가 없었다. 금희의 앞에 사람들은 벌써 다 강을 건너가고 행군대렬은 앞으로 멀어져갔다.

뒤에서 웨치는 소리들이 들렸다.

《저 너성동무 땔해, 빨리 건너지 않구.》

《동무 빨리빨리 건너가요.》

금희는 등골로 진땀이 흘렀다. 다리는 그냥 후들거리고 물살만 보면 머리는 어질어질했다.

그때 누구인가 저 뒤에서 소리쳤다.

《동무들, 그 너동무 뒤에 선 동무들은 다 이리로나오라우. 너동무가 무서워서 못건느는데 소리만 치면 어떻게 해. 빨리 다 나오라우.》

이윽고 금희는 자기뒤에 누구인가 다가서는것을 느꼈다. 그리고 크고 억센 두손이 자기의 량어깨를 꼭 잡아주는것이였다.

《자 동무, 이제 나한테 의지하고 건소.》

무게가 느껴지는 진중한 음성이였다. 금희는 그 크고 억센 손에 어깨를 의지하고 앞으로 걸었다. 요동치는 강물을 보아도 어지럽지 않았고 미끄러운 통나무다리도 건느기가 쉬웠다. 그들의 뒤로 대렬이 련달렸다.

다리를 다 건너와서 금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키가 크고 기쁜한 얼굴에 웃는듯한, 눈이 어글어글한 분대장이 앞에 서있었다. 금희가 인사말을 채 고르기도전에 분대장은 재촉하듯

말했다.

《대오에서 떨어졌는데 빨리 뛰오.》

금희는 인사도 못하고 돌아서서 앞으로 뛰었다...

그런 분대장을 여기서 다시 만난것이다. 그를 이렇게 만나게 될줄 몰랐던 금희는 그를 보자 당황하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다.

금희의 표정에서 자기를 알아보았다고 느꼈던지 분대장은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소. 이제 한두번 겪고나면 일없소.》

금희는 또다시 크고 억센 손이 자기의 약한 어깨를 잡아주는것 같이 느껴져 부지중 얼굴을 빚내며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분대장동무.》

그 인사말속에는 어제저녁 강을 건널 때 하지 못한 감사의 말도 섞여있었다.

분대장은 금희의 말은 못들든듯 부상병들을 둘러보면서 눈을 끔찍하고는 우스개소리를 했다.

《어때 나도 위생복이나 척 입으면 위생지도원은 할수 있지? 간호원동무, 이제 뭐이 또 할게 없습니까?》

《아이 참.》

금희는 어처구니 없어서 웃고말았다. 그바람에 다른 부상병들도 웃었다. 금희는 부상병들이 웃으니 그들도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들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앞에서 아까처럼은 당황해하지 않았다.

분대장은 금희가 중상자를 치료하는동안 자기팔의 부상은 아랑곳없이 금희의 일을 이것저것 도왔는데 정말 더할나위없이 일을 잘했다. 경상자들의 치료가 시작되어 파편이 스쳐지나간 분대장의 상처를 치료할 때 금희는 분대장이 자기의 서툰 솜씨를 나무랄것 같아 약도 조심스럽게 가만가만 발랐고 봉대도 더 찬찬히 감았다. 그러나 분대장은 자기 상처를 치료하는동안 말 한마디 없었고 치료가 끝나자 수고했다고 금희를 칭찬했다.

금희는 차츰 일에 자신심이 생겼고 마음도 든든해졌다. 치료가 끝나자 분대장은 돌아가려고 했다.

금희는 문득 부상병들을 그가 아무리 경상자라해도 자기가 오기전에는 중대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던 위생소대장의 말이 생각났다.

《저 돌아가면 안됩니다.》

《동무, 이쯤한 상처는 일없소.》

분대장은 그대로 나가려고 했다.

《안됩니다. 위생소대장동무가 보내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고집스러운 금희의 말에 분대장은 하는수없이 돌아섰다.

《할수 없지요. 간호원동무야 위생소대장아바이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깐 집행할수밖에... 그런데 아바이가 언제 오신다.》

분대장은 그대로 문가에 주저앉았다.

부상병들의 치료가 끝나고 금희도 한숨 돌리게 했을 때였다.

분대장이 금희에게 물었다.

《동무, 언제 입대했소?》

《저의 고향이 해방된 다음에 나왔습니다.》

《동무의 고향이 어딘데 ?》

《월봉면이에요.》

《월봉면 ?》

분대장은 되물더니 정색해졌다.

《월봉면은 우리가 해방시킨곳인데 ... 거기서 놈들이 우리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했다면서, 읍학교 교장은 아이들에게 <빨갱이정신>을 가르쳤다면 저 잔인하게 학살됐다지... 개새끼들.》

분개해서 말하는 분대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금희는 왈작 설음이 치밀었다.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고 전선으로 나온 몸이지만 이 분대장에게서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놈들이 빼앗고 불태우고 마사버린 귀중한 모든것이 생각났으며 고향에 계시는 외로운 어머니가 생각났다.

금희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들먹였다.

《동무, 왜 그러오? 무슨 일이요?》

분대장은 영문을 몰라 금희를 지켜보았다. 금희는 술한 부상병들이 자기를 보고있다는 생각이 들어 설음을 참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학살된 읍학교 교장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소? 그 교장선생이 동무의 아버지란 말이요?》

분대장의 음성은 거칠어졌다.

《그런데 동무는 왜 우오? 동무가 이렇게 군복을 입고 우는걸 동무의 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하겠소? 눈에서 불이 일어야지...》

분대장은 숨을 크게 내쉬었는데 마치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제하느라고 숨을 몰아쉬는것만 같았다. 금희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있었다.

《동무에겐 아직 행군도 어렵고 전투도 힘겨울거요. 그러나 원수놈들을 기어이 복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극복할수 있소.》

분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금희를 타이르고나서 덧붙였다.

《동무, 또 만나기요. 위생소대장아바이가 올 때까지 기다릴 새가 없소.》

금희는 만류하려 했으나 분대장은 일없다고 하면

서 끝내 가버렸다.

날이 어둑어둑해서 위생소대장이 돌아왔다. 부상병들을 후방으로 보낼 준비를 하면서 위생소대장이 물었다.

《치료받고 되비 중대에 나간 사람은 없겠지?》

도배기 함경도사투리를 쓰며 금희에게는 아버지 별이나 되게 나이 지긋하고 좀 무뚝뚝해보이는 위생소대장을 그때까지도 금희는 무척 어려워했다.

《분대장 한동무가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분대장의 이름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금희는 좀 주저주저하며 대답했다.

《어떤 분대장이요, 그만큼 내보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소?》

위생소대장은 대변에 성을 냈다. 방에 있는 부상병들에게서 1 중대 1 소대 장기철분대장이라는것을 알자 위생소대장은 더 큰 소리를 쳤다.

《기철이가 그 모양이야? 제가 나가면 가서 불들어 못올줄 알구.》

《그 동무가 조금 다쳤다고 일없다고 했습니다.》

금희의 말에 위생소대장은 어이없어 웃었다.

《그 동무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거요. 그러나 우리 의료일군이 아이요? 의료일군들은 전사들을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오.》

금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성을 내는 위생소대장앞에 서있었다. 위생소대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기어이 나가는 동무들을 자기가 어떻게 못나가게 할수 있단말인가 하고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했다.

부상병들의 후송이 끝나고 전투의 소음도 잠잠해졌을 때 위생소대장은 금희를 데리고 중대로 나갔다.

밤은 춥고 바람이 불었다. 달빛은 환한데 조각조각 찢긴 검은 구름이 바빠 흘러갔다. 고개너머 적들의 대부대가 도사리고있는 군소재지우의 하늘에서는 불안에 떠는 괴물의 요동처럼 씹없이 붉고 푸른 섬팡이 번쩍었다.

위생가방을 멘 금희는 위생소대장의 뒤를 따라 희스희스한 바위며 앙상한 관목들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어갔다. 위생소대장이 금희를 돌아보며 물었다.

《기철의 팔이 심하지 않습데?》

금희는 그쯤이면 어떻다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대답을 못했다.

《빨리 가지요, 이러다간 늦겠당이.》

위생소대장은 걸음을 다그치며 재촉했다.

금희는 위생소대장이 무슨 일에 늦는다고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뒤를 바짝 따랐다.

산밑에 컴컴한 농가 한채가 보였다. 그 농가앞으

로 다가가는데 안에서

《아바이...아바이 한곡조만 부르시오.》 하고 떠드는 소리가 나고 이어 누구인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전쟁전 평화시기에 부르던 《에야데야 풍년이 왔네 에헤야-》 하는 흥겨운 노래였다. 그 노래소리를 들으니 금희는 가슴이 뭉클했다. 원쑤놈들에게 귀중한 모든것을 잃고 사라져버린듯했던 해방후의 그 행복한 생활을 누구인가 다시 안아온것만 같았다.

위생소대장이 문을 열자 노래소리는 똑 그치고 방안에 가득한 전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다. 갑자기 여는 문바람에 등잔불이 마구 흔들거렸다.

금희는 잠시 주춤하고 섰다가 위생소대장의 뒤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섰다.

서울과 수원, 대전을 해방시키고 락동강을 넘었던 대대의 전사들은 땀에 얼룩지고 해별에 색이 변한 군복을 입고있었으나 포연에 그슬려 검실검실한 얼굴이며 림름하고 자신만만한 거동으로 해서 금희는 그들앞에 나서자 자기의 존재가 보잘것없이 작게 느껴졌다. 그래서 전사들의 호기심 담은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제때에 왔다고 안도의 숨을 쉬며 들어선 위생소대장을 보고 누구인가 벌떡 일어섰다.

《위생소대장동지, 분대는 지금 오락회중입니다.》

금희는 놀라서 《아니 분대장동무.》 하고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반갑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기철분대장은 왼팔을 삼각봉대로 싸서 가슴에 드리웠는데도 얼굴에는 방금 명랑한 오락회를 하던 즐거운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분대장은 보고를 하고나서 곧 덧붙여 물었다.

《위생소대장동지, 우리 오락회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위생소대장은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다.

《나를 허술히 보지 마오. 내 젊었을 때 쏘프라노 독창을 했당이.》

전사들이 와-하고 웃었다. 쏘프라노란 말때문에 금희도 웃고말았다. 무뚝뚝해보이는 위생소대장이 그렇게 능청스럽게 우스개소리를 하는것이 금희에게는 놀랍기만 했다.

《거짓말인줄 아오. 쏘프라노라는게 녀성고음이지만 그게 그리 어려운게 아이랑이.》

어찌나 심중해서 말했던지 전사들은 또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때에야 위생소대장도 자기가 한말이 터무니가 없었던지 꺾꺾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게 웃고나서야 위생소대장은 정색해지며 기철분대장에게 말했다.

《분대장동무, 좀 나오우. 동무 도망쳐나오면 내가 못잡아낼줄 알았소?》

전사들은 그때에야 위생소대장이 왜 나왔는지 알아차리고 재미있어하는 시선으로 위생소대장과 기철분대장을 번갈아보았다. 기철분대장도 빙그레 웃으며 위생소대장앞으로 나왔다.

때마침 밖에서 급히 다가오는 발자국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면서 어린 전사가 들어섰다.

《출발준비.》

전사들은 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풀어놓았던 목단추를 채우고 허리띠를 탄띠우에다 단단히 죄었다. 그리고는 총의 격발기들을 절격거렸다.

(그래서 위생소대장동무가 늦는다고 했구나. 전투하러 가는게지.)

금희는 전사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기철분대장의 상처를 보고나자 위생소대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동무는...》

기철분대장은 위생소대장의 말허리를 끊었다.

《위생소대장동지, 저의 분대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소대장이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다그쳐 말했다.

《아바이는 우리 심정을 알지 않습니까. 가슴에서 피가 끓는데 이만한 상처를 가지고 후방에 들어가 있어야 해야 된단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의사선생님들을 리해할수 없습니다.》

《뭘? 동무네만 싸우고 나는 자기 할일도 모르는 허제빈줄 알아.》

위생소대장은 벌컥 성을 냈다.

《위생소대장동진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는 싸울수 있을 때까지 싸워야겠습니다.》

기철분대장의 말이 어찌나 강경했던지 위생소대장은 분대장을 뻔히 바라보기만 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표정이다. 그러다가 그는 분대장의 모자채양을 아래로 확 잡아당기고 한탄하듯 중얼거렸다.

《이거 내 위생소대장을 못해먹겠다. 모두 사람인데 아니라 불덩이랑이. 어서 가라우.》

기철분대장은 모자채양을 바로잡으며 히죽 웃었고 전투준비를 하며 힐끔힐끔 바라보던 전사들도 즐거운듯이 웃으며 룡담을 했다.

《우리 위생소대장아바인 우리 마음을 알아주거든, 전쟁이 끝나면 우리 위생소대장아바이한테 모두 절을 해야 돼.》

《예기 이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을 놀리면 죄가 돼.》

위생소대장은 웃지도 않고 성이 난듯이 대답했다.

전투준비를 끝낸 전사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갔다. 위생소대장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

《잘 싸우라우.》

《위생소대장동지.》

이렇게만 말하고 손을 꼭 잡아흔들며 바라보는 위생소대장과 전사의 시선은 어느때에 백마디의 말을 주고받는것보다 더 많은것을 말하고 있었다. 한 나 어린 전사가 위생소대장앞에 나섰을 때 위생소대장은 말없이 그를 와락 그러안아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철분대장이 위생소대장앞에 나섰다. 그는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웃었다.

《위생소대장동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잘 싸우라우.》

그리고는 기철분대장의 손을 잡아주고 먼저 밖으로 나갔다. 기철분대장을 도로 중대에 나가게 했다고 금희에게 성을 내고 욕을 하던 위생소대장같지 않게 그는 그 어떤 커다란 감동에 젖어 기철분대장을 전선으로 바래였다.

기철분대장은 금희에게로 돌아섰다.

《간호원동무, 원썬놈들을 쳐부시고 승리한후 또 만나지요. 고맙소 잘 싸우오.》

그는 마치 오래 사귀인 친근한 동무처럼 진심어린 어조로 말하고 금희의 손을 꼭 잡아흔들었다.

금희는 걸잡을수 없는 환희에 넘쳐 얼굴을 확 붉히며 눈을 빛내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이 들고 훌륭한 사람에게서 진정이 어린 친근하고 다정한 말을 듣고 뜨겁게 잡아주는 손길을 느끼었던것이다.

밤은 어두웠다. 달빛도 구름속에 가리워지고 별도 없는 캄캄한 밤. 전사들은 어둠속에 멀어져갔다. 가슴속에 원썬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안고 저벅저벅 땅을 울리며 멀어져가는 전사들의 발자국소리를 금희는 어느때까지나 가슴에 새겨두려는듯이 귀를 기울이며 위생소대장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기철이 그 친군... 참 어쩔수 없는 동무들이라니까.》

혼차소리처럼 중얼거리는 위생소대장의 말속에는 기철분대장이며 그 전사들의 불같은 마음에 대한 감격이 스며있었으며 그 전사들에 대한 위생소대장자신의 뜨거운 사랑의 정이 담겨있는것이였다.

새날이 밝고 아무런 온기도 없는 해가 높이 떠올랐을 때 어데선가 먼 메아리처럼 총소리가 울려왔다. 그쳤다가 다시 울리기도 하고 둔중한 폭음속에 다시 잦아지기도 하면서 총소리는 계속되였다.

우리 연합부대의 주력이 군소재지에 대한 총공격으로 넘어가기전에 남에서 올라오는 적의 증원부대를 저지시키는 전투가 시작된것이다. 대대의 전투

임무중에서도 가장 전초선인 고지의 앞코슌이를 장기철분대가 속한 1 중대가 감당하고있다고한다.

얼마후엔 부상병들이 농가로 오기 시작했다. 위생소대장과 위생병들은 중대로 나가고 농가에는 또 금희만 남았다. 그러나 금희는 어제처럼은 당황해하지 않았다. 이제는 부상병들을 치료하면서도 그들이 들어설 때마다 전선의 전투형편을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놈들은 술한 증원부대를 끌어들이고있소... 벌써 두번째 공격을 물리쳤소.》

한낮때가 되어 들어온 부상병은 이렇게 말했다.

《놈들은 수많은 땅크까지 몰아다놓고 쏘아대면서 기를 쓰고있소.》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들어온 부상병은 더 가슴조이는 소식을 전했다.

《모두 결사전에 들어갔소. 여섯번째 공격을 물리쳤소.》

시간은 금쁘게 흘러갔다. 늦가을의 짧은 해가 이렇게 길어보이고 지루하게 느껴진적은 금희의 생애에서 한번도 없었던것 같다. (빨리 총공격시간이 됐으면.)

장기철분대장의 한 전사가 담가에 실려왔다. 금희는 그를 정성껏 치료하면서도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물었다.

《전선은 어때요? 그리고 분대장동무랑...》

부상병은 말라드는 입술을 혀로 추기면서도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덟번째로 놈들의 공격을 물리쳤소. 놈들도 이제는 기진맥진했소. 한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할거요.》

그는 말을 끊었다가 금희가 더 듣고싶어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는지 말을 이었다.

《분대장동무는 또 다리에 부상을 당했소. 중상은 아니요. 그러나 이젠 이발로 수류탄고리를 뽑고있소. 그는 최고사령관동지앞에 다진 맹세를 다하기 전에는 고지에서 물러서지 않을거요. 우리 전사들도 분대장동무의 뒤를 따라 모두 그렇게 싸우고있소.》

전사는 금희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간호원동무, 나를 빨리 치료해서 다시 전선에 나가게 해주시오.》

금희는 가슴이 뜨거워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얼마나 용감한 동무들인가. 고지는 불바다로 되고 적탄은 우박치는데 그속에서 달려드는 적의 무리를 향해 이발로 수류탄고리를 뽑으며 결사적으로 싸우는 기철분대장이며 그 분대 전사들의 장한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안겨왔다. 그러면서 작별할 때 기철분대장이 들려준 그 친근한 말과 힘있게 잡아준

뜨거운 손길을 생각했다. 금희는 이렇듯 가슴에 커다란 걱정을 안고 정성을 다해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돌보았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한다 하더라도 지금 고지에서 싸우고있는 동무들앞에서는 뭣뭣하지 못할것같았다.

날이 어두워졌다. 련대군의소에서 후송대가 오고 부상병들을 후방으로 후송했다.

그때에야 금희는 몹시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었다. 점심과 저녁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먹고싶지 않았다가보다 먹는것을 잊어버렸던것 같다. 배낭에서 건빵을 꺼내 물도 없이 씹어삼켰다. 그렇건만 금희는 피로하다는 생각보다 이날 하루가 자기 생애에서는 가장 귀중한 날처럼 생각되었다.

갑자기 땅을 들었다놓는 포성이 일어났다. 퇴성벽력같은 그 포성은 적진쪽에서가 아니라 금희의 뒤에서 우리의 포가 적의 대부대가 도사리고있는 지점을 향해서 쏘는 포소리였다. 련합부대의 주력이 총공격으로 넘어가는 신호와도 같았다. 노호하는 포소리에 땅은 무섭게 흔들렸으며 하늘은 산산조각이 나는것 같았다. 금희의 머리로 쉼없이 회파람소리같은 석식소리가 날아갔다.

포소리는 오래동안 계속되다가 시작했을 때처럼 갑자기 똑 끊어졌다. 군소재지안에서 늘 총소리가 울부짖고 세찬 불이 타올라 밤하늘에 충천했다.

위생소대장이 급히 뛰어왔다.

《금희동무, 우리도 나가야 하오.》

총소리가 멀어져가는 군소재지 남쪽의 새벽하늘에서는 이 밤의 마지막 어둠을 헤가르며 화광이 어른거렸다. 파해쳐지고 질작거리서 미끄럽기 짝이 없는 산릉선으로 금희는 기철분대장을 부축하고 내려오고있었다. 목에는 분대장의 기관단총을 메서 가슴에 드리우고 한쪽 옆구리에는 위생가방을 땀다. 전신은 땀으로 젖고 신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가까스로 발을 옮기는 분대장의 몸무게가 어깨에 실려서 금희는 전신의 힘을 발에 모아 한발자국 두발자국 앞으로 걸었다. 그렇게 조심은 했건만 금희는 끝내 미끄러지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바람에 기철분대장도 주저앉으며 넘어졌다. 분대장은 아픔을 참느라고 이를 사러물었다. 금희는 너무 미안해서 얼른 분대장을 부축하며 바쁜 소리를했다. 《분대장동무, 미안해요. 저때문에...》

분대장은 아픔을 참으며 일어서서 잠시 서있다가 숨을 몰아쉬고 말했다.

《동무의 잘못이 아닌데 미안할게 있소. 나때문에 동무가 수고하오.》

그리고 또다시 금희에게 의지해서 발자국을 떼며

앞으로 걸었다. 그는 걸으면서 천천히 말했다.

《위생소대장아바인 나이도 많은데… 참 훌륭한 분이였소… 그가 오면 우리 전사들속에선 의례히 웃음판이 벌어졌댔소… 곤난할 때도 그렇게 한바탕 웃고나면 그 곤난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군했소.》

위생소대장의 말이 나오자 금희는 목이 꼭 메었다. 얼마나 훌륭한분이었던가. 위생소대장이 자기에게 무섭게 소리치던 그 순간을 금희는 영원히 잊을수 없을것 같았다.

…부대가 군소재지안의 적들을 소멸하면서 거리 중심까지 나왔을 때였다. 갑자기 한 2 층건물에서 세찬 불길이 내뿜었다.

내달던 전사들이 쓰러졌다. 위생소대장은 탄알이 비발치는 그리로 기여갔다. 밤은 캄캄했으나 놈들의 자동차며 군수물자들이 타는 불길로 해서 사위는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고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군했다. 위생소대장은 부상병을 업고 기여나왔다. 부상병을 금희에게 맡기고 그는 또 한동무가 있다면서 그리로 기여갔다. 다음 부상병을 업고 위생소대가 자리잡은 나무밑으로 왔을 때 그는 부상병을 미쳐 내려놓지도 못하고 쓰러졌다. 그때에야 금희는 위생소대장이 부상당했다는것을 알고 부상병을 받아놓자 위생소대장에게로 급히 다가섰다.

그 순간 위생소대장이 소리쳤다.

《그 동무를 빨리 지혈을 시키오. 내 걱정은 말고 빨리 그 동무부터 치료하오. 알았소? 금희?》

위생소대장이 금희에게 그렇게 소리쳐보기는 처음이다. 금희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부상병에게로 돌아섰다. 잠시후 위생소대장에게로 돌아왔을때는 벌써 출혈이 심하였다. 대대장에게 알리고 그를 다른 부상병들과 같이 후송했다. 이어 대대장련락병이 왔다. 대대장이 위생소대의 누구든지 찾는다고 전했다.

련락병을 따라가던 금희는 갑자기 폭풍같은 세찬 바람이 확 끼쳐와서 놀라며 주저앉았다. 이어 어데선가 무엇이 뿜-하고 터졌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서는데 앞에서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위생소대장은 후송했소?》

《예, 후송했습니다.》

련락병의 대답이다.

《위생소대에선 누가 왔소?》

금희는 폭풍에 떨어진 모자를 집을 생각도 잊고

대대장앞으로 나갔다.

《제가 왔습니다.》

《응? 동무요? 1 중대가 싸우는 저앞에 고지에 부상병들이 있는데 동무 갈수 있겠소?》

《예. 가겠습니다.》

금희는 전신이 땀뻘하게 긴장해지면서 정확하게 대답했다.

대대장은 망설이듯 말이 없었다.

《대대장동지, 전 갈수 있습니다… 전 기어코 … 가겠습니다.》

금희는 간청하듯이 마디마디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위생소대장동지는 부상당한 몸으로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부상병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위생소대장동지처럼 싸우겠습니다.)

금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마구 솟구쳐올랐다.

《됐소. 련락병을 따라가오. 전투가 끝나면 동무들을 후송하고 대대를 따라오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금희가 련락병을 따라 올라간 고지가 바로 기철분대장이 속한 1 중대의 싸움터였다. 그들은 어제 하루 아홉번의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주력부대의 총공격을 보장했다. 그들은 지금 패주하는 적을 뒤통수에서 치고있었다.

그 모든것을 회상하자 금희는 더 힘을 내어 분대장을 부축하고 앞으로 걸었다.

먼동이 떠오르고 캄캄한 산들의 룼판이 뚜렷해졌다. 밤새 불길이 타올랐던 군소재지안의 집들이며 무너진 담벽들, 아직도 불타고있는 적의 자동차들이 점점 더 환히 드러났다. 사위가 밝아지자 걷기도 좀 쉬웠다.

《동무, 몇살이요?》

불쑥 기철분대장이 금희에게 물었다.

《18 살입니다.》

기철분대장은 숨을 몰아쉬고나서 말했다.

《나에게도 동무같은 동생이 있었소.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구… 옆집아이가 아파하는걸 보고도 눈물이 그렁해지군했소… 그런데 지금은 없소… 폭격때 옆집 아이들을 구원하다가…》

분대장은 말을 끊고 한참이나 묵묵히 걸었다. 금희는 생각했다. (이 분대장동지한테도 가슴에 맺힌 원한이 있었구나.)

분대장은 어조를 바꾸어 타이르듯이 말했다.

《간호원동무, 우리앞에는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을거요... 그러나 미제원썹들을 기어이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 승리는 반드시 오고 행복한 생활은 다시 이룩된다는 생각을 하면... 곤난을 극복하기가 험하오.》

분대장의 말은 띠엮띠엮 천천히 울렸으나 그 말은 크나큰 무게를 가지고 금회를 힘있게 고무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금회는 지금 자기가 분대장을 부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대장이 자기를 부축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마음이 더 굳세어졌다.

아직도 저 남쪽에서는 그치지 않는 총소리가 울려오고 방금 가렬한 격전이 지나간 뒤여서 해방된 거리는 텅 비어있었다. 그러나 거리중심에 있는 고층건물우에서는 공화국기발이 세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검푸른 하늘높이 휘날리는 오각별 찬란한 공화국기발을 보았을 때 금회는 가슴이 뿌듯하게 부풀어올랐다. 아버지며 애국자들이 학살될 때 누구의 품에서 나왔는지 공화국기발이 그들의 머리우에서 펄럭이던 생각이 났다. 금회는 분대장을 부축하고 그 기발을 향해 나아가듯이 앞으로 걸었다.

그날저녁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할무렵 산그림자에 가리워 컴컴해진 산밑에 출발준비를 갖춘 대대가 정렬하고 서있었다.

중대장들의 보고를 받고난 대대장은 누구에게라 없이 소리쳐 물었다.

《위생소대에선 누가 왔소?》

마지막 부상병들을 사단군의소로 데려간 위생병들은 아직 오지 않고 위생소대의 대렬에는 금회만 서있었다. 금회는 대대장의 물음에 용기를 내어 웅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옛, 전사 오금회 왔습니다.》

《위생병들은 아직 도착 안했구만 ... 좋소. 새 위생소대장이 올 때까지 동무가 위생소대일을 책임지시오. 1 중대부터 앞으로.》

대렬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회는 첫순간 너무도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해졌다.

심장이 툭툭 뛰고 얼굴이 화끈했다. 그러나 어슴푸레한 어둠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전사들의 따뜻한 시선, 격려하는 듯한 시선을 감촉했다. 그 시선들은 마치 《힘을 내오. 우리가 있지 않소.》하고 고무해주는 듯했다.

날은 차고 맵찔다. 얼어붙은 살얼음이 전사들의 발밑에서 부서졌다. 금회는 여전히 종종걸음으로 대렬을 따라가고있었으나 마음은 열배로 강해지고 굳세어졌으며 하루동안에 많은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이 행군대오에는 잊지 못할 친근한 기철분대장도 없고 무뚝뚝하기는 하나 것처럼 훌륭한 위생소대장도 없다. 그러나 한개 대대의 전사들이 자기를 받들어주고있으며 어려울 때, 곤난할 때 자기를 부축해주고 이끌어주리라는 생각이 금회를 무한히 고무해주고있었다. 이런 격동된 감정은 금회에 자기도 위생소대장처럼 이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리라는 마음의 각오를 더 굳게 해주었다.

이 길이 장기철분대장이나 위생소대장아바이처럼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충성다하는 길이며 미제침략자들에게 천백배로 복수하는 길일것이다.

새로 나온 책

단편소설집 《태양을 따라》

4×6 판 303 페이지 문예출판사 발행

최근 문예출판사에서는 단편소설집 《태양을 따라》를 출판하였다.

새로 나온 이 책에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모를 형상한 단편소설들인 《승리의 길》, 《믿음》, 《축복받은 땅》, 《푸른 도시》, 《태양을 우러러》, 《보통날 아침》, 《평양은 노래한다.》, 《고귀한 칭호》, 《밤나무숲이 설레일 때》들이 들어있다.

가사

한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 외 1 편

신순현

나를 낳은 어머니도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수령님 주셨네
한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
혁명의 한길에 빛내여가리라

편안하게 앉아서 일생을 산다면
사람은 살아도 보람이 없네

순간을 살다가 목숨은 저도
수령님 위하여 빛나게 살리라

혁명가의 일생은 준엄하여도
이 길에 행복과 영광이 있네
빛나는 한생을 혁명에 바쳐
수령님 전사로 영생하리라

수령님께 빛나는 한생을 바치리라

불길만리 걸어온 우리 길 하나
영광만리 걸어갈 그 길도 하나
위대한 수령님 영원히 따라
빛나는 한생을 그 길에 바치리

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의 한길
혁명가의 행복은 충성의 한길

위대한 수령님 영원히 따라
폭풍이 불어도 이 길을 가리

준엄한 시각에 목숨 버려도
정치적생명만은 못버리리라
위대한 수령님 영원히 따라
조선의 혁명가로 길이 살리라

영원한 청춘으로 우리 살리라

리혁수

푸르른 조국의 하늘을 이고
우리는 언제나 젊어산다네
청춘의 가슴에 충성을 안고
한평생 수령님 받들어가리

세월은 흘러서 강산은 변해도
청춘의 기백은 변함이 없네

주체의 붉은피 혁명에 바치니
내 나라는 청춘으로 더욱 빛나네

혁명의 행군길 간고하여도
불굴의 투지로 지치지 않네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영원한 청춘으로 우리 살리라

《새별눈》을 따라서

-온성지구에 《새별눈》이라는 별명을 가진 녀성유격대원이 파견되었었다-

차승수

하늘에 드리운 비구름같이
설음이 고여나던 눈동자였다네
등대불 사라진 배길과 같이
앞길을 모르던 눈동자였다네

어버이장군님 품에 안기여
부모잃은 설음이 가셔진 그날부터
난생처음 쥐여보는 사랑의 연필로
한자한자 눈을 뜬 광명의 그날부터

희망담아 지혜담아 반짝인다고
근거지인민들이 불러준 《새별눈》
온성땅 아이들의 길을 밝혀주라고
어버이장군님 보내주신 《새별눈》

원썬놈들 깊이 잠든 밤이 오면은
내리는 어둠타고 모여들었네

머슴군 아이들, 부엌데기 소년들
마을의 《새별눈》 찾아 모여들었네

유격대누나들 빙 둘러앉아
장군님 이야기로 숨결 높은 가슴들
혁명가요 풍금소리 따라부르며
온몸에 부쩍부쩍 새힘 솟는 아이들!

한밤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초롱초롱 밝아지던 눈동자, 눈동자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조국땅에 늘어나던 별무리, 별무리

아,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우러르는
온성마을 충성의 《새별눈》을 따라
조국에 별들이 은하를 이루었네
조국에 별들이 은하를 이루었네

권리

오정로

나에게 젊음이 무엇때문에 있느냐
산과 들은 어찌하여 내앞에 펼쳐졌더냐
행복속에 넓어진 내 가슴아
꽃밭속에 곁어온 내 곁음아

모진바람 모진눈비 다 헤쳐가시며
나를 안아 키워오신 어버이수령님
그 사랑 생각하며 목메인적 그 얼마였더냐
언제나 그 언제나 기쁨만을 드릴 내가 아니었더냐

아, 어버이수령님
농사일 심려하시며
평양에서 멀리 여기 산촌의 새벽
논뚝길을 걸으셨구나

저 둔덕우에 과일들로 짝 채울수는 없었더냐
저 더기에 어찌하여 철철 물길을 올리지 못했더냐
아, 담벽같은 이 가슴은 무엇때문에 있었느냐
무엇때문에 내 눈정기는 것처럼 빛났더냐
내 가슴으로 저 곡식포기들을 다 안아 자래우고
내 땀방울로 저 열매들을 하늘가득 익혀가지 못한다면
살아 삶이 아니다
땅을 불안고 일어난 내앞에 새벽이여
다 이어져다오

그 길에서 빛을 뿌릴 나의 젊음아
그 길에서 천백번 바쳐도 아낌없을
나의 한생아
언제나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그때에만
저 산과 들 해와 별을 바라볼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

조국이며, 대진군 앞으로!

윤석범

조국이며!

그대는 새 진군길에 올라섰구나

그대는 저기

노을도 붉게 타는 하늘가에

부풀어오르는 새 희망을 펼쳐들었구나

나는 듣는다

천리 막장끝에서 들려오는

충성의 거세찬 발파소리

동서해안을 누벼가는

전기기관차의 자랑찬 기적소리

눈덮인 대지우엔 새봄빛이 웃고

산밭마다엔 솟아있는 은빛 철탑들...

행복에서 행복으로 더 높이 비약하는

력사의 이 시각이 소리치며 흐른다

가닿을 그날의 환희여!

흐르는 내물도

설레는 파원도

마을과 거리도

한껏 아름다울 우리의 하늘과 땅

인민의 가슴속에

송이송이 행복의 꽃이 활짝 피여날 미래여!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받아안았기에

둘러보면 이 땅의 모든것

바라보면 저 하늘의 모든것

한가슴에 안아보는 행복이 되고

행복이 맹세로 다져지는 생각이여!

수령님의 사랑의 그 해빛이 가닿는

락원의 거리, 문명한 두메

꽃무늬 아름다운 다충주택 창가에

자고 깨는 아침이 더 밝고밝을 그날로

우리는 지금 가고있어라!

아, 희망이 불타는 이 진군길

새 7개년의 첫 지점을 환히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3대혁명의 날개를 펼쳐

달려오를 새 봉우리, 찬란한 리정표

공산주의 지름길우에 우리를 높이 세워주셨나니

조국이며, 나는 다시 본다

굽이쳐가는 충성의 빛나는 얼굴들

하늘땅을 진감하는 새 진군의 대오들

조국이며, 나는 다시 듣는다

주타격의 돌파구를 여는 저 소리!

안주에서, 덕천에서

땅속의 검은금은 머리를 들고 솟아오른다

다시한번 《수송혁명 200일전투》에로

두줄기 궤도우에 새롭게 올려가는 저 기적소리!

김책에서도 강선에서도

맹세의 뜨거운 손들을 잡고

용해공들이 증산의 불길을 지퍼올리고

단김을 뿜는 대지의 검은 흙밭밑에서

만풍의 씨앗은 벌써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고...

오, 총진군 총돌격

7개년의 새 봉우리로

자력갱생의 걸음으로 올라서는 주체의 조국

이 해의 시작은 얼마나 좋고

조선의 미래는 얼마나 창창한것인가!

그 어떤 폭풍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제손으로 이룩하리라!

더 높은 고지대로의 돌진!

우리 땀, 우리 힘으로 아로새길 봉우리!

아, 자랑찬 그 위훈의 탑들을

세기에 찬란히 일떠세우리라!

혁명전위, 그대의 모습으로

김병두

홍성이는 출근길 발걸음들을 멈춰세우며
정문길 계시판에 나붙은
새 혁신자들의 큼직한 사진
반겨웃는 그 얼굴들속에
혁명전위, 그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누나

티없이 맑은 충성의 가슴에만 간직할수 있는
웃음과 기쁨과 아름다운 꿈을
이 사람들의 얼굴에 피워주고
행복한 이 아침도
소조원동무여
그대 어느 기계결에 섰느냐

그러나 나에겐 보여온다
노래라도 부를듯 마주 웃는
운전공처녀의 사진에서도
흘러내린 석탄 한줌도
벨트의 흐름우에 말없이 퍼담으며
주인된 마음 키워주던 소조원의 모습이...

보여온다
들끓는 자동하차장
기계행렬을 거느리고 선
나이지긋한 직장장의 사진에서도
선뜻 뛰어들지 못하던 창안의 도면에
이속한 밤 점과 선을 그어가며
신념의 불꽃을 심어가던 소조원의 그 눈빛이...

밤새운 돌격대원들의 가슴에
불처럼 타고르던 선동의 말
나어린 신입공과 함께
이른새벽 출근길에 남기던 첫 자욱
때로는 돌격전의 기수같고
때로는 고향집 누나와 같은

뜨거운 열정, 살뜰한 그 마음에
성미 팔팔하던 사나이들
오늘도 사진속에 눈시울 젖어있구나

성미도 나이도 걸어온 길도
저마다 다른 이 사람들을
하나같이 혁신자의 대오에 떠밀어준
우리 소조원처녀

밝아오는 첫새벽에
발전소 굴뚝에 피어오르는
저 연기를 바라보시고계실 어버이수령님께
그 뉘보다 선참으로 기쁨을 올리려고
이 사람들과 함께
로대우에서 맞이하던 해돋이는 그 얼마
돌격의 최선두에서 달려온 길은 또 얼마였더냐

그대 눈빛에 담은 무조건성의 열정
그대 심장에 간직한 티없이 맑은 충성심이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 신념이 되어
오늘은 영광의 자리에서 웃고있구나
혁신자로 자란 이 사람들의 새 모습으로
어버이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올리였구나

자랑찬 그 웃음, 그 환희로
온 구내가 밝아진 이 아침
값높은 충성의 링마루어로
더 높이, 더 높이 불러주는 3대혁명소조원동무여
오늘도 래일도
위대한 수령님 바라심대로
하늘에 빛나는 못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혁명전위, 그대의 모습으로 세워주고있구나

바다사람

변홍영

미역 따는 처녀들의 노래소리
싱그러운 배풍에 실려오는 바다가마을
풍성한 트랙을 두고사는 자랑인듯
문어말림을 걸어놓은 울바자밑에서
아바이는 그물을 손질하며 이야기한다

밀려드는 고기떼를 가늠하듯
이따금 눈시를 좁히고 바라보는 바다
어느 물꺾을 따라 고기떼 모여드는지
어느 바위틈에 고기떼 넘노는지
물에서도 손금처럼 틀어쥐고있노라고

물에선 제 나이를 속일수 없어
포구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들도
첫대면에 아바이라 부르건만
바다에선 늙음을 모르노라고
호탕한 웃음을 터치기도 하더니-

그 무슨 승엄한 생각에 잠긴듯
흰물결이 춤추는 도래곶이
 해변길을 바라보며 말이 없던 아바이
진눈까비 내리는 어느 겨울날
방금 배를 댄 새벽포구에서
수령님을 뵈옵던 감격을 이야기한다

험한 산들이 둘레둘레
바다로 나와 앉은
이 외진 포구에 오신 수령님
아바이 나이도 물어주시고
그 년세에 배를 타니 10년은 젊어보인다고
선창에 넘치는 물고기를 보시며
그 년세에 아바이가 큰일을 한다고

소금섞인 바람에
거칠어진 아바이 손을 만지시며
그리도 자애로운 사랑으로 안아주시던

수령님의 그 영상을 다시 뵈는듯
뜨거움에 땀히는 이슬을 머금은채
아바이는 천천히 그물을 들고 일어선다

저멀리 둥그런 수평선이
못내 반기는듯
해빛과 어우러져 웃으며 달려오고
밀려드는 고기떼를 길잡이하듯
흰갈매기 물결우에 넘놀며 날아든다

아, 이 외진 포구에서 만난
바다사람의 소박한 이야기
저 츄렁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와 같이
어이 내 가슴을 이토록 울리는것인가

나는 생각하였네
내 돌아본 고향, 드넓은 조국땅
나라의 철길을 살피며
랑림의 계곡을 걸어가던 철길순회원을
천연수림이 들어찬 북방의 고원에
어린 나무를 심던 산림보호원아바이를

나는 생각하였네
알심있게 갇춘 어구를 배에 싣고
젊은이처럼 호기있게
바다로 떠나가는 아바이를 바래우며-

그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늙음을 모르는 성실한 사람들
평범한 나날에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남기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시대 보통사람들을

아, 이런 사람들을 어디 가나 만날수 있는
나의 조국은 얼마나 부유하고 강대한가!

다락발더기마다 물노래에 젖어

정영호

물벼들 방축우엔

해빛받아 푸른잎 돌아나고

강냉이바다 층층 솟아오를

다락발더기들엔

울려가는 트랙포르 발동소리

굽이굽이 뻗어오른

하늘길 층계마다

출렁출렁 흘러들 물길을 안았소.

해종일 무지개 걸어놓고 단비 내릴 더기마다

흔연히 강우기들 멋스럽소

흐르는 물길만이라

지하천길 땅속의 물줄기를 잡아

줄짱들이 지심깊이 뿌리내렸소

이 산 저 산 골짜구니마다

굴포들이 푸른 하늘 비껴담았소

억년 가물인들 어떠랴

주체농법이 활짝 피어나는 이 나라

두메산촌 험한 막바지에도

사품치며 흘러드는 물소리

백리골안도 넘치리오

온 나라의 끝없는 지경을 넘으시며

모진 눈비를 다 맞으시던 위대한 수령님

여기 날저무는 산촌의 싸락눈을 맞으시며

한밤이 지새도록 더기를 걸으시였소

두메산촌이 꽃피어나야 온 나라에 그들이 없어진다고

몸소 굽이굽이 물길을 열으시며

기쁨을 새기시며...

첩첩 다가만 서는 산과 산들이

구름발을 날리며 마주 웃는

두메라 산촌

오를수록 목이 맨다오

은혜로운 사랑이 층계우에 또 층계

저렇듯 하늘가에 솟아있다오

두둥실 삭도바가지 부식토를 실어오고

파아란 연기를 감치는 빨간 《층성》호들

떨기떨기 피어난 꽃이런듯

소뿔이 수그러져눕는 이랑이랑 넘어

벌써 싱그러운 물냄새 젖어오나보오

소리없이 서두르며 물마중해가는

아- 아 환희로운 발판개의 봄이라오

이 땅의 한끝까지 해빛이 넘치는 이 나라

더 높은 만풍년의 언덕을 향해 달려가는

머나먼 두메산촌의 상상봉우에도

정녕 오늘은 기쁨우에 기쁨

행복우에 행복

아, 다락발더기마다 물노래에 젖어

사랑의 물줄기 넘치도록 흐르니

그 어떤 왕가물도 왔다가 젖어간다네

그 어떤 왕가물도 왔다가 젖어간다네

발판개의 이 봄에 조선의 이 봄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건설에서 일어난 새로운 전변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형상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대하여-

류승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일어나던 때로부터 20 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늘도, 먼 앞날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길이 받들어나갈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충성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대고조의 불길에 거세차게 타오르던 그 력사의 나날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며 긍지높이 자랑하며 노래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58 년 12 월 25 일 평양시건설자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한해동안에 평양시건설자들은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2 만 여세대의 주락을 지었고 대동강유원지를 비롯하여 칠성문통거리, 청년거리 등 많은 거리들을 건설하였으며 다른 공공건물들과 사회문화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였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옛날 같으면 10 년이 걸려야 할 그런 많은 일을 단 한해동안에 하여놓았습니다. 주락건설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날에 2 만세대를 지으려면 적어도 3-4 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한해동안에 평양에서만 2 만 세대이상의 주락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모든 건설자들이 당주위에 굳게 뭉쳐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를 받들고 열성적으로 일한 결과입니다.

1958 년은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설에서도 위대한 전변이 일어난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최화수)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힘차게 일어나던 력사적인 해 1958 년에 건설부문에서 이룩된 위대한 전변을 기본소재로 하여 평양시건설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은 평양시건설에서 이룩된 커다란 혁신과 기적적인 사변들을 실제적인 자료로 하면서 그 기저에 우리 나라 건설부문에서의 위대한 전변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

가 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심어주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제기한 기본문제를 리해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은 작품에서 주력건설현장을 찾으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상철이를 비롯한 청년건설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남들보다 뒤떨어진 우리가 남들도 하지 못할 방대한 건설을 단꺼번에 빨리 할수 있겠는가고 한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우리는 남들보다 뒤떨어지구 남보다 못살았기때문에 남들처럼 천천히 할수 없소. 그렇게 해서는 언제 가나 남들보다 뒤떨어지오. 우리는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걷고 남들이 하루에 집 한채를 지을 때 열채, 백채를 지어야 하오. 우리는 남의 기준을 가지고 일할수 없소. 남들이 열시간 하는 일을 우리는 한시간, 반시간에 해야 하오. 다른 나라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해서는 안되오. 우리는 우리의 시간, 평양시간으로 살고 평양시간에 준해서 계산해야 하오!》

평양시간,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개념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지난날 남들보다 뒤떨어지고 못살았기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지와 영웅적기상이 깃들어있으며 모든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해나가는 주체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평양시간, 그것은 곧 우리 인민을 더 좋게 더 빛나게 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생겨난 주체조선의 새로운 속도에 대한 상징이며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나아가는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력사적전변과 기적에 대한 형상적인 표현이다. 바로 여기에 것처럼 긍지높이 울리는 평양시간이 체현하고있는 심오한 뜻이 있으며 평양시간이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되는 근거가 있다. 작품에서는 정당하게도 평양시간을 핵으로 하여 그것을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그려냄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대고조의 거대한 힘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훌륭히 특징지을수 있었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며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남들과 같은 보통걸음이나 속도로가 아니라 열배, 백

배의 속도로 시간을 앞당기고 세월을 주름잡아 나아가려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충성의 열정이 건설에서의 일대 전환의 확고한 담보로 되었음을 작품에서는 뚜렷이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독창적이며 철학성이 있고 명백한 종자에 기초하여 그것을 형상적으로 훌륭히 구현할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구성을 면밀하게 조직하였다.

이 작품의 구성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형상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선을 일관하게 보여줄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옹게 설정하고 그것을 깊이있게 잘 묘사한것이다. 또한 구성에서 특징적인것은 모든 긍정적인 인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과 유기적으로 련관시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공산주의적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호모와 다함없는 충성심을 심오하게 일반화하고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이 작품의 새로운 성과가 있으며 특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면서 작품에서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로 꾸리며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과 령도의 현명성, 끊임없는 로고에 대하여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그려내었다.

1958 년, 온 나라는 지나간 력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으로 들끓고있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해 겨울에도 변함없이 전국 도처의 공장과 농촌들을 찾으시여 인민들과 더불어 나라일을 의논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당중앙위원회 청사 사무실로 친히 평양시건설부본지도일군들을 부르시였다.

평양건설을 혁신시키기 위한 1958 년의 작전은 어버이수령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드디어 개시된것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력사적사실을 생동하게 재현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립식건설방침을 제시하시여 건설에서의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친히 여러차체에 걸쳐 평양시건설을 위한 설계도면을 보아주시고 구체적이고도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그리고 수천수만명에 달하는 제대군인들과 아직도 반토굴집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심려하시는데 대하여 훌륭히 형상하였다. 이러한 예술적화폭가운데서도 평범한 보통벌 소년들이었던 상철이와 종한이가 소박한 공상의 나

래를 펼쳐 떠다니는 듯배우에 집 지을 그림을 그리던 그 사실을 12 년이 지난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감회깊이 회상하시며 상철의 아버지 리성준로인과 소탈하게 담화하시면서 장마의 피해에서 벗어난 인민들에게 보통벌을 더 아름답고 훌륭한 락원으로 꾸려주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며 또한 조립식건설에서 일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친히 상철이네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에게 새로운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크나큰 위훈으로 불러일으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은 평양시건설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이야기하여주고있다.

특히 작품에서는 평양시를 아름답고 현대적인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를 해방후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보통강개수공사의 거대한 력사적사변과 가렬한 전쟁시기 나무를 찍는 한 전사를 타이르시며 전후 평양건설의 웅대한 설계를 펼치시는 생동한 사실들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전일적인 화폭으로 재현함으로써 그것을 력사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면서 작품에서는 또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우리 인민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감명깊게 그리였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주로 상철이 일가를 비롯한 등장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형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철이와 그의 아버지 리성준로인의 소박한 소원도 귀중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지난날 가난과 풍파속에서 시들어가던 우리 인민의 념원을 몸소 헤아리시며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더 좋고 쓸모있는 살림집과 훌륭한 유원지와 공원을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심려하신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대주의와 공명에 사로잡혀 당의 건설정책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과오를 범하고 자책과 고민속에서 헤매던 도시계획설계실장 문화련에게도 고귀한 정치적인임과 크나큰 배려를 베푸시여 그로 하여금 계속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당과 인민을 위한 충성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나아가게 하시는것이다.

이밖에도 안오월을 비롯한 작품의 긍정적인물 한 사람 한사람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믿음과 배려는 뜨겁게 미쳐가고있으며 바로 그 사랑과 배려속에서 상철이를 비롯한 로동계급들은 주체형의 혁명가로 억세게 성장해가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이렇듯 평양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꾸리며 우리 인민에게 보다 아름답고 쓸모있는 살림집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면서 그이의 위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덕성을 민주건설시기와 전쟁시기, 사회주의기

초건설시기를 포괄하는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생활적 사실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등장인물들과 사건과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을 화폭의 중심에 뚜렷이 부각함으로써 우리 나라 건설에서의 거대한 전변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하여 마련되었으며 건설분야에서의 일대 고조와 혁신은 전적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는 것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확증하였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서는 형상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 밑에 《천리마속도-평양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성장하여 가는 상철이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의 형상을 인간학적 요구에 맞게 훌륭히 창조하였다.

이 작품의 인물형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상철이를 비롯한 제대군인들과 청년건설자들의 형상이다.

이들의 형상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이께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품모가 깊이 있게 체현되어 있다.

상철이, 수진이를 비롯한 제대군인들의 심장속에 고이 간직한 생활의 신념은 과연 무엇이였겠는가? 가련한 전쟁의 불비속을 헤치며 걸어온 대오에서 갖 제대되어 건설장에 온 그들에게는 특별한 기술도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첫날부터 등짐으로 벽돌을 저날라야 했으며 지어 몸이 불편하고 일터가 마음에 불지 않을 때면 그것을 《림시정류소》로 여기고 다른 곳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위훈에 대한 갈망은 컸으나 위훈을 세울만한 《일터》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 어느 다른 곳에 가면 위훈이 있을 것만 같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속에 고이 간직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살고 싸우며 그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었다. 건설방법을 조립식으로 전환할 때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이 《리해할 수 없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어찌서 건설부대는 집행하지 않았는지?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바로 이러한 상철이, 수진이들이였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제대군인들과 인민들의 살림집 때문에 그토록 심려하시며 평양시를 아름답고 훌륭한 도시로 꾸리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떤 주저와 동요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 한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위훈이란 그 어떤 특별한 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바로 그 투쟁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 길에서 빛나는 위훈의 탑을 세워나간다.

이러한 성격발전은 결코 상철이나 수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제대군인들인 선우호섭이와 채만집도 그리고 말썽군이던 홍기동이기도 청년건설자들 모두가 다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목매이며 새로운 투쟁과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상철이를 비롯한 제대군인들과 청년건설자들의 성장과정을 깊이 있게 그리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이들 로동계급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 투쟁에 의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건설구상이 빛나게 실현되었음을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었다.

상철이를 비롯한 청년건설자들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조립식건설을 해야 한다는 이 하나의 생각밖에 다른 것은 없었다. 반혁명분자 꺾나봉의 책동에 의하여 또한 부재의 오작에 의하여 때로는 실패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리고 아직은 일이 서툴어 조립식건설을 시작하여 두달씩이나 계획을 못했을 때에도 결코 그들은 물러서거나 주저앉을 수 없었다.

상철은 난관과 시련이 막아서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가난과 천대에 시들어가던 토성랑의 눈물겹던 생활에 새삶의 희열과 광만을 안겨주시고 소년공의 설움 많던 나날을 학창의 밝은 교실에 꽃피워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생각하였으며 보통 강개수공사착공식의 그날에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보옵던 감격의 순간을 생각하였다. 이 숭고한 생각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충성의 감정은 더욱 깊어갔으며 깊어가는 충성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지혜와 열정이 더욱 솟구쳐올랐다. 명절날에도 쉬지 않고 합숙을 찾아가 조립식건설을 위한 청년조립조를 조직하며 관통상을 입은 옆구리가 걸리는 때에도 오로지 조립속도를 높일 생각에만 몰두하며 그리고 일요일에는 남들은 쉬게 하고 조립순위에 따르는 부재배치로 새로운 조립속도를 기록하는 상철의 헌신적인 투쟁은 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부터,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에게 맞는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이악한 노력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조립식건설을 기어이 승리적으로 실현하려는 상철이였기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어 당의 건설정책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나서는 림도식과 맞서 원칙적으로 싸울 수 있었으며 그들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굽힘 없이 조립식건설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확증해나갈 수 있었다.

작품에서는 상철이를 비롯한 청년건설자들의 이

러한 투쟁을 통하여 건설분야에서의 위대한 전환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짓부시고 소극과 보수를 반대하는 치열한 투쟁속에서 이루어졌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였다.

작품에서는 당의 건설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발전되는 상철의 끝없는 충성심을 주도적으로 보여주면서 경팔이를 교양개조하고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주며 안오월이와 건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등의 생활을 통하여 그의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적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상철의 이러한 성격적특징과 함께 다른 인물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개성적으로 그려내었다.

농민다운 순진성과 소박성, 성실성으로 특징되는 수진이, 성미가 팔팔하고 불임성 좋은 월석이, 부드럽고 열정적인 오월이 등 모든 청년건설자들은 태어난 고장과 성미와 생활로정이 서로 다르지만 다 같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그 길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며 억세게 싸워나아가는 인물로 훌륭히 형상되었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상철이를 비롯한 청년건설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잘 그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건설에서 위대한 전변을 가져온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성격을 빛나게 형상하였다.

작품에서는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또한 문화린의 형상도 매우 의의있게 그려졌다.

건설을 공업화할데 대한 방침은 지난시기 문화린도 여러번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현실적인 당의 요구가 아니라 전망적인 요구, 즉 앞날에 그렇게 할것을 지향한 방침적인 요구로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자기나름으로 단정하였다. 어찌다 문화린의 머리속에 움튼 조립식건축설계를 해볼가 하는 그 가냘픈 욕망의 싹마저 가뭇없이 무질러버린 것은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근성과 아울러 건축예술에 대한 유미주의적인 낡은 미학관이였다. 문화린은 낡은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그 제한성으로 하여, 그리고 사대주의와 공명심으로 하여 본의 아니게 당의 건설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기 파오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깨달았을 때 배은망덕한 자신을 두고 심심한 자책감에 휩싸인다. 문화린으로 말하면 낡은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속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길을 걷게 되었다. 때문에 저지른 파오앞에서 그가 자기를 심각히 뉘우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작품에서는 문화린의 이러한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면서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거듭되는 크나큰 신임과 배려속에서 그가 어떻게 충성심을 뜨겁게 불태우며 자신을 혁명화해나아가는가 하는것을 감명깊게 그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설계가, 건축가들을 친히 부르시여 《...나는 동무들을 믿는다, 우리 당의 설계 일군들을 믿는다, 일부 동무들이 10 월전원회의후에 소심하고 불안해하며 지낸다고 하는데 나는 동무들을 나쁜놈들의 추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났고 당과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이 어찌 마음이 변했겠는가...나는 동무들을 전적으로 믿는다, 용기를 가지고 일하자, 실천을 통하여 자기의 당성들을 시위해보라...》라고 하신 말씀은 문화린에게 있어서 그대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새삶의 출발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크나큰 신임과 사랑이 있었기에 문화린은 도시계획설계실장으로서 주택건설설계를 반드시 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지만 당적량심앞에서 도덕적책임을 느끼며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 경제적인 조립식주택을 설계하며 이 과정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째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크나큰 신임과 사랑이 있었기에 화린은 또한 조립식시험주택건설이 여러번 실패하고 교조주의자인 립도식이가 때로는 정치적인감투를 씌우며 때로는 조립식주택설계를 철회할것을 암암리에 강요했으나 오직 해야 한다는 또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꿋꿋이 싸워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정치적인신임과 배려속에서 조립식설계를 완성하고 그것을 생산에 도입하는 과정은 그대로 화린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속에서 성장하여가는 화린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 지식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우리 시대 지식인의 성격적특징을 깊이있게 밝혀내었다.

이 작품에서 또한 중요한 형상적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당위원장 탁준범이다. 작품에서는 그와 상철이, 수진이 등 청년건설자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립도식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당적원칙을 고수하며 로동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로 이끌어어나아가는 당일군의 전형적인 풍모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철이를 비롯한 청년건설자들이 일으키는 커다란 혁신과 기적의 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조직하고 떠밀어주는 그의 믿음직한 형상이 놓여있다.

특히 작품에서는 크고작은 모든 일을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의논하고 해결방도를 찾으며 그 수행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탁준범의 형상을 통하여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를 깊이있게 해명하였다.

이밖에도 작품에서는 상철의 아버지 리성준, 화

린의 안해 리상금, 오누이인 성진락과 성진숙 등의 형상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숭고한 성격적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서의 이와 같은 다양한 인간성격은 풍부하고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졌다.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는 문학작품에서 예술적형상을 잘하는것은 종자를 꽃피우며 인간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실적인 사실들과 다양한 생활도 예술적으로 잘 형상되어야 감명깊게 안겨올수 있고 의의있고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다.

《평양시간》의 예술적형상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역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성문제를 옹계 해결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문학작가들이 사실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서 자료를 기계적으로 옮겨놓을것이 아니라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사건처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사실자료를 기계적으로 작품에 옮겨놓으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그 인식교양적목적에 맞게 역사적사건의 정치적의의를 옹계 밝혀내며 이와 함께 역사적사건을 그대로 라렬할것이 아니라 생활적으로 풍부하고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평양시간》은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씌여진 작품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삽을 뜨신 보통강개수공사를 비롯하여 전후 특히 1958년 평양건설을 위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로정과 과정, 그리고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 벌어졌던 해주-하성간 철도건설을 비롯하여 많은 역사적사실들이 반영되어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사실들을 반영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적특징과 들끓는 현실을 진실하게 재현하였을뿐만아니라 그러한 사변속에서 발전되는 등장인물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작품에서는 많은 역사적사실을 그 기초로 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기계적으로 옮겨놓은것이 아니라 사건처리를 옹계 하여 생활적으로 잘 그려내었다.

보통강개수공사작공식을 전후한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서는 당시의 역사적사실에 충실하게 그리면서도 그것을 작품의 인물들인 상철이, 중

한이의 구체적인 생활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보여줌으로써 그 역사적사건이 가지는 의의와 생활력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할수 있었다.

또한 작품에서 해주-하성간 철도부설공사라든가 대동강호안공사, 대성산유원지건설 등 역사적사실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무리가 없이 자연스럽게 형상적으로 잘 엮어놓은것은 거기에 주인공들의 생활을 옹계 결합시켜 보여주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1958년 한해동안의 건설부문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변을 취급하면서도 시대적폭을 넓혀 그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일어난 거대한 혁신을 생활적으로 잘 보여주고있을뿐만아니라 해방직후와 전쟁시기의 사실들까지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적사실과의 련관속에서 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깊이있게, 당시의 시대적특징과 면모를 생동하게 재현할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생활을 깊이 파는데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문학예술작품에서의 인간관계는 사회적으로 맺고있는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반영이다. 그러면서도 인간관계가 필연적이며 공고한것으로 되여야 하는데 문학작품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특징이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 있는바와 같이 연고관계가 없는 인간관계를 극적효과를 위하여 억지로 갖다붙일 필요는 없는것이다.

인간관계가 필연적이며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그것은 반드시 연고관계가 있는 인간관계로 되여야 한다.

《평양시간》은 이런 측면에서 인간관계가 빈틈없이 맺어졌다고 말할수 있다. 작품에서 혈육으로 맺고있는 관계를 내놓고라도 모든 인물들의 관계는 연고관계를 가진 얼마나 공고하고 생활적인 관계인가!

상철이와 수진, 탁준범, 월석, 종한, 오월, 도식과의 관계, 월석이와 성진락, 성진숙, 탁준범 그리고 문화린과 수진, 성영국, 최태훈, 도식과의 관계 등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깊은 연고관계를 가지고 맺어지고있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맺음으로써 시대적폭을 넓히고 생활을 깊이 탐구할수 있었으며 성격을 여러모로 천명할수 있었다는데 있다.

월석의 경우를 놓고보자. 그가 진숙이와 전선야 전병원에서 만났던 연고관계가 있음으로 하여 진숙의 오빠 진락이는 자연스럽게 그려질수 있게 되었으며 해주-하성간의 철도부설공사이야기가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전개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철이와 오월의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그들의 소꿉시절의 연고관계 설정은 단순히 후날의

사랑관계를 맺어주기 위한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도 작품에서는 유년시절의 그들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그것을 실머리로 하여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이 있는 력사적인 그날을 생생하게 재현할수 있었으며 비록 아이이었지만 해방을 맞이한 이 나라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전체 조선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그이를 비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가를 뜨겁게 보여줄수 있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의 인간관계는 다 연고관계를 가지고있는 관계로서 특징되며 이러한 인간관계에 의하여 작품에서는 생활을 깊이 파면서도 시대적폭을 넓힐수 있었으며 인간성격을 다양하고 생동하게 창조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세부묘사와 언어 문체에서도 개성적인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소설은 묘사를 기본으로 한다. 생동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떠나서는 소설이 그 어떤 사실도 감동적으로 그려낼수 없다. 오직 풍부하고 생동한 묘사를 통해서만 작품의 성격도 사상도 깊이 있게 밝혀질수 있다.

특히 본질적인 생활세부를 정확히 골라잡고 생동하게 묘사하는것은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보여주어야 하는 예술의 고유한 형상법칙에 전적으로 맞는것으로서 장편소설창작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평양시간》은 인상깊고 감동적인 세부묘사로 일관되어있다. 매 세부묘사는 본질적이고 또 정확한것이어서 매우 의의있게 씌여지고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 작품에는 안해가 보낸 편지를 동무들에게서 뺏어들고 밖에 나와 전보대실에서 읽는 수진을 보여준 다음 그가 집에 편지보낼 생각으로 우표를 사러 가는 모습을 그리고있다. 그가 늘 다니던 잡화가게앞에 머칠사이에 《알리는 말씀》이 나붙었다. 개인의 가게가 생산판매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관할밑에 들었으니 거래 또는 매매 청산을 필요로 하는 손님은 조합사무실로 오라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이 묘사를 준 다음 수진을 다시 호실로 향하게 하였다.

얼마나 의의있고 생동한 세부묘사인가. 작품은 다른 설명과 세세한 묘사가 없이 이 하나의 평범한 세부로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승리적으로 진척되고있던 당시의 시대적특징과 사회생활을 집중적으로 그려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감칠맛 있는 세부묘사는 작품의 도처에서 찾아볼수 있다. 작품은 바로 이러한 세부묘사로 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의의있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그 문제가 개성의 뚜렷한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묘사속에 작가의 주정이 깊이 침투되어있으며 따라서 묘사에서 랑만적필치와 서정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묘사에서 일관하게 비유적수법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바 이것도 묘사대상에 대한 작가의 미학적평가를 형상적으로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특히 《가식과 위선의 너울》을 쓰고 표리부동하게 행동하는 림도식에 대한 묘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들이 흥미진진하게 읽게 되는것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함께 묘사와 문체에서의 이러한 개성적인 특성과 관련된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이와 같이 그 형상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감명깊게 그리었으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영웅적으로 투쟁한 로동계급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함으로써 평양건설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변과 그 힘의 원천을 심오하게 밝혀내었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려운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 땅위에 일대 비약과 기적을 창조한 상철이를 비롯한 주인공들의 영웅적투쟁을 빛나게 형상한 이 작품은 오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에게 귀중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또한 이 작품은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주인공들의 투쟁을 잘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된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힘있게 일떠서게 하는데서 커다란 고무적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그 높은 사상에 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훌륭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며 주체문학의 성과를 시위하는 자랑스런 결실로 된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대한 반향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대한 반향을 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혁명적소설문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그가운데서도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사회주의현실반영에서 거둔 혁신적성공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적소설문학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놓고있다.

위대한 전환의 해인 1958년의 력사적사변을 취급하고있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수도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킨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지금 이 소설은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독자들속에서 광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바 편집부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면서 혁명소설에 대한 좋은 의견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보내줄것을 바란다.

편집부

독자와 소설의 주인공

한웅빈

마가을밤.

급시 비 아니면 눈이 내릴듯이 흐린 하늘엔 별도 없다.

차창결은 추웠다. 문틈으로 제법 한겨울맛이 나는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차창결에 마주 자리잡고있었다. 잠못든것은 리상철, 잠든것은 그의 분대원이던 박수진이다. 이해 1957년에 군대에서 고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로동전선으로 떠난 8만명중에 속하는 두 제대병사들이다...

이것은 독자들이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주인공과 만나게 되는 첫 장면이다.

도대체 리상철이란 어떤 청년인가, 박수진은?

... 그리고 리상철의 걸음마다에서 새라새로이 나타나는 수다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독자들은 주인공에 대하여 어서 빨리 알려고 하며 주인공들의 생활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에 대하여도 주인공자신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한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동안 독자들은 주인공과 함께 생활하기때문이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독자들속에서 사랑을 받고있다. 소설에 대한 사랑은 곧 주인공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이 형상화하여야 할 새 인간들은 가는곳마다에 있습니다. 기계제작공장,

야금공장, 방직공장 등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과 어촌들에 수많은 천리마기수들이 있습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어디 가나 만날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매일 매시 각 독자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다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양시간》의 다양한 인물상을 이루고있다. 이모저모로 유심히 살펴봐도 특별한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바로 세계를 놀래운 《천리마속도》, 《평양속도》를 창조한 주인공들이다.

인간은 평범하고 해놓은 일은 빛나는 여기에 독자들이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

사실 리상철이나 박수진, 손월석 이들은 얼마나 평범하고 낮은 사람들인가. 기아와 빈궁의 소굴, 병마와 수마의 거처지이던 로성랑에서 태어나 자라난 리상철, 대문짝만한 역사탑시계와 전등불 《바다》 그리고 보통문앞강물에 놓인 징검다리에 놀라는 순진한 청년 박수진...

작가는 그들을 《평양시간》의 창조제로 이끌어 가면서도 결코 리상화하지 않았다. 우리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관철함으로써 건설에서 《평양시간》의 창조자로 되는 리상철은 실수를 모르고 모든것을 리성적으로 판단하는 완전무결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책을 읽고있는 독자들자신처럼 때로는 감정의 반발이 앞섬으로써 건설장을 떠날 결심까지도 하는

보통의 청년이다.

그러나 독자 자신은 주인공보다 먼저 건설장의 파분함을 느끼었고 림도식과 지태설의 터무니없는 모욕에 분개하였었다.

상철은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처럼 가까와졌다. 상철과 함께 토성량의 거친 홍수를 겪었고 반토굴의 높은 부엌에서 굴러난 어린애의 눈물을 씻어주었고 사업소 지배인인 관료주의자 림도식의 모욕에 순간적 감정으로 건설장을 포기한 독자들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건설일군들에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는 순간 상철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 동무들, 집이 없어서 전선에서 피흘리며 싸우던 우리의 용사들이 살림을 꾸리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싸운 자식들에게 살림집 한방씩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아들딸들에게 집을 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라고 하면서 살림을 꾸리지 못하는 제대군인들과 반토굴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신 아버지 수령님.

땅바닥에 그린 공상적인 떠다니는 집 그림에서 토성량 사람들이 겪어온 지난날을 헤아려보시고 가슴아파하시며 건국의 첫삽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여주신 친아버이사랑.

이 위대한 사랑이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이끌어 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뜨거운 눈물과 흐느낌에서 독자들은 이제부터 상철의 일생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보람차게 흘러가리라 믿는 것이다.

소설은 진실한 생활과 사건들, 생동하고도 진지한 형상으로 그것을 확증해간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전편에 걸쳐 일관되어 있는 인민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곧 독자들이 살며 활동하는 우리 사회를 일관하고 있는 풍만한 생활의 흐름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버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을 진실하게 그리었기 때문이다.

진실한 묘사는 독자와 주인공을 접근시킨다. 주인공은 독자와 가까와야 한다.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며 긍정적주인공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도 내재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류사한 측면을 찾는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긍정적주인공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는 내부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

게 되리라는 자신에 대한 일종의 기대 때문이다. 아름다움에로의 지향은 우리 시대 인간에게서 빼낼 수 없는 하나의 성격적 특질이다. 자신이 결함은 있을 지언정 아름다운 인간이며 더 아름다와질 수 있다는 것을 소설의 긍정적주인공을 통하여 느끼게 되고 믿게 될 때 독자들은 그 책을 사랑하며 즐겨 읽는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우리가 어디에 가나 만날 수 있고 친구로도 될 수 있는 인간들이다. 무슨 일에서나 주인공과 알뜰한 안오월, 모포 한장이면 눈우에서도 코를 끌고 흥미 있는 전투담으로 연필꽂다리를 바꾸기도 하는 유쾌한 손월석, 배포유한 채만집, 경망스러운 경팔이, 잔소리로 화를 돋구는 지태설반장, 행동이 얄미운 만큼 관심이 가는 기중기 책임운전공 배록주, 수집은 제 성미처럼 작품의 전편에서 한번도 얼굴을 쳐들지 않고 조용한 편지로서만 나타나는 정실이… 이들에게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언어 행동을 찾아보게 될 때 독자들은 이제껏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주위사람들이 아름답고 훌륭한 인간이라는 느낌- 이것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느낌과 마찬가지로 기쁨을 주고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사랑하게 하는 크나큰 힘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으로 될 수 있는 주인공- 그들은 독자들 속에 있다. 독자들 자신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독자들은 소설의 긍정적주인공에게서 자신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독자들과 가까운 주인공, 독자들이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주인공일 때 독자들은 주인공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민도 한다. 즉 함께 생활한다.

… 《그래, 더 달리구 더 바쁘구… 그렇겠지. 우리는 남들을 따라 앞서기 위해서 한가로이 살고 한가로이 일할 수 없는 시대에 사니까.》

그들은 마주보며 웃고 다리를 건너갔다. 눈이 내렸다. 이해에 마지막일지 모르는 함박눈이었다. …

소설은 끝났으나 독자와 주인공 사이에 맺어진 생활은 끝난 것이 아니다. 긍정적주인공은 독자들과 함께 계속 생활하며 독특한 자기의 미소,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으로 그들을 고무하고 위로하며 위훈으로 추동한다. 훌륭한 주인공의 진정한 생활은 책의 마지막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작가가 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토로한 소설이 독자들에 의하여 계속 《씨여질》 때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책일 것이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바로 그러한 책이다!…

주체적건설력사에 바쳐진 빛나는 화폭

김명익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 읽었습니다.

평양에서 나서 자랐고 병사시절을 보냈으며 그후 수도의 대학생으로 되었지만 인민의 락원도시에 깃든 위대한 사랑의 력사에 대해 다는 모르고 지냈으니 참으로 나는 이 작품을 펼쳐들었을 때 많은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느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설할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더 빨리, 더 값싸게, 더 견고하게, 쓸모있게 건설하는것이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건설을 조립식으로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건재생산을 강화하며 건설사업을 기계화하고 건설에서 기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이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새로운 현실발전에 상응한 주체적인 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평양시개건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던 1958 년을 전후하여 감명깊게 전개됩니다.

당시 종파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당의 건설정책에 대해 《시기상조》라느니 《조선에서는 할수 없다.》느니 하면서 온갖 방해책동을 놀았으며 한편 보수주의와 신비주의에 물젖은 소극분자들은 우리 나라의 공업발전수준에서는 건설을 공업화할수 없으며 전망적으로나 조립식이 가능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집한칸 못가지고 류량살이로 떠돌며 지지리도 못살아온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크나큰 사랑과 헤아릴수 없는 심려를 안으시고 하루속히 조립식건설에로 넘어갈데 대한 확고부동한 인민적인 건설방침을 밝혀주십니다.

하여 그전날 기아와 수마의 거처지로 원시적인 빈민굴들이 널려있는 지난날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볼수 있는, 넓은 땅우에 남아있는 최후의 지점이었던 보통강반에 비로소 새 력사가 장엄하게 펼쳐지는것입니다. 모든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이 작품전반에 줄기차게 맥박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소설의 예술적감화력은 자못 크고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숨결이 있는것입니다.

작품은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보통강에 깃든 후세에 길이 전할 불멸의 이야기들과 사변적인 사건들, 그 중심에 서있는 인간들과 그 인간들의 생활을 훌륭히 그려주고있습니다. 중심인물들 모두가 보통강과 뿔래야 뿔수 없는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로, 그들사이의 혈연적인 인간관계들로, 특히는 그 운명선들이 일치하게 보통강사람들을 두고 것처럼 마음쓰시며 세상에 다시없는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일관하게 련결되고 의탁되어있는것입니다.

해방후 어느 봄날, 어린시절의 리상철이 보통강 기슭에서 떠다니는 배우에 집을 짓는다면 큰 홍수가 난대도 집 잃는 재난은 면할것이라고 환상의 세계에로 노를 저어갈 때 토성폭을 걸으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린것의 공상을 가슴아프게 헤아려보시고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치는것입니까.

《지체없이 보통강개수공사를 벌립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올해 장마철안으로 공사를 해야 하겠소. ...물론 해방된지 한해도 채 안된 우리 형편에서 이 대공사를 해낸다는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국의 첫 사업으로 이 공사부터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수천년을 감탕속에 흘러온 보통강반에는 인민을 위한 전례에 없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의 첫 포성이 울리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수년에가 아니라 그해 장마철전으로 석달내에 완성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힘은 바로 인민에게 있으며 따라서 돈을 보고 돈을 믿을것이 아니라 인민을 믿고 그들을 꺾기시켜야 한다고 일군들을 깨우쳐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몸소 험한 개수공사장에 나오시여 력사적인 첫삽을 뜨시였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열려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세월에 인민의 재난을 이처럼 우려하시고 심려하시며 천지개벽시키신 우리 수령님과 같은 인민의 어버이가 계셨습니까.

나는 작품의 갈피갈피마다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가슴뜨겁게 느꼈으며 어버이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다시한번 심장속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건축설계가인 문화린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더 잘 알수 있습니다. 작품의 중요한 형상적위치에 서있는 그로 말하면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적 근성, 건축예술에 대한 유미주의적인 낡은 미학관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함때로부터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받들지 못한 심중한 과오가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문화란을 뜨거운 정치적사랑으로 포용하여주시고 중요한 설계가 제기될 때마다 그를 찾으시여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혈육의 정으로 보살펴주시면서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재능있는 당의 건축가로 키워주셨습니다.

실로 보통강반에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민의 감정에 맞게 인민의 편리를 도모하며 인민의 요구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한 아직 세상에 없는 훌륭한 도시가 일떠서기까지에는 그 언제나 다함없는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이 넘치도록 뿌려졌던 것입니다.

어느날 깊은 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시험 건설장에 나오시여 청년건설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들을 조립식건설에로 고무격려하여주시는 그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나는 오래도록 눈굽을 적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못살던 보통강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제일 사랑해주시며 보통강반의 새벽길, 보통벌의 진창길을 제일 많이 걸으시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사랑에 의해 7 천세대분의 목표를 뛰어넘어 2 만세대라는 실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새형의 조립식주택건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건설자들앞에서 우리의 건설은 곧 심각한 계급투쟁, 커다란 정치투쟁이며 건설혁명만 반드시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승리적으로 진행될수 있다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걷고 남들이 하루에 집 한채를 지을 때 열채 백채를 지어야 하오. 우리는 남의 기준을 가지고 일할수 없소. 남들이 열시간 하는 일을 우리는 한시간, 반시간에 해야 하오. 다른 나라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해서는 안되오. 우리는 우리의 시간, 평양시간으로 살고 평양시간에 준해서 계산해야 하오!》

한없이 숭엄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그이의 이 가르치심은 인민을 위한 창조와 건설은 어떻게 해야 하며 조선혁명업무를 어떻게 전진시켜야 하는가를 선언하신 주체조선의 의지와 기개와 지향이었습니다.

평양시간에 준해서 혁명을 하고 건설을 해야 한다는것은 집없이 보통강다리밑에서 태어나 토성랑의 움막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수천년동안 조상대대로 오막살이에서 살아오며 초가삼간집을 가장 리상으로 여기던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좋은

집들을 지어주시여 남들보다 지지도도 못살았던 이 나라 인민들을 제일 잘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 원대한 뜻, 사람중심의 위대한 주체사상에서 빛나는 해빛과도 같은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그 높이신 뜻을 받들고 우리의 건설로동계급은 마침내 16 분에 한세대씩 조립해나가는 《평양속도》를 창조합니다. 어린시절 떠다니는 집을 공상했던 그 언젠가는 건설장을 한갓 대학으로 가기전의 립시정류장으로 택했던바 있는 리상철이가 《평양속도》창조의 선구자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해 봄날 영광스럽게도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도 실명으로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리성준이 그이의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20 년만에 다시 눈을 뜨고 락원의 강변을 걸어갑니다.

그처럼 거대한 사변들로 수놓아진 1958 년 평양에는 또다시 휘황찬란한 보통강 대유원지 총설계도가 펼쳐지며 푸른 공원속에 새형의 도시가 솟아나게 됩니다.

오로지 영명하신 인민의 수령님이 계시기에 인민의 락원도시가 탄생하는것이며 평양시간으로 살고 평양시간에 준해서 혁명을 하는 주체의 나라 천리마조선의 기적적인 속도가 창조되는것이 아닙니까. 흘러간 수천년의 세월과 더불어 이 땅우에도 일찌기 하많은 전설이 있었다지만 진정 인민을 위한 단 한칸의 집이 이 하늘아래 세워진적이 있었습니까!

정녕 끝맺을수 없는 이야기, 주체적건설력사에 이로새겨진 불멸의 서사시적화폭들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 2 차 7 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며 천리마조선의 영예,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칠것을 호소하고있습니다.

당의 이 부름따라 계속 천리마의 정신, 속도전의 기세로 나아가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귀중한 사상정치적량식으로 되고있습니다.

나는 소설작품들을 통하여 수많은 친근한 벗들을 가지고있지만 혁명의 수도 평양과 더불어 주체적건설력사를 칭송하고 노래한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더더욱 사랑하며 그것을 자신이 주체사상을 생명력으로 하는 당의 문필전사로 준비하는데서 참된 교과서로, 친근한 길동무로 영원히 사귄것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학생

또 한번 《평양속도》의 주인이 되고싶다

김창락

소설을 읽을 때 독자들은 흔히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법박한 말로써 작품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이러나저러나간에 거기서 영향을 받게 된다.

《재미있는》 작품을 통하여 받는 영향은 더 말할 것없이 큰것이다.

나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커다란 흥분을 가지고 재미있게 읽었다. 책을 쥐면 마지막페이지를 볼 때까지 놓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바로 그러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문화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장을 넘기고났을 때 나는 가슴 후련한 공지와 함께 새로운 지향과 결심으로 하여 부푸는 흥분을 십사리 목새길수 없었다.

오래동안 건설부문에서 일해오면서 이제는 머리칼이 희여지는 나이이지만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읽고나니 그때의 정경이 삼삼히 살아오르며 마음까지 젊어지는것 같았다.

소설을 읽으며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한 생활을 더듬어가는것도 새롭고 흥미있지만 자기가 체험한 생활을 방불히 그려낸 생동한 화폭들을 보기관 열마나 즐겁고 의의있는 일인가.

1958년! 잊을수 없는 건설의 한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립식건설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평양건설자들은 3~4년이 걸려야 한다던 2만세대의 주택을 단 한해동안에 기어이 건설하여 조선사람의 기상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16분에 한세대를 조립하는 놀라운 기적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평양속도》라 부러움을 가지고 칭송했다.

장엄한 건설투쟁의 나날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일이 선하게 떠오른다.

작품에서는 그때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그제는 23분에 한세대!

어제는 21분에 한세대!

오늘은 19분에 한세대!

조립속도는 하루가 다르고 매시간이 다르게 높아졌다. 새로운 작업방법들과 합리화안,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였다. 조립공들은 더욱더 기민한 동작으로 불동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호흡을 맞추어 일

하였다.

시각이 다르게 기록수자가 변하는 속도장들이 게시판과 블록장들에 연방 나붙었다. 아침에 땅바닥에서 속보를 붙여놓았던 벽체가 한낮엔 마지막층 하늘가에 올라가 서고 땅바닥에 있는 다른 벽체에는 아침의 기록을 낡은것으로 만들어버린 새 성과를 적은 새 속도장이 나붙었다. ...

...평양건설자들은 전국, 전인민의 선봉같은 대지원에 고무를 받으면서 2만세대건설을 위하여 속도를 높였다.

평양건설장들에서는 건설혁명이 최고조의 길로 내닫고있었다. 조립식건설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고있었다. ...

소설에서는 정당하게도 조립식건설의 앞장에 선 청년건설자들을 생활의 중심에 놓고 형상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토성랑출신의 리상철은 어려서부터 가난의 밀바닥생활을 체험했고 해방이 되자 보통강개수공사의 력사적나날을 직접 목격하며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굳센 의지와 실천력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며 드디어 평양건설자로 되여 창조적로력투쟁에서 조선청년의 힘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그런 강 의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형상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며 당의 건설정책을 반대해나서는 온갖 낡은 사상과 부정적요소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없이 투쟁하는 원칙적인간으로 성장해간다.

작품에서는 생동하고 개성적인 성격을 다양한 인물군상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건설자로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자기 할 일을 언제나 스스로 찾아할 줄 아는 주인답고 성실한 안오월, 비록 첫 시기에는 건설현장에 애착을 붙이지 못하고 동요하나 자기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조립식건설을 위한 투쟁에 앞장에 나서는 박수진, 유쾌하고 활달하며 동무들과 쉽게 섞이는 손월석 등 작품에 등장하는 청년건설자들의 얼굴은 나에게 너무도 가깝고 낯익은 모습들이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읽으면서 나는 의롭고 아름다우며 진취적인 청년건설자들, 언제나 혁신의 앞장에 서서 달리고 또 달린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본다.

조립식건설을 힘있게 담보해준것은 당시 튼튼하게 마련된 강력한 물질적토대이기도 했다. 나는 그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지어놓은 수많은 부채공장들을 감회깊이 외워본다. 미림블록공

장. 평양블록공장, 동평양블록공장...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의하여 예견성있게 마련된 주체적건재공업기지를, 그이께서 조직해주신 강력한 건설기계화사업소들과 건설의 대부대들...

바로 이것은 《평양속도》를 창조할수 있게 한 물질적힘이었다.

조립식건설- 이제 와서는 너무도 험하고 평범하게 입박에 내는 말이 되었지만 작품에 옹게 묘사되어있는것처럼 그때에는 심각한 투쟁을 동반한 어마어마한 말이었다.

당내에 잠입해있던 종파분자들의 책동은 첫 타격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악랄하였다.

내가 건설성 자재관리국에서 일하고있던 때였다. 처음 조립식건설을 시작한 우리에게는 난관과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사실 한장의 필요한 규격의 블록이 없어 건설을 지연시킨 때도 드문했었다. 블록생산과 운반수단도 긴장했고 규격별로 되는 소요량을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는 문제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조립식건설은 모든 건설부대들이 치차와 같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갈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때 조립식건설을 방해하며 그 집행을 지연시켜오던 종파분자들이 이번에는 좌경적언사를 던지며 사업에 대해 구체적연구도 없이 교조주의적립장에서 일을 처리하려들었다. 그들은 성실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모욕하고 때어버리기까지 했다. 이자들은 폐외없이 사대주의병에 걸려 다른 나라의 경험과 방법을 입버릇처럼 말했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버리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건설혁명의 세찬 불길속에서 전진을 방해하던 낡은 사상의 모물들은 모조리 타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블록공장에서 부재생산이 긴장하게 제기될 때마다 현장에서 문미와 보, 기둥 등 각종 부호의 블록을 쳐서 많은 량을 스스로 해결해나가기도 했다. 참으로 벅찬 투쟁의 나날이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힘찬 건설투쟁모습을 그대로 과장없이 뜨거운 사랑과 자랑을 가지고 형상하고있다.

소설의 한 대목에서, 건설장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가슴을 무한히 뜨겁게 하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남들보다 뒤떨어진 우리가 남들도 하지 못할 방대한 건설을 단꺼번에 빨리 할수 있겠는가하고 한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우리는 남들보다 뒤떨어지구 남보다 못살았기때문에 남들처럼 천천히 할수 없소. 그렇게 해서는 언제가나 남들보다 뒤떨어지오. 우

리는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걷고 남들이 하루에 집 한채를 지을 때 열채 백채를 지어야 하오. 우리는 남의 기준을 가지고 일할수 없소. 남들이 열시간 하는 일을 우리는 한시간, 반시간에 해야 하오. 다른 나라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해서는 안되오. 우리는 우리의 시간, 평양시간으로 살고 평양시간에 준해서 계산해야 하오!》

그이의 이 말씀은 건설자들에게 비약의 날개로 되어 천리마속도, 《평양속도》으로 한달음에 날아오르게 한 위대한 정신적힘이 아니었던가.

돌이켜보건대 평양의 어느 건물 어느 주택 치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닿지 않은것이 있으랴. 우리 건설일군들이 만든 도시형성모형도를 보아주실 때마다 한채한채 건물의 위치와 층고, 그 주위풍경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아버지수령님. 못살던 우리 인민이기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설계가들에게 더 대담하게 통이 크게 생각해보라고 타이르시는 아버지수령님 ... 참으로 건설의 나날을 돌이켜볼수록 감회가 새로와진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건설일군인 나에게 있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하는 동시에 오늘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초소를 지켜서있는가 하는 자각을 안겨주고있으며 《평양속도》를 창조하던 그때의 열정과 기백으로 살것을 가르쳐주는 나의 사업과 생활의 고마운 방조자, 친근한 길동무로 되었다. 제 2차 7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선 우리 평양시 건설자들에게는 영예롭고 아름다운 과업들이 수없이 제기되고있다.

나는 새 7개년계획 수행후에 몰라보게 변모될 평양을 눈앞에 그려볼 때마다 가슴속에 차오르는 기쁨과 자랑을 금할수 없으며 새 과업에 착수하는 흥분으로 하여 마음이 설레이는것을 느낀다.

평양건설의 설계도는 웅장하다. 그때에는 동평양 지구에 현대적인 새 거리가 일떠설것이며 대를 두고 자랑해야 할 기념비적건물들과 위력한 공장들이 수없이 일떠설것이다. 거리와 거리들은 몰라보게 달라질것이며 수도시민들에게는 아담하고 현대적인 새집들이 더 많이 차례져 하나의 조형적미를 갖춘 새 도시에서 더욱 문명한 생활을 누려가게 될것이다.

나는 이 모든 웅장한 계획이 가까운 앞날에 현실로 전변되리라는 확고한 신념속에 또 한번 《평양속도》의 주인이 되리라 굳은 결심을 다지고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우리 건설자들에게 오늘도 래일도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면서 참다운 벼으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평양시 건설총국 경제계획처 부처장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지배인과 나

강익근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지배인인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교과서라고 말할수 있다.

지배인, 물론 직무상 시간이 바쁜 사람이다. 나는 바쁜가운데서 시간을 내어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두번씩이나 읽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인민들이 문학작품을 낫잡이나 자는 대신에 심심풀이로 읽는것이 아니라 생활을 더 깊이 리해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보통사람들의 고매한 정신에서 배우며 인류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신심을 얻기 위하여 읽는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서 교훈을 찾게 하는데야 어찌 읽지 않겠는가.

나는 오늘아침에도 부재생산조직과 관련한 참모회의에서 총막부재(다공판)를 좀 더 경량화할데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던중에 저도모르게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주인공들에 대하여 한참이나 말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리상철이와 수진이, 월석이들... 그들은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어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했고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는 조립식건설에 앞장서 나갔다.

얼마나 간고한 시련속에서 조립식건설을 다그쳐갔는가! 소설의 주인공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나는 보고있다.

그러나 림도식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배인 림도식, 나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역시 지배인인 자신의 위치를 새삼스레 돌이켜보게 되는것이다.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러했고 조립식건설에 쓰일 여러가지 부재를 생산하는 작업현장을 돌아보면서

도 나는 자주 마음속으로 림도식지배인과 말을 주고받는다.

...림도식, 당신은 지배인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제때에 받아들이지 못한 문화련이가 과오를 범했다고 하여 초당성을 내두르면서 그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내통한 사람으로까지 몰아대면서 열성을 보였지? 그런데 지배인으로 되어서는 어떻게 태도를 바꾸었는가?

림도식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나의 눈앞에는 그의 번질번질한 역겨운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가 대답하는 말소리를 듣는것만 같다.

계획을 직접 책임진 내가 조립식건설을 해본 경험도 없고 더우기는 외국의 경험에도 다공판부재라는것은 써본 일이 없는데 무슨 용단을 가졌다고 나서겠는가, 그러다가 잘못되면 의례히 지배인인 내가 책임질것이 아닌가.

책임! 남이 그 일을 안했을 때는 책임이 없기때문에 비판하고 자기가 하게 되었을 때는 책임이 두렵단말이지.

이런 논쟁은 유익한것이였다. 소설에 나오는 림도식지배인은 사대주의자이며 형식주의자이며 요령주의자이다. 그는 웃사람들에게는 아첨하고 아래사람들에게는 호령하는 무서운 관료주의자이다. 이런 인간들은 혁명을 생각하기전에 먼저 자기를 생각한다. 림도식과 같은 지휘일군들이 우리 혁명의 전진을 어떻게 가로막았는가는 우리 공장에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당시 조립식건설을 반대하여나선 종파분자들은 조립식건설부재생산을 위하여 건설된 우리 공장을 해산해버리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종파분자들은 나라사정을 운운하면서 우리 공장을 그 어떤 다른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자그마한 지방산업기업소로 만들려고 서둘렀다. 그때 우리 로동자들은 리상철이나 수진이들과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설방침을 받들고 종파분자들과 필사적으로 싸웠

다. 종파분자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모해하여 멀리 쫓아내기까지 하였다. 우리 공장에서 받게 되어있는 기계와 자재를 다른데로 돌렸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공장의 설비들을 하나하나 꾸려나갔고 드디어 첫 조립식건설용 부재를 생산해냈던것이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종파분자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굴함없는 투지앞에서 드디어 쫓겨나고말았다.

그때로부터 우리 공장은 혁명의 수도 평양시 건설에 쓰이는 부재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였다. 소설에서 보는것처럼 보통벌을 건설한 부재도 우리가 생산하였고 그후 천리마거리, 비파거리, 락원거리 등 수도의 거의 모든 건설장들에 쓰이는 부재를 담당했던것이다.

오늘의 우리 평양, 우리 조국의 심장은 이렇게 일떠선것이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간고하고도 보람찼던 지난날의 가지가지 추억들을 너무나도 생생히 돌이켜주는 작품이다. 자그마한 하나의 주택건설장을 둘러보아도 거기서 일하고있는 건설자들의 생활을 살펴보아도 그것은 틀림없는 우리의 건설장,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었다.

《참 신동하군, 정말 방불하구나!》

나는 소설을 읽으면서 몇번이나 무릎을 치고 속으로 감탄하였는지 모른다.

우리 건설자들은 바로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살아왔다. 우리에게는 성공의 기쁨도 실패의 쓰라림도 많았다. 나는 수도의 거리를 무심히 바라볼수가 없다. 어쩐지 마음이 경건해지고 목메이는 걱정으로 눈굽이 뜨거워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건설자들이 피와 땀으로 일떠세운 수도의 거리다! 나는 불현듯 스무해전 청년 시절로 돌아가 사랑하는 우리 주인공 상철이들과 함께 수도의 거리를 바라본다. 우리는 그때 오늘과 같은 행복한 미래를 공상하며 벽돌지계를 지고幢막부재를 조립하였다. 그때의 팔팔한 젊은이들이

지금은 반백의 《아바이》들로 되었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위훈에 대한 추억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평양시간》은 수도의 건설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많은 사람들로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더 빨리 앞으로 앞으로! 가라고 호소하고있다. 우리는 웃으며 기꺼이 그 뜨겁고도 열렬한 호소에 호응할것이다.

나는 소설의 주인공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들은 위훈과 생활의 창조자들이다.

우리 공장에는 상철이나 수진이, 월석이 같은 청년들도 많다. 나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읽어나서 바로 다름아닌 우리 공장 청년들을 더 잘 이해한듯싶었다. 나는 그들이 금시라도 상철이처럼 영동한 기술혁신안을 들고와서 나를 깜짝 놀래울것만 같은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월석이 같은 쾌활한 청년이 느닷없이 우리 집에 뛰어들어 《지배인동지, 한상 좀 톡톡히 차리십시오. 이거 어디 쿨쿨해서 건디겠습니까?》하고 나를 마구 졸라덜것만 같았다.

나는 불현듯 행복한 생각에 잠기고만다. 나는 리상철이나 손월석의 지배인으로 되고만것이다.

그러나 림도식이 같은 지배인으로서는 되고싶지 않다.

소설은 나에게 심각한 생활의 교훈을 안겨주며 경종을 울리기도 하는것이다.

《평양시간》은 행복한 사람들의 생활도 실패한 사람들의 교훈도 이야기하고있다.

생활이 가르쳐준 진리와 교훈은 언제나 강한것이다. 나는 《평양시간》의 주인공들처럼 언제나 그렇게 굳세고 보람차게 열정에 넘쳐 일하기를 희망한다.

제2차 7개년의 높은령마루를 향해 새로운 진군길에 나선 우리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우리 시대의 훌륭한 청년들- 상철이, 월석이, 수진이, 오월이들이 길동무로 나서준것이 기쁘다.

평양 미림부재공장 지배인

단편소설의 세부묘사와 형상의 질

리병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단편소설에서 세부묘사는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내기 위한 기본단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68년 10월 9일 예술영화 《한 녀공작원》을 보시고 사형장을 그린 장면에서 군중들을 잘 처리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맨발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녀공작원에게 할머니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신겨주는 장면같은것은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종자의 요구에 맞게 혁명가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뚜렷이 밝힐수 있는 계기에서 적중한 세부묘사를 하는것은 천만마디의 설명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커다란 감동을 주는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주제사상을 심화시킬수 있는 문제성있는 생활세부를 선택하고 그를 비판복적인 생동한 표현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세부묘사속에 주어진 하나하나의 어휘표현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여기에 진실성과 생동성을 부여해야 한다. 만일 작가가 안일한 태도로부터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가 없이 긍정적인면이건 질은 눈섭과 꼭 다문 입술로, 그가 녀성이면 긴 속눈섭을 가진 영채도는 눈으로, 혹은 수줍음은 귀밀이 빨개지며 웅심깊음은 우묵한 눈이며 답답함은 숙불은 이마이며 감격하면 뜨거운것을 삼키는 식으로 흔히 쓰는 일반적표현만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산 인간을 그리는데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것이다.

세부묘사의 생동성과 진실성은 류형화된 도식적 표현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활과 밀착된 개성적이고 비판복적인 표현에 의하여 담보된다.

단편소설 《영원한 기발》(최창학, 《조선문학》 1975, 11호)에서는 세부묘사의 생동성과 진실성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귀감이신 김정숙어머님의 고결한 사상과 품모를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연속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인상깊게 안겨온다.

《송풍식당》에서 벌어진 길손들의 이야기판에 대한 세부묘사는 아주 생동적이다.

《이야기는 식탁단위로 벌어졌으므로 단연 이채를 띤것은 딸네 집에 간다는 그 할머니와 신랑신부가 앉아있는 식탁이였다.

누구보다도 말수더구가 많고 수선을 떠는 품이 입심이 톱톡치 않을 할머니가 신랑쟁이 무릎을 탁 치며 물어보았다.

<본가에 데려다주는 길인가?>

신랑은 얼굴이 벌개지면서도 아주 버젓이 대꾸했다.

<저희 집으로 데려가는 길입니다.>

<임잔 어디 내긴데?>

<저 봉산리 농장원이외다.>

<새각신?>

<함흥내가지요.>

<음, 산골내기가 도시체넬 데려가우 야?>

할머니는 거참 잘한다는 뜻으로 신랑의 무릎을 또한번 치고나서 한오리 의혹을 담은 눈길로 신부를 뜯어보았다.

<난 거 모르겠더라. 전엔 대처에 나가질 못해 안달아했는데... 요샌 도회지치너들이 우리 벽촌에두 시집을 온다니까...>

보는바와 같이 극히 함축된 표현과 생활적대화는 한 할머니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부각시켰다. 입심이 톱톡치 않으며 말수더구가 많고 수선을 떠는 모습에서 얻어진 일반적표상은 신랑쟁이 무릎을 탁 치며 물어보는 그의 적극적인 행동묘사를 통하여 심화되었으며 여기에 개성적인 대화가 적중히 결합됨으로써 팔팔한 성미를 가진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안겨온다. 이러한 생활적인 묘사의 생동성으로 하여 독자들도 직접 이야기판에 잠겨 길손들과 함께 웃게 되는것이다.

세부묘사가 아무리 생동하다 하더라도 작품에 심어진 종자의 특성과 주제사상적목적에 맞게 통일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종자를 움트우고 자래워 형상의 꽃을 피우는 과정이란 결국 세부묘사를 옹계 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만일 작가가 세부묘사의 정확성과 생동성에만 관심하고 그들간의 논리적연관성과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작품의 목적지향성을 잃게 되며 따라서 높은 사상에술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어떤 세부묘사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 하는것은 단편소설일수록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는 구성작업

의 하나이다. 그것은 모든 세부묘사들이 서로 다른 표현적기능을 수행하기때문이다.

세부묘사가 중요하다고 하여 단편소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벌려만 놓으면 세부묘사의 비대성으로 하여 작품의 종자를 호호하게 하며 반대로 사건발전과 내용의 특성에 고려없이 지내 적게 하면 세부묘사의 빈곤으로 형상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때문에 작가들은 작품을 창작하면서 세부묘사의 질과 그 위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것이다.

우에서 인용한 세부묘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의가 없다. 신혼부부를 놓고 벌어진 이야기장면의 목적은 로력혁신자인 방직공처녀 연속이가 어떻게 되어 산간오지에 자리잡고있는 송풍식당에서 《접대원》을 하는가를 밝히는데 있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신혼부부가 등장하며 그들의 행방에 대한 할머니의 질문이 놓이였다. 만일 신혼부부에 대한 할머니의 질문이 그들의 행방이 아니라 그 어떤 경제건설형편이나 교향소식이였다면 완전히 불필요한 세부묘사로 되었을것이다.

이 세부묘사를 통하여 독자들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혁명의 초소를 옮겨가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감동을 가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를 덜어드리는 일이라면 그 어떤 초소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종자의 요구를 파악하게 된다. 이 세부묘사는 어디까지나 주인공에 대한 기본묘사에 종속되는 조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까닭에 구성상 첫머리에 놓고 할머니나 신혼부부의 형상을 그이상 더 전개시키지 않았다.

단편소설에서 세부묘사는 산 유기체의 세포조직들과 같이 작품구성의 전일성속에서 생생하게 살고 있어야 하며 함목적적인 인과성속에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단편소설을 창작하는 작가에게는 생활적이고 참신한 세부묘사를 하기 위한 많은 창작적사색과 창조적탐구정신이 필요하다. 세부묘사로 처리해야 할 생활적내용들은 끝없이 많다. 등장인물들의 얼굴과 몸가짐이며 그의 행동과 심리상태는 물론 사건과 환경, 자연의 미묘한 변화와 생활세태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필요한 묘사대상들이다. 무엇을 묘사하든지 주체의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단편소설 《기쁨》(정성훈, 《조선문학》 1976, 3호)을 실례로 들어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벼시험포전을 돌아보시고 새 품종의 탄생을 기뻐하시였을 때 새 품종의 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이의 미소에 온 들이 밝아지고 산천이 밝아졌다. 어버이수령님의 미소의 빛을 받은 수만수억의

이슬머금은 벼이삭들이 눈부시게 빛났다. 세상에 태어난 첫새벽에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은 새 품종의 알알들에 맺힌 이슬방울마다에는 온 우주가 비껴있었다. 가벼운 새벽바람에 이삭들이 설레이며 탄생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속삭였다.

랑만적정서로 채색된 이 세부묘사에서 우리는 새 품종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를 감명깊게 련상할수 있다. 창작실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단편소설의 세부묘사는 그 표현형식에서 끝없이 다양하다.

단편소설 《꽃버치》(류정옥, 《조선문학》 1976, 4호)에서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전진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오석필직장장의 정신적모대김과 그의 사상개조과정이 여름날 비바람에 대한 의인화된 세부묘사를 통하여 실감있게 안겨온다

《...오석필은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바람처럼 앓아있다. 마치 그 모습은 등글자갈들만이 깔린 강변에 외롭게 앓은 커다란 나무등걸에 농립모를 씌워놓은듯했다. 그러한 모습에 내기나 걸듯이 갑자기 비구름을 실은 새바람이 휘-익 불어왔다. 바람은 모자 한쪽을 들었다놓으며 삐뚜로 씌워놓았다.

오석필은 모자를 꼭 눌러놓았다.

바람은 이겼다고 기승이나 부리듯 한번 더 휘몰아쳤으나 눈덕까지 내려덮은 모자를 더는 들지 못하고 전만 날렸다.

눈덕까지 모자를 내려쓴 오석필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강물에 비친 찌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보기조차 역겨웠던것이다.》

낡은 밀짚모자를 기어이 벗기려는 새바람과 그것을 사정없이 두드려대는 소나기, 소나기를 피해가는 조무래기들의 부르짖음에는 로쇠병에 걸린 오석필직장장으로 하여금 낡은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고치고 하루빨리 3대혁명의 거세찬 흐름속에 뛰어들것을 열망하는 시대적요구가 암시되어있다.

이렇듯 비바람의 묘사는 오석필직장장의 낡은 사상의 개변과정을 생활과 밀착시켜 보여준 세부형상의 진실성으로 하여 오직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 불타는 일군만이 인민의 참다운 총복으로 될수 있다는 종자의 요구를 꽃피운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으로 될수 있었다.

단편소설의 세부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사를 옹계 사용해야 한다.

명대사는 몇천몇만마디의 설명보다도 더 등장인물의 정치적식견과 사업작풍, 문화도덕적수양을 집중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단편소설 《위성들》(장수근, 《조선문학》 1976,

8호)의 주인공 마진옥이가 고갈봉의 다락발건설 전투를 지휘하면서 백화점지배인과 식료공장지배인에게 한 말은 높은 정치성을 체현한 개성화된 표현으로 하여 감동적으로 안겨온다.

《그들의 분들이 82미터 박격포라면 군식료공장이나 백화점은 122미터 곡사포가 아니겠소. 왜 팡팡 원거리지원사격을 못하는가말입니다. 제 우물만 들여다보지 말고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전투기자재에 비유하여 표현한 이 말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구현하고있는 군당책임비서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부각시켜준다.

대사의 높은 정치성은 정치적문장의 생경한 라벨에서가 아니라 형상으로 부각된, 다시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에 불타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 깊은곳에서 우리나라오는 높은 사상정치성에 있다.

정치성이 강한 대사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주체시대의 높이에서 진실하게 보여주는 철학적심오성으로 하여 종자를 꽃피우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단편소설창작에서 대사의 질을 높이려면 정치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생활론리의 불가피적인 계기에서 필연적으로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일 작가가 성격론리를 무시하고 대사를 임의로 무질서하게 배열한다면 생활과 밀착되지 못한 허황성으로 하여 진실성을 상실한 맥빠진 말로 되고말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68년 1월 8일 예술영화 《은파산의 일가》 제1부를 보시고 주신 교시에서 세포위원장이 해야 할 말을 어머니가 하였기때문에 진실성을 약화시켰다고 가르치시였다. 단편소설일수록 대사는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생활과 밀착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정황에서는 바로 그 인물이 바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

적계기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한다.

단편소설 《위성들》에서는 태양을 옹위하고 도는 위성들의 궤도를 밝혀야 할 종자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마진옥이에 대하여 여직껏 물어왔던 서영찬의 의혹을 더는 지속시킬수 없는 극적계기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를 주었다.

《들어보겠소. 영찬동무! 이따금말이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소. 우주가 영원하고 지구에 생이 깃든지도 몇억년이라고 한다 하나 이 지구가 어느 시기에 우리의 수령님과 같으신 그런 위대한 영재를 모시고 제 궤도를 움직인적이 있었던가.

앞으로도 인류는 마땅히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러러모신 우리의 세기를 대를 두고 영원토록 부러워할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 시대에 산다는 이 행복!》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이 뜨겁게 울리는 마진옥이의 이 대사는 생활과 밀착되어있으며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토대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서영찬에게뿐만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뜨겁게 심어주는 감격적인 대사로 되였다.

단편소설에서 뜻깊은 대사는 높은 정치성을 가지고 시대의 본질을 예리하게 반영하는 철학적심오성과 인간의 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개성화된 비반복성에 의하여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펼쳐보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상수단으로 된다.

작가들은 세부형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제2차 7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할것이다.

지상토론

사회주의농촌의 서정과 시인의 탐구적자세

박연경

해마다 만풍년을 노래하면서 농업생산의 진군길을 충성으로 빛내이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충성의 기수-당의 농업전사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며 그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그들이 발휘하고있는 모든 영웅적위훈의 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우리 시대 인간의 자각된 높

은 사상정신세계가 자리잡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어제날에는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면서 력사의 대

상으로만 간주되어온 농민들이 오늘은 한없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내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역사의 창조자로 역사무대에 당당히 등장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자랑스런 화폭에 곳곳이 자리잡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2년간의 역사! 그것은 곧 조국의 대지에 수놓아진 위대한 사랑과 불타는 충성의 서사시이다.

태양의 은혜로운 빛을 받으며 땅이 꺼지게 잘되어 설레인것은 황금과도만이 아니다. 땅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의 농민들은 또한 얼마나 몰라보게 자라난것인가!

주체형의 혁명가- 농업근로자들은 자기들에게 땅을 주시고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호모의 정을 안고 그이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직할 불같은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와 같은 끝없는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농업근로자들의 기본 표징으로 되며 따라서 그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을 잘 보여주는것이 그들의 사상감정을 밝혀내는데서 기본문제로 된다.

지난기간 우리 농민들이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한 것도 오늘 공산주의농촌의 리상봉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것도 바로 그들의 가슴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이 소용돌이치고있기때문이다.

런시 《위대한신 품에 안겨》(김정곤, 《조선문학》 1976, 3 호)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사상정신세계를 비교적 깊이있게 밝혀낸 좋은 시라고 생각한다.

한때기 제땅이 없어 기구한 운명에 시달리던 한녀성이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의 주인이 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온 농장의 수확량을 책임진 경영일꾼으로, 한 나라의 대의원으로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고있는 시대적화폭을 시적으로 재현하였다.

이 시에서 어머니가 걸어온 길, 그것은 조선의 농민들이 걸어온 길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문제, 농민문제 해결의 축도를 련상케 한다.

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살며 투쟁하는 길, 영원히 그이께 충성다하는 길, 바로 이 길만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가는 길이라는것을 시적으로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형상적요소들을 집중시키고있다. 하기에 런시전반에서의 사상감정의 주도적흐름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와 열렬한 신뢰의 정으로 관통되고 있다.

런시는 비교적으로 폭넓은 시대적생활을 노래하고있지만 사건이나 생활사실을 라렬하면서 론리적으로 재단한것이 아니라 시줄과 시줄, 련과 련 사이

에 함축과 비약을 주면서 서정전개에서 탄력을 보장하고있으며 하나의 시어마저도 헤프게 쓰지 않았다.

이 시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에 대한 지향이 뚜렷한 주인공을 시적구성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가 체험하는 사상감정을 시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얻어진것이다. 즉 보통사람- 한 농촌녀성이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배려속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에 체험하는 사상정신세계를 사실주의적으로 밝혀내었기때문에 달성된 성과이다.

런시 《위대한신 품에 안겨》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미학적 서적인 견인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문학의 세계에 이끌어나간다. 이러한 형상적감화력은 생활의 사건적인 룹락이나 외형적인 특징만을 강조한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활의 중심적위치에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끝없이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추구함으로써 보장된것이다.

런시 《위대한신 품에 안겨》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화, 신조화하고 새 사회, 새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실천투쟁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어가는 어머니의 성격을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제 걸음으로 들어선 길이 아니다
오, 아니다!
주검처럼 시꺼먼 굴욕의 나락에서
광명의 언덕으로 안아세워주신 위대한신 품

아버이수령님 품에서
그처럼 도도한 걸음씨와 권리와 존엄을 받았고
그 품에서 쏟아져내리는 주체의 빛으로
그처럼 맑은 눈과 담력과 미래를 지니였으니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존엄있는 투쟁과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혁명적진리가 얼마나 격조높이 울리고있는가! 우리는 이 한편의 시를 통해서도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역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맥박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런시 《위대한신 품에 안겨》는 시어의 구사와 시문장조직에서도 함축과 비약으로 서정적감정선의 굴곡과 탄력을 보장하고있는 긍정점을 보게 된다.

땅!
장군님 주신 내 땅
삼천평!

어머니는 이 밤에

다시 만져보고 쓸어보고
흙을 쥐어 또 말아보고 품어보고...

토지개혁에 의하여 난생처음으로 땅을 분여받은
날 밤 어머니의 격동된 심정을 그려낸 이 시적표현
을 아마 수백마디의 말로도 대신하기 어려울것이다.

얼핏 보기엔 이 시문장이 행동과정에 대한 외형
적묘사에 치우친듯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시인의
정서에 의하여 채색된, 어머니의 감정세계에 완전
히 융해된 외부세계의 묘사인것이다.

시 《이 땅이 나의 조국이다》(동기춘, 《조선문
학》 1975, 9 호)는 오늘 농업근로자들이 피땀한 과
거를 잊지 말며 땅을 주시고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
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
로 보답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가야 한다는 의의있는
문제성을 시적형상의 파제로 설정하고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해명하였다.

시인은 땅, 이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계급과 자
주성의 징표라고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땅- 이것은
곧 조국이라는 시적일반화를 주고있다.

시인은 땅과 얹혀있는 《나》-서정적주인공의
운명을 심각한 극적체험세계에서 펼쳐보이면서 그
것을 예리한 시적의미로 조명하여 시대적서정의 높
이에까지 승화시키고있다.

시의 첫부분에서 《땅은 흙이었다》고 전제한 이
시가 결국에 가서 《땅은 흙이 아니었다》고 응결된
서정의 결정체를 토로했을 때 우리는 시인이 제기
한 기본문제-열정적인 시적주장에 완전히 공감하
게 되는것이다. 시인이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
활을 대하였거나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사상정신세계를 정면으로 파고들지 못했더라면 결
코 이런 시적세계를 체험하지 못했을것이다.

시인이 생활을 노래한다고 할 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생활속에 구현된 정치를 노래한다는것을 의
미한다.

시 《이 땅이 나의 조국이다》가 참신한 형상의
꽃을 피울수 있다는것은 무엇보다도 시인이 우리
시대의 생활에 대한 깊은 철학적사색을 거쳐 자주
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이 누리는 참된 생활의 의
미를 진실하게 서정화하였기때문에 얻어진것이다.

이 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정적주인공- 농업근
로자들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불같은
충성심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주인공의
성격창조에서 핵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천만년 충성하며 이렇듯 살고싶기에
너를 지켜 아낌없는 피도 뿌릴
아아, 이 땅
이 땅이 나의 조국이다!

땅의 주인, 나라의 참된 주인된 서정적주인공의
높은 계급적자각과 긍지감은 이 시의 주도적인 사
상적기백을 이루고있으며 바로 이러한 서정적주인
공의 성격속에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니고있는 정치
적생명에 대한 문제의 예술적해명이 주어지고있다.

창작경험은 시인들이 농촌주체들인 경우 기계화
의 동음에 쉽사리 흥분하거나 금나락 설레이는 전
야의 흐뭇한 정경에 눈을 팔며 섭취하기전에 먼저
그 중심에 서있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새 인간-
주체시대의 농업전사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
신적품모를 심장으로 느끼고 통감할 때 좋은 시를
쓸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주체형의 혁명가- 농업근로자들의 시대감정을
진실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또한 온 나라의 이르
는곳마다에서 세차게 타변지고있는 3 대혁명붉은
기쟁취운동을 심도있게 형상해야 한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
는 혁명적구호밑에 협동농장들에서 힘차게 벌리고
있는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사상미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
그치며 당면하게는 농업전선을 힘있게 고무하는데
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 대혁명붉은기쟁
취운동을 세차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
에 대한 농업근로자들의 끝없는 충성심이 집중적으
로 표현되며 시시각각으로 새형의 인간을 탄생시키
는 혁명적현실은 시인들이 이 주제분야에 더욱더
필봉을 돌릴것을 요구한다.

특히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전초선에 서있
는 혁명전위- 3 대혁명소조원들의 높은 정신세계
를 시적으로 일반화하는것은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시 《어버이 심려를 덜어드리는 처녀》(조빈,
《조선문학》 1976 년, 3 호)는 이 주제분야에서 참
신하고 진실한 서정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에서 시대의 전형으로서
의 청년지식인- 대학생처녀의 가룩하고 생기발랄
한 성격과 만나게 되는것이 기쁘다. 우리 시대의 청
년지식인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
상으로 무장한 새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며 최신
과학기술을 소유했을뿐아니라 새것을 좋아하고 혁
명성이 강한 주체형의 혁명적새세대들이다.

이 시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신작척하는 혁명소조
원- 대학생처녀의 미더운 얼굴을 본다.

해불처럼 타오르는 너의 심장파
흐르는 개울처럼 언제나 맑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부르며, 함께 가고, 이끌어주는 ...
농장원들속에 언제나 네가 설 자리 찾을줄 아는
수령님 사랑속에 태어난 새세대여

이신작척하는 주체형의 새세대- 3 대혁명소조원
의 성격적미가 절절한 서정의 흐름을 타고 우리의

가슴속에 깊숙이 젖어든다.

시인은 이러한 혁명전위- 대학생처녀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이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싶어 아글타글 애쓰는 가뜰스한 마음,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에 있다는것을 세련된 서정구조로 설득력있게 일반화하였다.

.....

충성으로 피여오른 행복의 너의 웃음이
오늘도 온 나라를 향해 마주웃는구나

시의 이러한 결구는 《산촌의 새벽처럼 청신한 너의 웃음, 떠오르는 아침해와 마주 웃는다》는 첫련과의 대조속에서 주제사상적지향을 명백히 하였다.

시 《아버지 심려를 덜어드리는 처녀》의 시어들은 시인의 후더운 숨결에 의하여 채색된 언어로서 하나하나의 모든 시말마디와 표현들이 언어학적인 풀이말보다 훨씬 폭넓고 깊은 뜻을 나타내고있으며 최대의 회화성을 살리고있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끝난 길이 휘여오른 푸른 밭》, 《개울가 버들이 비낀 논판》 등 묘사적수식으로 된 시구절들은 《다락밭》, 《수리화》 등 대상의 객관적표식을 그대로 론리적으로 규정한것이 아니라 시인이 묘사대상을 주정화하여 형상적으로 규정한것으로서 별방부럽지 않게 꽃피여가는 묘향산기슭의 농촌마을을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이리하여 이 시구들은 위대한 자연개조의 벅찬 투쟁과 주체농법의 생활력까지도 정서적으로 음미할수 있게 하였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밝혀내려면 또한 시적정황에 대한 문제를 론의하지 않을수 없다.

서정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황설정을 하는 경우라면 그 시적정황과 서정을 통일시켜 서정조직의 치밀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적문제리론은 생활을 그리는데 있어서 정황을 홀시하면 성격이 잘 살지 못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시 《청산벌의 봄》(홍창원, 《조선문학》 1976, 2 호)은 시적정황과 서정의 통일속에서 사상주제적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였다.

온 나라에 봄을 주고있는 청산벌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웃으며 소리치며 달리는 청산리사람들- 농촌혁명가들의 생활락천적기백이 한쪽의 수채화처럼 선명하게 안겨오는 전형적인 농촌환경에서 힘차게 뿔어오르게 하였다.

저봐라, 봄날의 장쾌한 눈석이 먼저
《풍년》호프락뜨르 땅에 장훈을 부르고,
온 청산벌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봉화 높이 들었소

자연과 사회의 주인된 자각과 긍지 드높이 봄을 앞당겨가는 청산벌사람들의 자랑과 기쁨이 민족적정서의 그윽한 정취에 실려 혁명적랑만의 나래를 펴고있다. 서정시가 들끓는 생활현실과 그 생활의 한복판에서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성격적특질을 뚜렷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사상감정을 환기하는 전형적인 시적정황을 옮겨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시적정황의 정서적분위기 그자체는 아직 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형적인 정황을 설정해야 그속에서 체험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전형적인 사상감정과 서정적성격의 핵을 뚜렷이 드러낼수 있기때문이다.

시적정황설정과 관련하여 다만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이것저것 시각적대상을 잡다하게 라렬하면서 정황과 서정을 밀착시키지 못하고 《분위기》 그 자체를 《시》로 대치하려는 경향인것이다.

레하면 자연개조 5대방침을 받들고 조국강산을 주체의 락원으로 변모시켜가는 자연정복자들을 노래한다고 하자. 이때 자연개조의 위대한 생활력을 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천지개벽하는 농촌정경을 묘사하면서 발전하는 사회주의농촌의 모습을 화폭으로 펼쳐보일수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장 힘있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있는 인간-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높이에서 서정화된 객관세계- 농촌정경이어야 할것이다. 만약 자연개조 주체의 서정시에서 변모하는 농촌현실을 의형적으로 라렬하고 그것을 기록주의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친다면 아직 서정시라고 할수 없다. 자연의 위대한 정복자- 주체형의 농촌혁명가의 사상감정속에 용해된 객관세계라야 할것이다. 정서화되어나온 사상감정이 없이는 시가 될수 없기때문이다.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이 정치적생명을 제 1 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농업근로자들의 사상감정을 깊이 추구하며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그들이 체험하는 생활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릴줄 알며 반드시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사상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시가문학으로 되어야 한다.

시 《농장의 가을밤》(황명성, 《조선문학》 1975, 12 호)은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마련된 대풍의 기쁨과 행복을 참신한 시대정서로 일반화하였다. 무르녹는 난알의 향기가 하늘끝에 닿고 등등 떠오르는 달도 금빛으로 물드는 좋은 계절에 《벌에 들에 난알의 향기 넘쳐나서 사람의 마음조차 웃음으로 익어가는 농장의 복받은 가을밤》은 과연 얼마나 많은 꿈과 추억과 랑만을 불러내는가.

가슴벅차게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기쁨과 행복은 《어루만지는 이삭이 하도 흐뭇해서》만도 아니

며 《벌에 들에 난알의 향기 넘쳐나서》만도 아니다.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 그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간주하는 기쁨이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나아가는 크나큰 자랑과 행복이다.

정녕 그대들의 밝은 웃음은
어버이수령님을 가장 기쁘게 하여드릴
이 가을날의 풍요한 황금빛속에 있었구나

시 《농장의 가을밤》은 시의 모든 형상요소들이 다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는데 집중되도록 하였을뿐아니라 민족적취미에 친숙한 다양한 문체론적표현수법들을 적중하게 구사함으로써 이 시가 더욱 형상적이면서도 통속적인것으로 되게 하였다.

밝고 명량한 정서로 농촌생활의 시적의미를 깊이 있게 추구한 이 시는 결국에 가서도 시인의 주장을 생경한 론리로 대치한것이 아니라 은은한 서정적여운을 끌게 하면서 숭고한 감성세계에로 이끌어간다.

.....

난알의 향기로 한껏 취한 마음들이
저 웃음속에 기쁨의 은하가 되어
어버이수령님 계신 수도의 하늘가로
흐르고있어라

사실상 시문장에서서의 단어와 문장들이 그에 고유한 속성으로서의 어휘, 문장론적 의미밖에 더는 표현하지 못한다면 과연 서정시와 같이 짧은 형식속에 얼마만한 사상을 담을수 있겠는가.

생활의 형상적반영으로서의 문학적묘사가 모두 그러하지만 특히 시는 고도로 조직화된 언어예술이므로 시인은 문장의 표현적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수사법을 능란하게 구사할줄 아는 언어의 능수로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무시할수 없는것이다.

이 시에서의 《농장의 종다리 빨간 머리수건》이라는 적중한 은유적표현에서 우리는 농장처녀의 외모는 물론 그의 정신적초상까지도 또렷이 그려볼수가 있는것이다.

형상적으로 세련되고 짜인 시일수록 정서적구조가 간결하며 《현란한》표현이 적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짧게 쓰면서도 깊이 생각케 하는 시를 써야 읽는 사람의 구미에도 맞을수 있다.

어휘표현을 잘 가공하는 기량은 시인들이 언어적 문법에 매달리기에 앞서 우리 시대 주인공들-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다감하고 풍부한 정서세계에 깊이 파고들어 철학적으로 심도있게 탐구할 때라야 터득할수 있다.

시인들은 시어선택에서 까다롭지 않으며 참신하고 표현성이 높은 언어를 골라야 하며 말의 뜻을 감성적으로 표상할수 있고 말소리의 특성을 살려 음의 조화를 읽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시의 운률도 잘 조성할수 있으며 풍만한 정서도 뿜어나오게 할수 있다.

서정시에서의 운률은 다 만들어낸 음식물에 덧치는 양념과 같은 첨가물이 아니라 시의 사상적알맹이의 정서적운동형식이며 그의 발현과정이다. 따라서 서정시의 사상적내용을 창조하기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운률은 천태만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서정시는 어디까지나 옳은 문학이기때문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운률이 류창하게 흘러야 하며 순탄하고 평이해야 한다. 운률의 흐름이 너무 급해도 안되며 지내 처저도 안될것이다. 일률적으로 운률의 흐름을 급하게 하면 유순한 맛을 살릴수 없을것이며 시를 읊으면서도 내용을 깊이 새길수 없게 한다.

반대로 운률이 지내 처지면 감정의 흐름에 굴곡을 주지 못하게 되고 늘크레하고 맥빠진 느낌을 주게 된다. 시의 운률은 내용전개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하며 오늘의 시대감정에 맞아야 한다.

시 《이 땅에 넘치는 기쁨의 노래》(문재건, 《조선문학》 1977, 9 호)는 운률이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전개하는데 복종되고있으며 읽는 사람의 호흡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의 시인들은 사회주의농촌주체의 좋은 서정시들을 창작발표함으로써 사실주의 시문학의 화원을 꽃피워나가고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오늘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전례없는 혁명적양상으로 들끓고있는 농촌현실은 사회주의농촌주체작품창작에서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농촌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농업근로자들이 두고두고 외우고싶어하며 투쟁에서 힘을 얻고 생활에서 길동무로 삼을수 있는 시를 창작해야 할것이다.